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0 6 Vol.222



부산시립합창단



라이너믹 스테이지 "영혼의 물림"

제28회  
**전국연극제**

28th  
Korea Theater Festival  
BUSAN

**2010. 6. 11. ▶▶ 6. 30.**

부산문화회관 중·소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시내 소극장, 광안리 해수욕장

주최: 부산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연극협회

주관: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후원: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 MBC 부산 KNN 부산 CBS BBS 부산불교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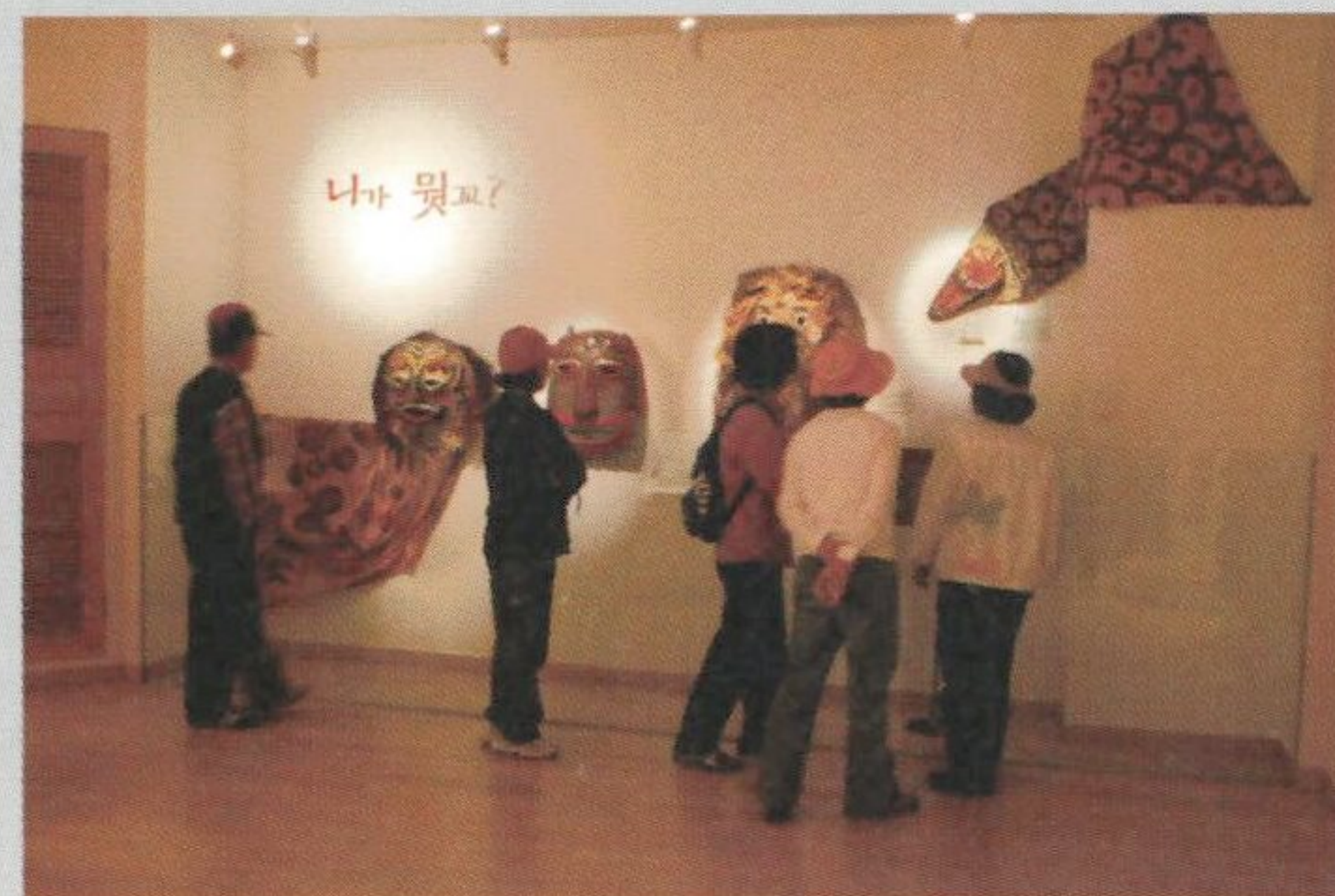
예매처: BS 팝부산 / 부산은행 전지점  
www.popbusan.com

SARANG  
TICKET  
사랑티켓 www.sati.or.kr

문의: 제28회 전국연극제 사무국 051-638-1935~7 [www.28ktf.com](http://www.28ktf.com)



# Contents



## 06 커버스토리

부산시립합창단 필리핀 합창지휘자 안나 아발레다 피케로 초청연주회

## 08 프리뷰

### 12 문화가 화제

다이나믹 스테이지 영혼의 울림 제 28회 전국 연극제

### 16 반갑습니다

소리의 본고장 남도를 놀라게 한 부산 대표 소리꾼 박성희

### 18 은현리 풍경 속에서 詩를 읽다 ㉔

이팝나무 꽃 질 무렵에 | 정일근

### 20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이야기의 도시 볼로냐 | 이승주

### 24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㉔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 | 이동신

### 26 불멸의 거장, 쇼팽 ㉔

쇼팽과 상드 | 노경원

### 28 월드뮤직

스페인에 까탈루냐, 바스크, 갈리시아 | 황윤기

## 29 헬로우 부산, 원더풀 코리아

부산생활은 멋진 모험 | 다이앤 스틸명크스

## 30 리뷰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9회 정기연주회 'BBB'II | 하순봉

문화가 있는 골목 | 남인용

## 32 그곳에 가면

도시철도 덕천역 '북카페 아트폼'

## 34 우리는 문화가족

평생학습마을 수채화반 '풀색 향기'

## 36 프로그램 가이드

## 54 나의 애청음반

메르세데스 소사가 노래한 '미사 크리올라' | 김익호

## 55 100자 토크

## 56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 58 부산문화회관 소식

## 59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2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 예술에의 초대 2010 + 06 Vol. 222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0년 5월 25일

인쇄처 | 신우정판사 Tel.051-469-2661~2 Fax.051-469-0710



# 06

## June 2010

###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SUN

MON

TUE

1

중 | 제 16회 멜로매니아 정기연주회 19:30  
초대/멜로매니아(011-590-1115)

6

7

8

중 | 제 6회 부산국제무용제 공식행사V  
AK21 국제 안무가 육성공연 19:00  
균일 1만 5천원  
부산국제무용제 사무국(555-2949)

중 | 제 6회 부산국제무용제 공식행사VI  
BIDF폐막식 및 폐막공연 19:00  
균일 1만 5천원/부산국제무용제 사무국(555-2949)

13

14

15

★ | 제 28회 전국연극제 난장 페스티벌  
인천 '서꽃들노래' 18:00  
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

중 | 제 28회 전국연극제 경연참가작  
강원 극단 굴렁쇠 '선착장에서' 16:00, 19:30  
균일 2만원/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

소 | 제 28회 전국연극제 소극장 페스티벌  
극단 즐거운사람들 '책키와 북키' 10:20, 11:40  
균일 2만원/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

20

21

22

★ | 제 28회 전국연극제 난장 페스티벌  
경기 '양주별산대놀이' 18:00  
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

★ | 제 28회 전국연극제 난장 페스티벌  
부산 '수영야류' 18:00  
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

중 | 제 28회 전국연극제 경연참가작  
충북 극단 놀풀 파몽(破夢) 16:00, 19:30  
균일 2만원/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

중 | 제 28회 전국연극제 경연참가작  
광주 극단 푸른연극마을 '사평역' 16:00, 19:30  
균일 2만원/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

소 | 제 28회 전국연극제 소극장 페스티벌  
극단 찰리 '찰리 아저씨의 마술공장' 10:20, 11:40  
균일 2만원/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

소 | 제 28회 전국연극제 소극장 페스티벌  
극단 찰리 '찰리 아저씨의 마술공장' 10:20, 11:40  
균일 2만원/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

27

28

29

★ | 제 28회 전국연극제 난장 페스티벌  
부산 '동래야류' 18:00  
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

중 | 제 28회 전국연극제 경연참가작-부산  
극단 누리에 '꿈꾸는 화석' 16:00, 19:30  
균일 2만원/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

소 | 제 28회 전국연극제 소극장 페스티벌-현대  
마임연구소 제스튀스 '기억과 착각사이' 20:00  
균일 2만원/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전시실

- ▶ 제 14회 부산회화제-대, 중전시실  
5월 31일(월)~6월 6일(일)  
문의 : 부산미술협회(632-2400)
- ▶ 제 30회 전국서도민전-대, 중전시실  
6월 13일(일)~6월 17일(목)  
문의 : 한국서도예술협회  
(441-7081, 010-5160-5291)
- ▶ 연민 배경석 서법전-중전시실  
6월 19일(토)~6월 25일(금)  
문의 : 배경석(442-4721, 010-9929-4721)
- ▶ 제 19회 부산한국화전-대전시실  
6월 21일(월)~6월 27일(일)  
문의 : 부산미술협회(632-2400)



※ ★은 야외광장, 중은 중극장, 소는 소극장입니다.

WED	THU	FRI	SAT
2	3	4	5
	<p>중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60회 정기연주회(2010 부산연주인시리즈) BBB III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0 - 페퍼톤스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p>	
9	10	11	12
<p>중   UKO(United Korean Orchestra) 정기연주회 '제 18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19:30 균일 2만원/정희재(011-589-3111)</p>			<p>소   제 28회 전국연극제 소극장 페스티벌 원주뮤지컬컴퍼니 뮤지컬 '프로포즈' 17:00 균일 2만원/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p>
16	17	18	19
<p>★   제 28회 전국연극제 난장 페스티벌 류무용단 '2010 춤의 향기를 싣고' 18:00 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p> <p>중   제28회 전국연극제 경연참가작 경기 극단 들뢰 '에비대왕' 16:00, 19:30 균일 2만원/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p> <p>소   제 28회 전국연극제 소극장 페스티벌 극단 즐거운사람들 '책키와 북키' 10:20, 11:40 균일 2만원/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p>	<p>중   제28회 전국연극제 경연참가작 울산 극단 물의 진화 '어머니' 16:00, 19:30 균일 2만원/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p> <p>소   제 28회 전국연극제 '전국시민연극제' 16:00 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p>	<p>★   제 28회 전국연극제 난장 페스티벌 합경 '북청사자놀음' 18:00 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p> <p>중   제28회 전국연극제 경연참가작 울산 극단 물의 진화 '어머니' 16:00, 19:30 균일 2만원/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p> <p>소   제 28회 전국연극제 '전국시민연극제' 13:00 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p>	<p>소   제 28회 전국연극제 '전국시민연극제' 15:00 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p>
23	24	25	26
<p>소   제 28회 전국연극제 소극장 페스티벌 홍순아무용단 '풀이III' 20:00 균일 2만원/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p>	<p>★   제 28회 전국연극제 난장 페스티벌 경남 '고성오광대' 18:00 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p> <p>중   제28회 전국연극제 경연참가작 대구 극단 한울림 '울돌목' 16:00, 19:30 균일 2만원/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p> <p>소   제 28회 전국연극제 소극장 페스티벌 홍순아무용단 '풀이III' 20:00 균일 2만원/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p>		<p>★   제 28회 전국연극제 난장 페스티벌 강릉 '관노가면극' 18:00 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p> <p>중   제28회 전국연극제 경연참가작 제주 극단 가람 '땅 끝에 서면 바다가 보인다' 16:00, 19:30 균일 2만원/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p> <p>소   제 28회 전국연극제 소극장 페스티벌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튀스 '기억과 착각사이' 17:00, 20:00 균일 2만원/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p>
30	7/1	7/2	7/3
<p>중   제 28회 전국연극제 폐막식(시상식 및 뮤지컬 갈라쇼) 15:00 균일 2만원/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p>	<p>중   제 27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760-1121)</p> <p>소   제 27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760-1121)</p>	<p>중   제 27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760-1121)</p> <p>소   제 27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760-1121)</p>	<p>중   제 27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760-1121)</p> <p>소   제 27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760-1121)</p>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 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 바랍니다.





## 부산시립합창단

### 필리핀 합창지휘자 **안나 아발레다 피케로** 초청연주회

6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세계적인 합창강국 필리핀의 합창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신세대 지휘자 안나 아발레다 피케로(Anna Abaleda Piquero)가 부산시립합창단의 객원지휘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좋은 합창단 지휘자로, 성악과 합창임상의(Clinician)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안나 아발레다 피케로는 21세기의 합창의 문화주도권을 쥐고 있는 필리핀 최고의 합창지휘자로 평가받고 있다.

수차례 국내 초청공연을 가진 바 있는 안나 아발레다 피케로는 특히 2007년부터 부산국제합창제에 참가, 부산 음악애호가들과도 친숙하다. 2006년 Visayas Chorale 대학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창단 1년 남짓 된 대학 합창단과 부산국제합창제에 참가해 은메달을 수상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East Chorale 대학의 지휘자로 2년 연속 부산국제합창제에 참가해 대상(Grand Prix)를 수상하기도 했다.





“

저에게 가장 큰 성취가 있다면

제가 노래를 가르침으로 인해 합창단이 그 노래로 감동을 받고 또한 듣는 사람에게도 감동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합창은 비록 음정과 박자 그리고 곡의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노래에 있는 감정이 저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목소리의 전달과 음조입니다.

”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초청 연주회를 가진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 음악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안나 아발레다 피케로는 필리핀의 대학합창단, 상토 토마스 합창단 같은 아마추어 합창단들을 국제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시키면서 세계유수 극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16세부터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며 풍부한 합창경험을 쌓은 안나 아발레다 피케로는 Philippine Finance Choral Competition, 제 1회 Concurso Coral de Ateneo, 제 23회 Bela Bartok International Choir Competition and Festival(헝가리)에서 최고지휘자상을 수상했다.

안나 아발레다 피케로는 합창에 있어 음정과 박자, 곡의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노래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즐거움을 항상 강조한다. 그는 23년동안 합창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많은 합창단과도 교류해왔다.

이번 무대는 2003년 독일 지휘자 ‘로트니 아이헨 버그’, 2008년 러시아 지휘자 ‘비아체슬라프 빠쾰엘스키’ 초청연주회에서 보여준 객원 지휘자들과 차별화된 무대로 현시대의 다른 문화권의 합창문화를 부산에서 선보인다는데 의미가 있다. 안나 아발레다 피케로는 필리핀을 비롯한 세계의 현대음악과 고전, 팝음악으로 독창적인 무대를 열어줄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부산시립합창단이 보여주었던 공연 모습과 달리 신체와 타

악기를 이용한 무반주음악들을 선곡, 관객들에게 신선한 화음의 세계로 안내한다.

전체적 프로그램은 영어권의 가사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고전의 텍스트를 가지고 현대풍으로 변안한 고전과 현대의 감각을 함께 선보인다. 세계적인 합창명곡인 B. 라이오스의 ‘Cantemus’, V.미스키니스의 ‘Laudate Pueri Dominum’, J.A. 팔민투안의 ‘Crucifixus’를 비롯해 화성 감각이 절묘한 ‘Sleep’과 ‘Witness’, 한국인에게는 생소하지만 해외 합창콩쿠르나 합창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필리핀, 스페인, 인도네시아의 민요 변안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2부 무대는 1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진행된다. 우리 귀에 친숙한 ‘Lollipop’과 팝그룹 퀸의 ‘We Willi Rock You’가 합창곡으로 소개된다. 2부 전체 8곡 중 5곡은 지휘자 안나 아발레다 피케로가 직접 편곡한 곡이다. 안나 아발레다 피케로는 기존 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와는 다른 분위기의 안무와 흥겨운 멜로디가 함께 하는 버라이어티한 무대를 연출, 부산시립합창단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계획이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정기연주회에 앞서 6월 10일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안나 아발레다 피케로와 함께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의 운영과 연습방법’ ‘현 시대 합창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2010 제 6회 부산국제무용제 땅. 하늘. 바다 춤 릴레이 축제-그 전설의 기상과 힘

6월 4일-8일 금-화요일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및 해운대 일원, 광안리 해변상설무대,  
부산역 광장, 해운대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등

세계 해양 춤 축제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산국제무용제가 '그 전설의 기상과 힘'을 주제로 6월 4일부터 8일까지 부산전역에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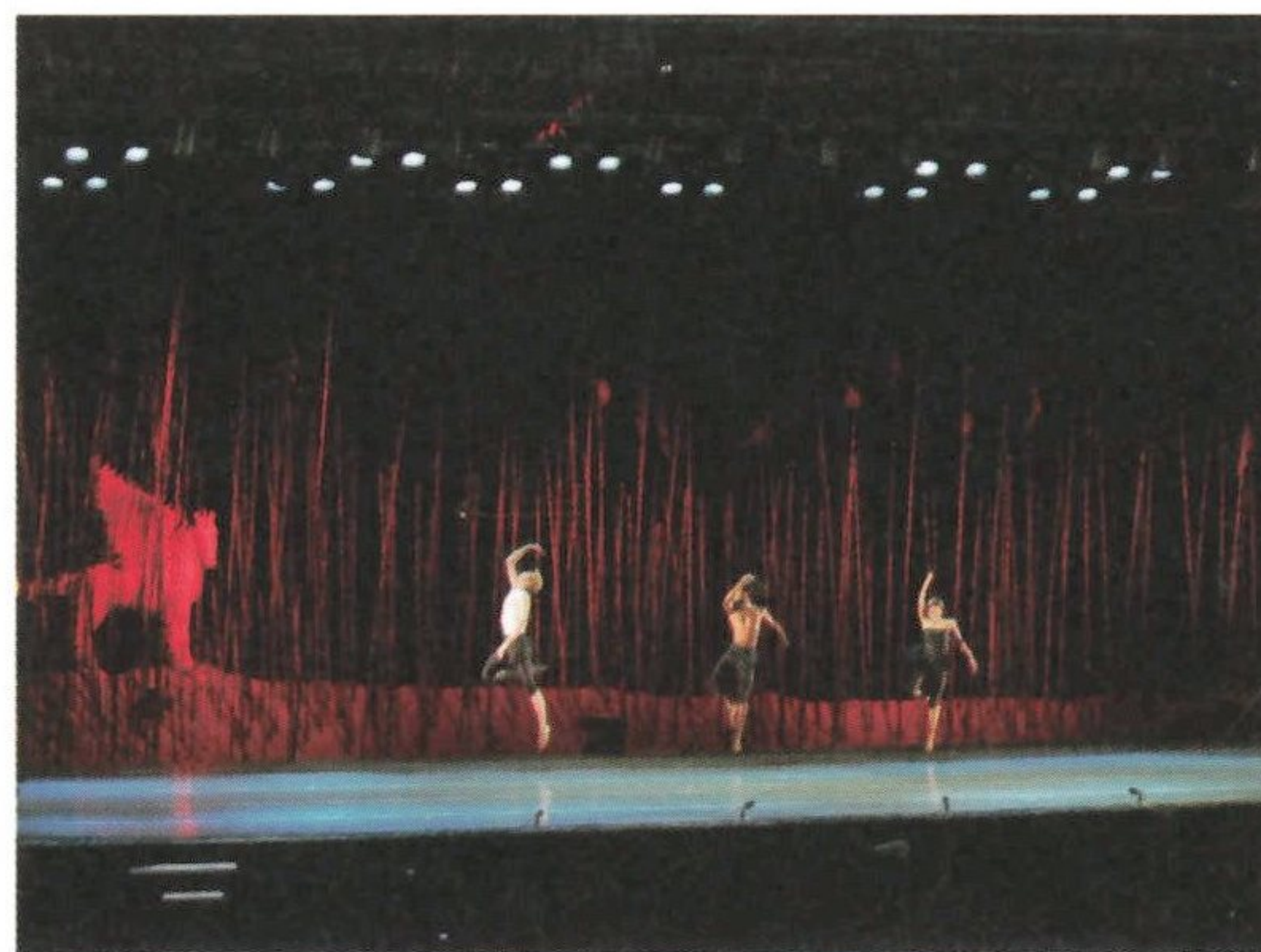
2010년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개국 127팀, 779작품이 아름다운 부산의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와의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러시아 최고의 무용단 Chelyabinsk Contemporary Dance Theater를 비롯해 국내외 최고의 프로 무용팀을 초청, 화려한 축제의 장을 펼친다.

2009년 대한민국 지역무용축제 최초로 국비지원을 받아 화제를 모은 부산국제무용제는 부산 해변에 설치 미술로 아트 스테이지와 'BIDF 예술장학지원사업'을 통한 'AK(Art Korea)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치뤘내면서 국내 최대의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했다.

2010년 BIDF 성공개최를 위해 3월부터 시민문화 춤 릴레이를 시작, 4개월의 대 장정을 펼친 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운영위원장/이운자)는 한국을 빛낸 '월드스타 강수진'을 BIDF 홍보대사 위촉, 부산국제무용제의 위상을 드높였다.

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는 올해 보다 다양한 춤의 경향을 선보이기 위해 초청 단체에 심혈을 기울였다. 공식초청작은 인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베네주엘라, 중국, 아일랜드, 러시아, 프랑스, 일본, 미국 등 11개국에서 수준 높은 90개 무용·예술작품이 선정되었다. 공식초청작품들은 국내 외팀 공식초청작공연, BIDF 춤 아카데미 초청공연, AK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 개·폐막 축하공연, 열린 춤 무대(전공 자유 참가작), BIDF 스트리트 춤 퍼포먼스, BIDF 프랑스-한국 국가간 공동프로젝트 등의 무대를 통해 만날 수 있다.

BIDF 문화 춤 릴레이에서는 689작품을 선보인다. 3월 21일 막이 오른 BIDF문화춤릴레이는 BIDF성공개최를 위한 시민문화 춤 릴레이를 시작으로 'BIDF 춤 릴레이전(6월 4일)', 시민 춤 한마당 릴레이(6월 6일), BIDF 미니 릴레이(6월 4일~6일)가 축제기간에 펼쳐진다. 무용제 기간 해운대 일원에서는 개막식 행사 전·후로 폐막식까지 BIDF Cafe '융합과 소통의 만남'이 마련된다.







세계 무용계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식행사 II 'BIDF 공식초청작 공연(6월 5일~6월6일, 해운대 해변특설무대)은 국내외 11개국에서 초청된 공식 초청팀의 공연이 펼쳐진다.

해외에서는 Mamata Shankar Dance Company(인도), Fine 5 Dance Theater (에스토니아), Inval Pinto & Avshalom Pollak(이스라엘), Danzaluz(베네주엘라), Nanjing Dance Company(중국), Dance Theater of IRELAND(아일랜드), Chelyabinsk Contemporary Dance Theater(러시아), Yann Lheureux(프랑스) & BIDF 프로젝트 무용단, Takafumi Kodama Dance Company(일본), Santa Barbara Dance Theatre(미국), 국내에서는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현대무용단 까두, LDP무용단, 국립발레단, 부산시립무용단이 참가, 부산의 여름바다를 아름답게 수놓는다.

공식행사III인 'BIDF 춤 릴레이전'(6월 4일, 해운대 해변 및 특설무대)은 BIDF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 문화 춤 릴레이'(4월~6월)에 이어 국내외 초청팀, 참가팀, 일반시민, 행사스텝 등 BIDF에 참여하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해운대 해변을 배경으로 춤 릴레이를 펼친다.

그 외 부산대학교 주수광 교수, 경성대학교 신정희 교수, 동의대학교 김희은 교수, 부산예술대학 김은정 교수, 부산대학교 강미리 교수가 펼치는 공식행사IV 'BIDF 춤 아카데미 초청공연(6월 5일,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부산국제무용제 장학지원사업 공식행사V AK(Art Korea)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6월 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공식행사VI BIDF 해외공연 교류 지원사업 프랑스-한국 국가간 공동프로젝트 'Yann Lheureux(프랑스) & BIDF프로젝트무용단' 신작공연(6월 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국제무용축제와 지역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열리는 공식행사VII BIDF 국제포럼(6월 5일, 해운대 그랜드호텔 대연회장)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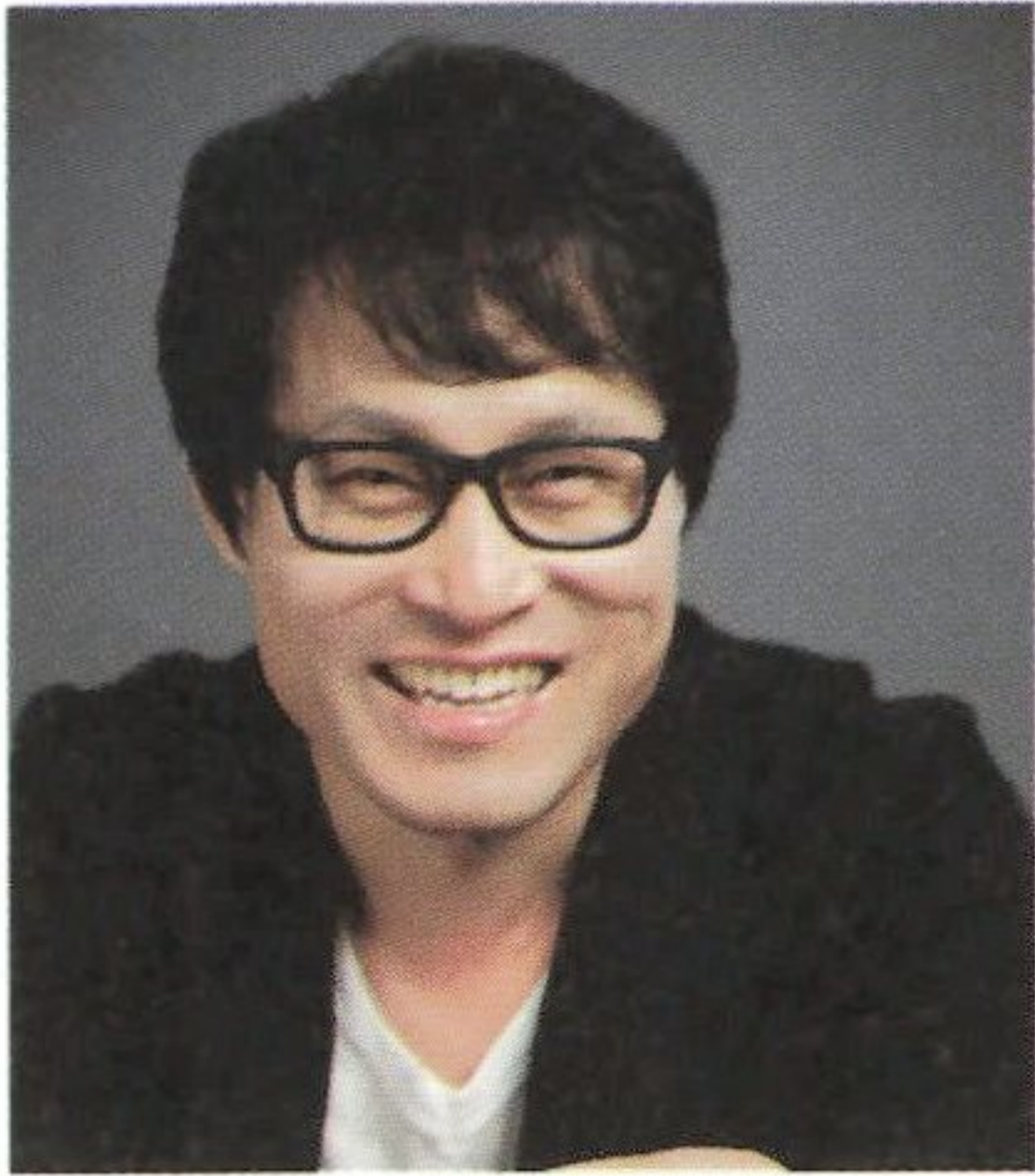
부산국제무용제가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기획한 AK(Art Korea)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은 2010년 1차(비디오&서류심사), 2차(실기오디션) 심사에서 선정된 김남진(댄스시어터 창), 김영지(부산발레연구회), 이광석(댄스컴퍼니 미디어스), 이지은(이지은무용단) 등 4개팀과 2009년 'AK(Art Korea)21 해외공연교류사업'에 선정된 'LOM Dance Company(하정오무용단)'이 부산무용애호가들을 만난다.

부산국제무용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BIDF 폐막무대는 6월 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폐막무대에서는 해외공연 교류지원사업으로 Yann Lheureux(프랑스) & BIDF프로젝트무용단이 공동으로 선보이는 신작 공연과 2010년 시범행사로 선정된 '아름다운 젊은 예술인의 열정' '아름다운 춤 인생'상 시상식, BIDF영상파노라마, 폐막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70세 이상의 원로무용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하는 '아름다운 춤 인생'은 문장원, 조숙자, 김진홍, 배혜경, 김온경이 선정되어 후배 춤꾼들, 제자들과 아름다운 축하의 장이 마련된다.



## 마당춤판 별주부전 - 용궁으로 간 토끼

6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7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7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수석안무자 홍기태

우리 전통 설화를 해학과 신명, 감동이 살아있는 마당춤판으로 재구성해 많은 사랑을 받아온 부산시립무용단이 2009년 부산 시민들에게 사랑받은 마당춤판 '별주부전- 용궁으로 간 토끼'로 區 문화회관 순회공연에 나선다.

'2003 춘향'을 시작으로 그동안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동화, 설화)를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마당춤판으로 재구성, 부산 무용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해 온 부산시립무용단은 '2004 흥부 vs 놀부', '2005 이쁜이 시집가는 날', '2006 男 콩쥐 vs 팥쥐', '2007 선녀와 나무꾼', '2008 장화홍련'에 이어 2009년 '별주부전'으로 마당춤판의 매력을 선사해왔다.

'이쁜이 시집가는 날' '선녀와 나무꾼' 등 예전의 마당춤판 레퍼토리들이 현대적 감각으로 각색되어져 관객들과 호흡한 반면 '별주부전'은 전통 설화 줄거리를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인의 정서에 맞게 각색해 지난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히 우리정서에 맞는 우리가락 라이브 반주, 부산의 대표 소리꾼 박성희의 판소리 '수궁가'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캐릭터, 소품을 활용한 용궁과 육지의 장면변화, 다양한 물고기들과 동물들의 난타, 토끼친구들 춤, 자라친구들 춤, 물춤, 물고기춤, 화공춤 등으로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단원과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마당춤판은 무대 위에서 춤으로 만나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이 노래, 연기도 펼치며 다양한 끼를 발휘해왔다. '별주부전'에서는 최의옥이 자라로, 김시현이 토끼, 김병주가 용왕으로 출연,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이 즐거운 웃음을 선사한다.



- 관람료 무료(선착순입장)
-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생태음악회 IV '상생 2010'

6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아름다운 국악 선율로 전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10년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생태음악회 '상생 2010'이 6월 24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네번째를 맞는 '환경생태음악회'는 오늘날 인류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환경생태의 문제를 되돌아 보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영남대학교 최문진 교수가 객원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국악계의 뉴에이지 작곡가로 명성을 얻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작곡가 강상구의 피아노 협연으로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창작관현악곡을 들려준다.

객원지휘를 맡은 지휘자 최문진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83호 향제줄풍류 이수자로, 김천시립국악단 초대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영남국악관현악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구시립국악단, 경상북도립국악단 객원지휘를 맡기도 했던 최문진은 미국 워싱턴대학교 초빙교수, Wesleyan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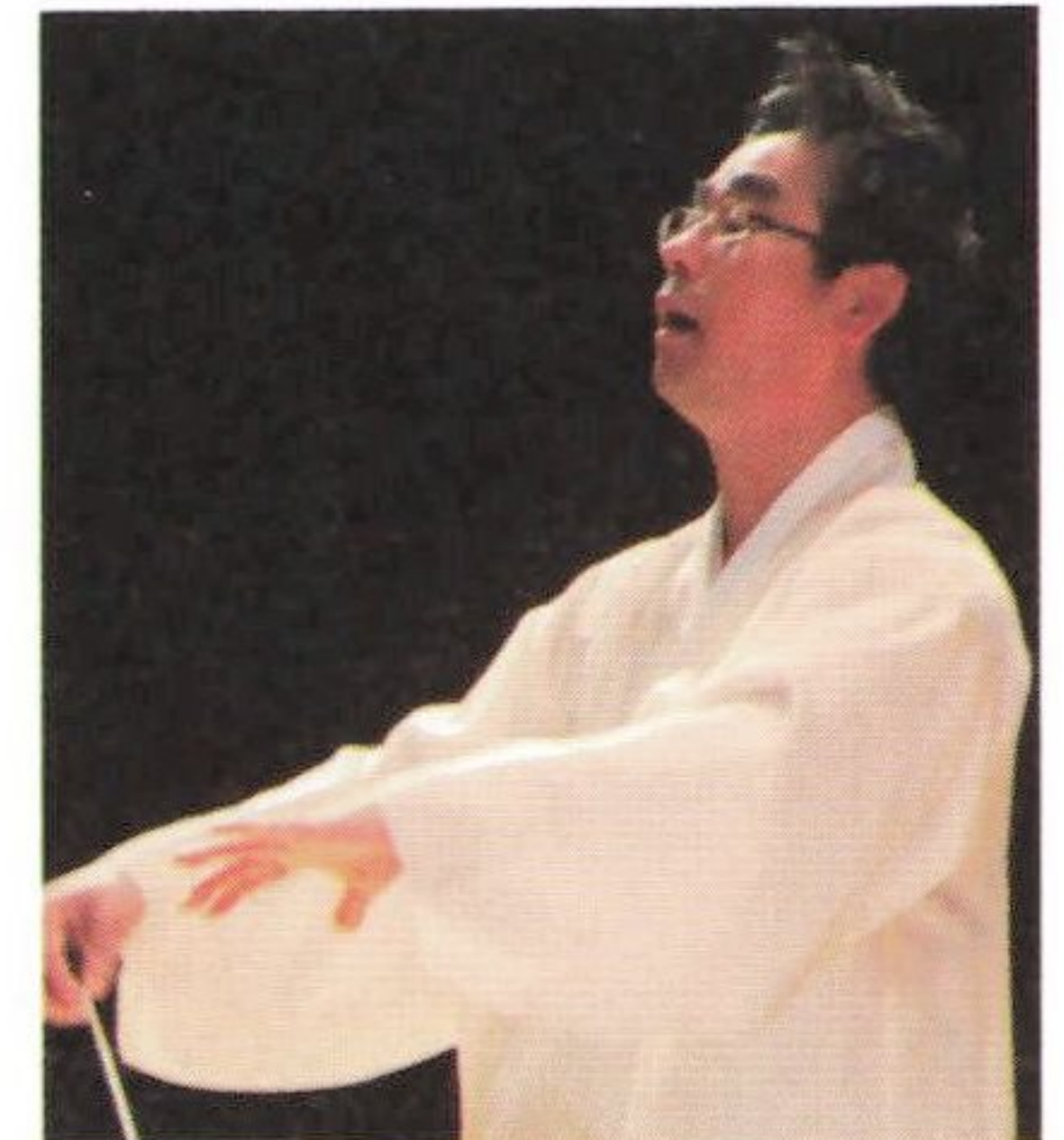
이번 무대의 첫 곡은 강상구 곡 '아침을 두드리는 소리'로 연다.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의 변화를 음악으로 표현한 '아침을 두드리는 소리'는 2002년 경기도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동서양 악기의 조화를 훌륭히 표현해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자인 강상구가 직접 피아노 협연을 맡아 무대에 선다.

협연자 강상구는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이순신' '브레이크아웃', 무용극 '이화' 등 800여곡을 작곡한 주목받는 국악 작곡가로, 동아음악콩쿠르 작곡부문 2위, 제 12회 한국뮤지컬대상 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두 번째 곡인 월일 곡 '나비·꿈'은 장자의 꿈 이야기에 매료된 작곡가가 구상한 창작관현악곡으로, 총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서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담은 오윤일 곡 '향(鄕)'이 연주된다. 부산에서 처음 연주되는 '향(鄕)'은 몽금포의 아름다운 정경과 어부들의 소박한 생태를 표현한 몽금포타령을 주선율로, 국악기와 서양악기를 혼합편성하고 서양의 화성과 대위법을 적절히 혼용해 전통음악의 곡풍을 잃지 않은 곡이다.

정동희 곡 '대지의 숨'은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있지만 땅 위의 모든 것들에게 생명의 숨을 넣어 주는 대지의 에너지를 표현한 곡이며, 마지막 곡인 오혁 곡 '고별'은 작곡자가 느끼는 고별에 대한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곡이다. 2005 국악작곡축제 대상곡인 '고별'은 고별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장조보다는 무거운 단조를 사용했으나 곡 중간 중간에 대아쟁, 대피리의 여유로운 솔로와 합주를 삽입하면서 곡의 무게를 가볍게 표현하고 있다. '대지의 숨', '고별' 두 곡 역시 부산에서는 처음 연주되는 곡이다.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9월 1일 이전 가입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은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일 이후 가입한 정기회원은 20% 할인됩니다.)
-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객원지휘자 최문진



피아노 강상구



# 다이나믹 스테이지 영혼의 울림 제 28회 전국연극제

6월 11일(토)~30일(수)

부산문화회관 중·소극장, 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시내 소극장, 광안리해수욕장



올해로 28회를 맞는 전국연극제가 부산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부산에서 전국연극제가 개최되는 것은 제 1회 전국연극제가 열렸던 1983년과 199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제 28회 전국연극제는 오는 6월 11일 시민회관에서 펼쳐지는 개막식 및 개막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번 전국연극제에서는 지역예선을 거친 15개 시·도 대표팀이 참가하는 경연대회와 해외초청공연, 소극장 페스티벌, 난장 페스티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린지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부산지역 7개 소극장을 중심으로 뮤지컬, 신체극, 마임, 아동극 등 다양한 장르가 무대에 오르는 소극장 페스티벌과 전통연희극, 거리 퍼포먼스 등 야외에서 펼쳐지는 난장페스티벌은 이번 연극제에서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볼거리이다.

올해 전국연극제 개막축하공연은 한국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이윤택 창작뮤지컬 '이순신'을 선보인다. 뮤지컬 '이순신'은 무대에서 살아움직이는 듯한 거북선과 실전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완성해낸 한산대첩 등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스펙터클한 무대를 선사한다.

## 개막 축하공연

### 연희단거리패 창작뮤지컬 '이순신'

6월 11일 금요일 오후 7:00, 12일-13일 토-일요일 오후 3:00

시민회관 대극장

스펙타클한 극구성과 거북선과 판옥선이 오가는 대형무대, 국악과 양악의 만남으로 한국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창작뮤지컬.

· 작, 연출/이윤택

· 작곡/강상구, 원일 · 안무/김윤규  
· 출연/민영기, 이광용, 김순택, 김소희, 이승현, 김미숙, 지현준 외

## 해외초청공연

###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청년문화예술극장 '헤다 가블러'

6월 17일 목요일 오후 4:00 시민회관 소극장

노르웨이 극작가 입센의 동명의 희곡을 러시아 특유의 정서와 기법을 통해 신랄하게 파헤친다.

· 원작/헨릭 입센 · 각색, 연출/따찌아나 파블로바

###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 '까드릴-마누라 바꾸기'

6월 23일 수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소극장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매년 우리말로 작품을 올려온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의 '까드릴-마누라 바꾸기'.

· 작/이 올레그 · 극작/블라디미르 구르킨

## 경연작

### 극단 선창 '철조망이 있는 풍경'(전라남도)

6월 13일 일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소극장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이산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그린 작품.

· 작/노경식 · 연출/강대흠

### 극단 굴령쇠 '선착장에서'(강원도)

6월 14일 월요일 오후 4:0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비바람이 몰아치는 울릉도. 물으로 나가려는 규희와 그를 말리는 마을사람들과 충돌이 빚어지면서 섬의 비밀들이 하나씩 폭로된다.

· 작/박근형 · 연출/변유정

### 극단 앙상블 '밥'(대전광역시)

6월 15일 화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소극장

30년 동안 사제의 밥을 해온 식복사는 치매에 걸려 수도원으로 떠나는 사제의 마지막 밥상을 준비한다.

· 작/김나영 · 연출/이종국

### 극단 물뽕 '에비대왕'(경기도)

6월 16일 수요일 오후 4:0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던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개인의 욕망과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과 통찰을 보여주는 작품.

· 작/홍원기 · 연출/임성주



### 극단 물의 진화 '어머니'(울산광역시)

6월 18일 금요일 오후 4:0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일제 식민지와 광복, 6·25 동란의 격동기를 겪으며 치열하게 살아 온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작품.  
· 작/이윤택 · 연출/고선평

### 극단 홍성무대 '국밥'(충청남도)

6월 19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소극장  
재개발지역에 모여든 아웃사이더들을 주인공으로, 결코 좌절하지 않는 인간 본연의 존재의미를 묻는 작품.  
· 작, 연출/전인섭

### 극단 놀품 '破夢(파몽)'(충청북도)

6월 20일 일요일 오후 4:0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공민왕이 살았던 고려말 역사적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랑과 권력의 대서사시.  
· 작/신봉승 · 연출/김상규

### 극단 예도 '주.인.공(酒.人.空)'(경상남도)

6월 21일 월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소극장  
술(酒)과 사람(人)이 공(空)존하는 축제 같은 세상. 술, 사람, 누가 주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의 불행한 이야기.  
· 작/전혜윤, 이삼우 · 연출/이삼우

### 극단 푸른연극마을 '사평역'(광주광역시)

6월 22일 화요일 오후 4:0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눈이 내리는 어느 시골 간이역,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소시민들의 자화상을 그린 작품.  
· 원작/곽재구 · 각색, 연출/오성완

### 극단 한울림 '울돌목'(대구광역시)

6월 24일 목요일 오후 4:0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이순신 장군이 파직 당한 이후 이순신 장군 없는 한산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임진왜란 이야기.  
· 작/박용하 · 연출/정철원

### 극단 한내 '아리랑'(경상북도)

6월 25일 금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소극장  
재미있는 입담과 춤, 노래로 민중들에게 '아리랑'의 감동을 전하던 떠돌이 광대 김불출 이야기.  
· 작/김명곤 · 연출/김은희

### 극단 가람 '땅 끝에 서면 바다가 보인다'(제주특별자치도)

6월 26일 토요일 오후 4:0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독섬 목욕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양한 인물을 통해 코믹하면서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  
· 작/김태수 · 연출/이상용

### 극단 연극하는 사람들 무대지기 '눈 오는 봄날'(전라북도)

6월 27일 일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소극장  
철거 직전인 달동네를 배경으로 하루 벌어 근근이 살아가나 마음만은 따뜻한 우리네 이웃들의 삶을 그린 작품.



개막축하공연으로 무대에 오르는 창작뮤지컬 '이순신'

· 작/김정숙 · 연출/안세형

### 극단 누리에 '꿈꾸는 화석'(부산광역시)

6월 28일 월요일 오후 4:0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일제 강점기 치하 서로 다른 선택을 내려야했던 수한과 진한, 기영의 삶을 통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작품.  
· 작/고연옥 · 연출/강성우

### 극단 집현 '장릉의 지문'(인천광역시)

6월 29일 화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소극장  
오직 대명의리에만 집착해 결국 실패로 끝난 효종의 북벌 계획과 사대부들의 대의명분의 허구를 밝히는 역사극.  
· 작/박철민 · 연출/이상희

### 소극장 페스티벌

#### 극단 아이터 '안돼요 안돼'

6월 11일 금요일 오전 10:20, 11:40, 12일 토요일 오후 2:00 공간소극장  
소아비만과 올바른 식사관을 주제로 한 창작 가족뮤지컬.  
· 작, 연출/김영래

#### 아동극단 기린 '노기오의 별난여행'

6월 11일 금요일 오전 10:30, 11:30, 1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자유바다 소극장  
친구 피노키오와 함께 떠나는 신나는 여행과 모험의 세계.  
· 작, 연출/강혜란

#### 극단 배우공동체 배우창고 '윌티드 스카팽'

6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12일 토요일 오후 5:00, 13일 일요일 오후 5:00, 8:00 액터스소극장  
몰리에르의 희극 '스카팽의 간계'를 무대화한 작품.  
· 원작/몰리에르 · 연출/박용현

#### 극단 마루 '슬픈연극'

6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13일 일요일 오후 5:00, 8:00, 14일 월요일 오후 8:00 소극장 6번출구  
차분하게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려는 부인과 애써 아내의 죽음을 외면하려는 남편간의 마지막 사랑을 그린 작품.  
· 원작/민복기 · 연출/박현배



### 극단 은세계 '오페리아의 그림자 극장'

6월 12일-13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에저또 소극장  
목소리가 작아 배우가 되지 못한 오페리아와 주인없이 세상을 떠도는 그림자가 펼치는 환상적인 그림자극.  
· 원작/미하엘 엔데 · 연출/이동준

### 극단 원주뮤지컬컴퍼니 뮤지컬 '프로포즈'

6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소극장  
젊은 연인들의 좌충우돌 프로포즈 대작전.  
· 작/안톤 체홉 · 각색, 연출/박창현

### 극단 인천 '그건 도깨비 마음이야'

6월 13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14일 월요일 오전 10:20, 11:40 청춘나비아트홀  
도깨비 친구를 만나게 된 소녀 나박이의 신나는 모험을 그린 아동극.  
· 작/천성국 · 연출/천성국

### 극단 고도 '미스맘'

6월 13일 일요일 오후 5:00, 8:00, 14일-15일 월-화요일 오후 8:00 용천지랄 소극장  
결혼을 하지않고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낳거나 입양해 기르는 여성을 일컫는 '미스 맘'을 소재로 한 작품.  
· 작/한대원 · 연출/이현진

### 극단 외치는 소리 '미술관은 살아있다'

6월 14일-15일 월-화요일 오전 10:20, 11:40 자유바다소극장  
밤이면 그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림 속 친구 '동키'와 '장화신은 고양이'의 환상적인 미술관 여행.  
· 작, 연출/김동환

### 극단 KC퍼포먼스 '호녀와의 동거'

6월 15일-16일 화-수요일 오후 8:00 에저또 소극장  
노벨상 수상작가 다리오 포의 '호랑이 아줌마'를 각색한 권철의 모노드라마.  
· 원작/다리오 포 · 드라마트루기/김남석 · 연출, 출연/권철

### 극단 즐거운 사람들 '책키와 북키'

6월 15일-16일 화-수요일 오전 10:20, 11:4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음악, 미술, 책 등이 금지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책키와 책의 요정



극단 은세계 '오페리아의 그림자 극장'

'북키'가 펼치는 책 속 모험의 세계.  
· 작/고순덕 · 연출/천성국

### 극단 영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6월 16일-17일 수-목요일 오전 10:20, 11:40 소극장 6번출구  
환상과 모험의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를 그림자극으로 각색한 어린이 뮤지컬.  
· 작/이정민 · 연출/이정민

### 극단 님비 곰비 '베티의 과학 여행'

6월 16일-17일 수-목요일 오전 10:20, 11:40 액터스소극장  
소녀베티와 떠나는 신나는 과학여행.  
· 연출/정상식

### 극단 세진 '지니 스토리 The Best'

6월 17일 목요일 오후 5:00, 18일 금요일 오후 8:00, 19일 토요일 오후 5:00, 8:00 청춘나비 아트홀  
마임리스트 김세진의 대표적인 마임극을 감상할 수 있는 극단 세진의 유니버스 마임극.

### 극단 판굿코리아 '굴레-욕(慾/欲)'

6월 18일 금요일 오후 8:00,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5:00, 8:00 자유바다 소극장  
변화무쌍한 욕망을 위해 삶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인간을 통해 삶의 상생(相生)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작품.  
· 작, 연출/차희

### 극단 누리예 '적의 화장법'

6월 18일 금요일 오후 8:00, 19일 토요일 오후 5:00, 8:00 용천지랄 소극장  
피할 수 없는 내부의 적과의 한판 대결을 그린 작품.  
· 원작/아멜리 노통브 · 연출/강성우

### 극단 엘칸토 '황혼열차'

6월 18일 금요일 오후 8:00, 19일 토요일 오후 5:00, 8:00 에저또 소극장  
고령화 사회 속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노인문제를 그린 작품.  
· 작, 연출/봉두개

### 달란트 연극마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6월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2:00, 5:00 공간소극장  
셸 실버스타인의 동화를 구연동화와 마임으로 구성한 가족극.  
· 작/셸 실버스타인 · 각색, 연출, 출연/최경식

### 그룹포차 '추격자'

6월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5:00, 8:00, 21일 월요일 오후 8:00 소극장 6번출구  
2명의 도망자와 이를 쫓는 추격자... 마치 한편의 만화와 같이 펼쳐지는 신나는 마임극.  
· 작/공동창작 · 연출/송정배

### 극단 얼 아리 '그들의 사회화'

6월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5:00, 8:00 액터스소극장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린 작품.  
· 작, 연출/양태훈



### 극단 금설 '이불꽃'

6월 21일-22일 월-화요일 오전 10:20, 11:40 청춘나비아트홀  
출산기간동안 벌어지는 희로애락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그린 작품.  
· 작, 연출/김신기

### 극단 찰리 '찰리 아저씨의 마술공장'

6월 21일-22일 월-화요일 오전 10:20, 11:4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마술공장 공장장 찰리아저씨가 펼치는 신비하고 환상적인 마술공연.  
· 작, 연출/이진영

### 극단 쟁이마을 '옛날 옛적 삼년고개'

6월 22일-23일 화-수요일 오전 10:20, 11:40 공간소극장  
삼년고개에서 넘어지면 삼년밖에 못산다는 전통설화를 소재로,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일깨워주는 작품.  
· 작, 연출/김승덕

### 극단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바리데기'

6월 22일-23일 화-수요일 오후 8:00 액터스소극장  
부모를 살리기 위해 저승으로 갔던 바리데기 설화를 무대화한 작품.  
· 연출/심문섭

### 극단 나무 '애들이 같이 놀자'

6월 23일-25일 수-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6번출구  
주위의 버려진 폐품을 이용해 펼쳐지는 다양한 상상의 세계.  
· 작/공동창작 · 연출/기태인

###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팔죽할멈과 호랑이'

6월 23일-24일 수-목요일 오전 10:20, 11:40 자유바다 소극장  
우리의 전래설화를 어린이의 시선으로 재미있게 그려낸 가족뮤지컬.  
· 연출/오계영

### 극단 DIC '결혼연습'

6월 23일-24일 수-목요일 오후 8:00 용천지랄소극장  
공무원 생활 18년차의 혼자 사는 남자 조지와 만삭의 19세 소녀 루  
이스와의 예측불허 러브 스토리.  
· 원작/레이 쿠니 · 연출/정문희

### 극단 (주)디엠씨커뮤니케이션즈 '사람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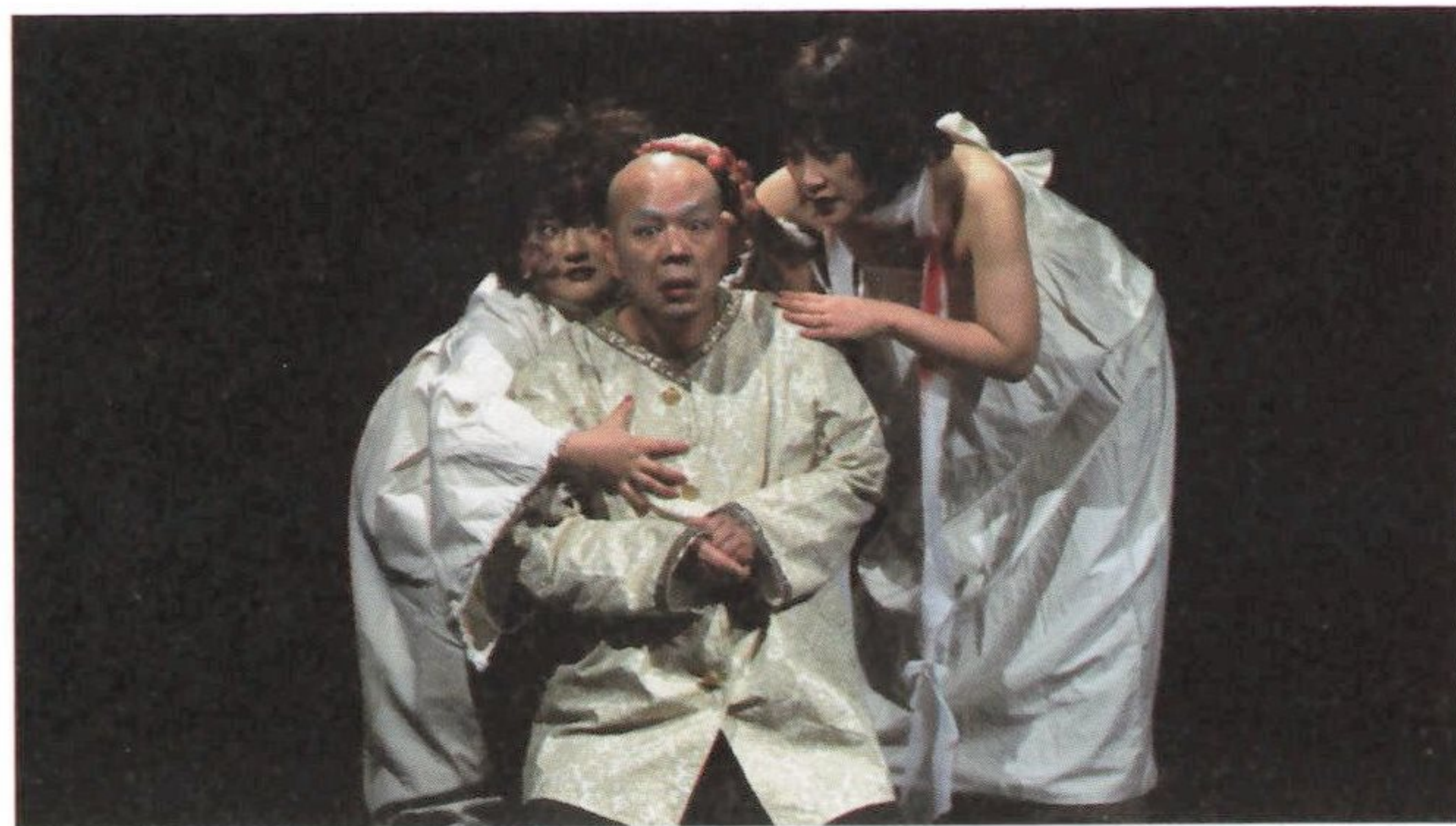
6월 23일-24일 수-목요일 오후 8:00 에저또 소극장  
행위와 기타, 장구, 성악이 만나는 새로운 형식의 난장무대.  
· 연출/정수석

### 홍순아무용단 '풀이 II'

6월 23일-24일 수-목요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욕심의 시작과 끝을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한 창작무용.  
· 안무/홍순아

### 극단 그림연극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날개'

6월 24일-25일 목-금요일 오후 8:00, 26일 토요일 오후 5:00, 8:00  
청춘나비 아트홀  
이상의 대표작 '날개'를 애니메이션, 인형극, 그림자극 등 다양한 방  
식으로 표현한 작품.  
· 원작/이상 · 드라마 트루기, 연출/이현찬



극단 부두연극단 'OFF-STAGE (오프-스테이지)'

### 극단 누에고치 '믹싱테라피(Mixing Therapy)'

6월 25일 금요일 오후 8:00,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5:00, 8:00  
공간소극장  
서로간의 충돌로 개인이란 껍질이 허물어졌을 때, 타인의 도움과 신  
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작품.  
· 작/전영지 · 연출/양승주

### 극단 부두연극단 'OFF-STAGE (오프-스테이지)'

6월 25일 금요일 오후 8:00,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5:00, 8:00  
액터스소극장  
소외된 배우들의 꿈과 현실을 장-주네 식의 거울의 연극으로 새롭  
게 창조한 메타드라마.  
· 재구성, 연출/이성규

### 극단 하얀코끼리 '어두워질 때 까지'

6월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5:00, 8:00 자유바다 소극장  
추리극의 치밀한 구성력과 탄탄한 시나리오가 돋보이는 작품.  
· 작/프레드릭 노트 · 연출/고선평

### 극단 마루 '쌍쑈(부제:내 맛이 어때서)'

6월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5:00, 8:00 용천지랄 소극장  
이윤만을 추구하는 상술이 난무하는 병든 사회를 고발하는 작품.  
· 작/선육현 · 연출/추지숙

### 극단 에저또 '돼지사냥'

6월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5:00, 8:00 에저또 소극장  
돈과 권력을 맴도는 소시민의 일상과 그 일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을  
조명한 사회풍자극.  
· 작/이상우 · 연출/최재민

###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튀스 '기억과 착각 사이'

6월 26일 토요일 오후 5:00, 8:00, 27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만든 마임극.  
· 작, 연출/최희

■ 문의 : 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 www.28ktf.com)





## 소리의 본고장 남도를 놀라게 한 부산 대표 소리꾼 박 성 희

지난 5월 1일과 2일 장흥에서 열린 '제 12회 전통가무악 전국제전'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박성희 씨가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 소리의 본고장 남도를 놀라게 했다.

“귀명창이 많은 소리의 본고장 전라도에서 열리는 대회라 부담이 컸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으로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지만 부산에도 소리꾼이 건재하다는 것을 알린 좋은 계기가 되어 무엇보다 기쁩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많은 연주일정을 소화하면서 틈틈이 대회 준비를 해온 박성희 씨는 대회 참가자 237명 중 최고상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장흥 전통가무악전국제전은 3회 대회부터 종합대상에 대통령상이 수여되면서 국악인들이 꿈꾸는 국내 최고 권위의 국악제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성장순,



김수연, 최동현, 박금희, 이명희 씨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이번 대회는 대회 첫 날 예선을 거쳐 둘째 날 오전 판소리부 본선을 치루고 오후에는 판소리, 무용, 기악, 가야금병창 등 5개 분야 1등 수상자들이 종합대상을 겨루는 무대를 다시 가졌다. 3차까지 힘든 경연을 치렀지만 대회 내내 장흥 국악애호가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박성희 씨는 결선에서 '수궁가' 중 '별주부가 땅에 올라 토끼를 만나 는 대목'을 불러 장흥지역의 수준 높은 귀명창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응원차 장흥까지 동행한 제자들은 수상 직 후 울음을 감추기 못했다. 대회 준비며 공연 준비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제자들에게 미안하고 더 없이 고맙다.

박성희 씨는 9세에 김소희 선생 문하생으로 소리를 처음 접했다. 그러나 기자가 되고싶어 소리의 맛을 채 알기 전에 소리공부를 중단했다. 학업에 전념하면서도 타고난 끼를 주체할 수 없었던 그는 부산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소리와 다시 만났다.

대학 재학 중인 1987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판소리 일반부 금상을 수상한 그는 졸업 후 1990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 입단해 현재 부수석을 맡고 있다. 당시 시립국악관현악단에는 성악 파트가 없어 타악 주자로 활동해야 했다. 박성희 씨가 입단한 후 국악관현악단에서 소리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민요나 판소리를 전공한 성악 파트 단원이 충원되었다.

그는 결혼과 출산을 거치면서 뒤 늦게 소리의 참 맛을 알았다. 1995년 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인 김용만 선생의 소개로 전정민 선생 문하에 들어가 흥보가와 수궁가를 배웠다. 서울과 해남을 오가며 소리공부를 한 그는 1998년 흥보가, 2001년 수궁가 완창 발표회를 가지기도 했다. 3년 전부터는 김소희 선생의 맥을 잇고 있는 안숙선 선생을 사사하며 춘향가를 배우고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활동 외에도 우리 소리를 알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해온 그는 퓨전국악단 '타로'의 공동 대표를 맡아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왔다. 지난해 '교과서 속의 우리 음악여행' '타로와 재즈 피아노' 무대로 새로운 형식의 판소리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외국인들에게 판소리를 보다 쉽게 들려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온 그는 그 첫 작업으로 타로와 2011년 에딘버러 페스티벌 진출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우리 소리 세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자신만의 노래를 담은 음반작업도 진행중인 그는 천지여천지여, 배 띄워라 등 그의 소리로 부각된 국악창작곡과 부산예술대학 안영수 교수가 준비하는 새로운 창작곡으로 음반을 만들 계획이다.

박성희 씨는 이번 대통령상 수상으로 더욱 바빠졌다. 지인들의 요청으로 대통령상 수상기념 특별 무대도 준비하고 있다. 8월 25일 해운대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공연, 9월 1일 금정문화회관 수요음악회를 가진 뒤 창원 성산아트홀과 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우리 소리의 매력, 신명을 전해주기 위해 소박하지만 내실 있게 준비하고 싶다.

매 공연 마다 기획을 맡아 최고의 무대를 연출해주는 남편 강열우 씨와 타악을 전공한 아들 우담이 그의 음악적 동반자로 그를 후원하고 있어 언제나 든든하다. 부산의 대표 소리꾼 박성희. 그의 도전을 지켜 보는 우리도 신명난다.(글, 사진/백경옥)



## 이팝나무 꽃 질 무렵에

정일근 \_ 시인



사진/정일근

이제 이팝나무는 흔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속성수로 개량되었는지 이 도시 저 도시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있고 하얀 꽃이 수북수북 피는 것이 여간 상쾌하지 않습니다. 이팝나무는 물푸레나무과의 낙엽교목입니다. 꽃도 좋고 잎도 좋은 나무라는 겁니다.

입하 무렵에 쌀밥 같은 흰 꽃이 핍니다. 옛사람들은 이팝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그해 쌀농사의 풍년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은현리에는 이팝나무가 없었습니다. 해서 어린 묘목을 구입해 심었는데 5년이 지나자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푸짐한 꽃을 보니 윤기 자르르 흐르는 고봉쌀밥 '한 그릇'(제 어머니 표현입니다)을 받은 것처럼 배가





## 은현리 풍경에서 詩를 읽다

부릅니다. 부른 배가 여러 날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릿고개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래도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겪었던 배고픈 경험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릿고개를 지났지만 여전히 가난했던 제 유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픈 날, 고모님은 시골마을에서 가까운 신전리 이팝나무를 보여주었습니다. 1971년 9월에 천연기념물 제 234호로 지정된 이팝나무입니다. 10m가 넘는 이팝나무에 피는 그 하얀 쌀밥들이라니! 은현리에서도 멀지 않아 자주 찾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의 도시에서도 멀지 않다면 꽃이 지기 전에 한 번 다녀오시길 권합니다. 갔다가 휙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 나무와 대화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곧 꽃이 질 것입니다.

먹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 누군가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림의 떡'은 침만 삼킬 뿐, 이팝나무는 배부른 꿈을 꾸게 해서 좋았습니다. 꽃이 좋으니 올해는 풍년이 들것이고, 풍년이 들면 우리 식구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 어린 저는 그 꿈이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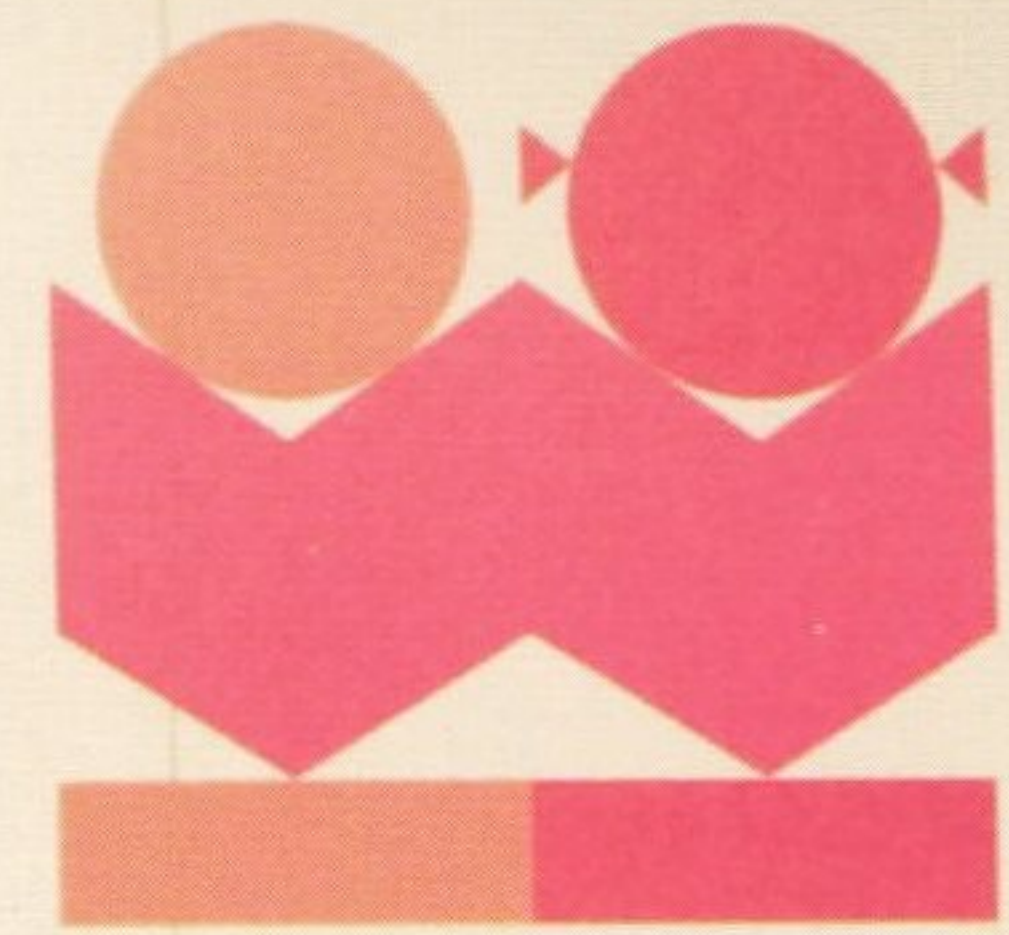
올해는 흰 꽃이 좋습니다. 조팝나무 흰 꽃도 좋았고 아카시아 흰 꽃도 좋고 이팝나무 흰 꽃도 좋습니다. 그 사이에 숨어 살짝 보랏빛 등불을 밝히는 오동나무 꽃도 좋습니다.

꽃을 필 때도 좋고 질 때도 좋습니다. 이팝 꽃이 질 무렵 자세히 살펴보니 낱알의 꽃이 '쌀국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것들이 쌀국수라면, 베트남 식 쌀국수가 아닌 청국장 된장을 구수하게 끓여 쌀국수들을 삶아 비벼 훌훌 말아먹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무를 모르고 있습니다. 나무가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를 강의하는 제 제자들에게, 시를 쓰기 전에 나무이름 꽃 이름부터 많이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무는 친구입니다. 일년에 한 번 꽃을 피우며 찾아오는 자연의 친구입니다. 친구가 많아야 시를 잘 쓸 수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꽃을 들고 오는 친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주 껴안아주는 것과 환하게 웃어주는 일입니다. 치-즈 하며 같이 사진 한 장 남기면 더 좋을 것입니다. 내가 심어놓은 이팝나무가 먼 뒷날 누군가에게 '배부른 희망'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 BOLOGNA CHILDREN'S BOOK FAIR

The *rights* place for children's content  
Bologna 2010  
from Tuesday 23rd to Friday 26th March

## 이야기의 도시 볼로냐

이승주 \_ 문화기획자

내동생 곱슬머리 ... 개구쟁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개~라는 아주 친숙한 동요가 있다. 이 노래에서 보듯 사랑받는 주요한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애칭들이 생겨나게 된다.

따뜻한 봄을 기대하는 어느날 '지식의 도시' '똥보들의 도시'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 등 다양한 별칭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볼로냐에 다녀왔다.

도시이름 앞에 다양한 형용사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볼로냐는 나에게 어떤 도시로 기억이 될까.

볼로냐는 교통의 중심지라는 말답게 이탈리아 중부의 도시로, 이탈리아 구석구석으로 가는 많은 노선들이 볼로냐에 집

중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보로네제 스파게티로 유명한 그 볼로네제 소스의 원산이 볼로냐임에서 알 수 있듯 맛있고 기름진 음식들이 많은 '똥보들의 도시'이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볼로냐 대학은 서구에서 최초로 대학다운 대학으로서 모습을 드러낸 선구적인 학교이다. 예부터 볼로냐 대학은 법학으로 유명한 명망이 높은 학교이다. 유학원에서 이 곳으로의 유학은 권하지 않을 정도로 학부 과정을 졸업하려면 빨라도 10년 이상 전문가의 조언이 있을 정도로 엄격한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집합소이다.

따라서, 볼로냐에서 책과 만화, 혹은 학술적인 범위의 여러 전시회들이 많이 열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도 한다.





박람회장을 가득 메운 만국기로 세계 최대규모의 어린이책박람회 '볼로냐아동도서전' 규모를 알 수 있다.

이중 가장 큰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어린이 책 박람회인 'Bologna Children's Book Fair(볼로냐아동도서전)'이다. 나 또한 세계적 규모의 박람회를 찾고자 이 먼곳까지 방문하게 된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볼로냐아동도서전'은 세계 최대규모의 어린이 책 박람회로 해마다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리고 있다. 도서전에서는 볼로냐 라가치상<sup>1</sup>(Bologna Ragazzi Award)과 볼로냐 뉴미디어상<sup>2</sup>(Bologna New Media Prize)를 제정, 시상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어린이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상'의 수상작을 발표하기도 한다니, 명실상부 세계 아동문학계 최고의 축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비행기 티켓 구입부터 숙소 문제까지 얼마나 대단하길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약이 만만치 않았다.

만석비행기 속에 겨우겨우 실려 도착한 공항에서는 친숙한

말소리들이 들린다. 아, 이제 어떤 국제행사에서도 우리나라의 발빠른 움직임을 볼 수 있음은 아주 반가운 일이다. 흐뭇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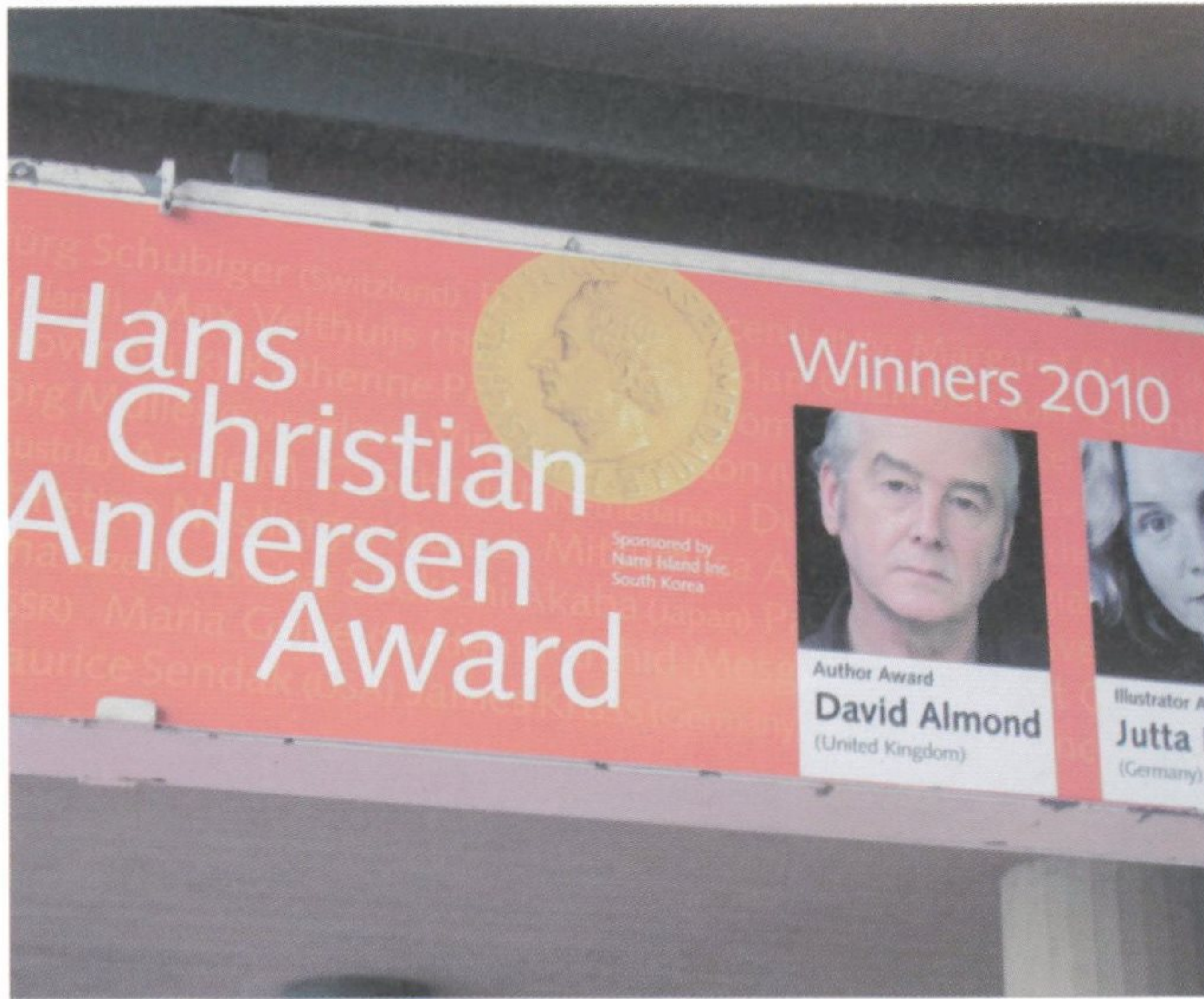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는 전년도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되는데 이어, 올해도 한국의 선전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김미혜 씨가 글을 쓰고 최미란 씨가 그림을 그린 '돌로 지은 절석굴암'(웅진주니어 펴냄)이 올해 '라가치상' 픽션 부문 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는 등 우리 아동문학계가 세계로 자리잡아가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안데르센상의 후원국이 대한민국의 남이섬이라니, 어깨가 으쓱해진다. 작은 국내기업이 국제 아동문학상의 공식스폰서라니 그 연결되어짐도 신기하다.

사실 남이섬은 2005년부터 '남이섬세계책나라축제'를 국제 규모로 매년 치뤘었고, 2008년 이후 비엔날레 형식으로 2년마다 한번씩 진행하고 있다. 마침 올해 2010년 제 5회 '남이섬세계책나라축제 - 평화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그 기대

1 볼로냐 라가치상(Bologna Ragazzi Award) : 세계 최대 규모인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Bologna Children's Book Fair)에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출간된 어린이책 가운데 각 분야의 최고 아동서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상이다.

2 볼로냐 뉴미디어상(Bologna New Media Prize) : 1997년부터 시행된 볼로냐 뉴미디어상은 어린이용 소프트웨어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책과 멀티미디어의 건강한 조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Children's Software Revue사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안데르센상 수상자 발표 기자회견장



이 곳은 세계곳곳에서 모인 출판사, 일러스트레이터 등이 자신의 이야기를 홍보하는 홍보판. 다들 바쁘게 홍보하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정신이 없다.

또한 크다.

한국전쟁 60주년이기도 한 올해의 제 5회 남이섬세계책나라축제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24개국의 국내외 전문가들로 '세계책나라축제국제위원회'를 구성, '평화이야기 (Peace Story)'를 주제로 22개국의 작가와 화가들이 공동으로 '평화 그림책'을 출판할 예정이다.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5일간, 평화를 주제로 한 그림책을 통해 세계 모든 이들이 국가와 민족, 인종과 종교를 넘어 마음속에 따뜻한 평화의 세계를 키우기 위해 한국의 서울과 남이섬에 모여 평화로운 소통의 시간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아동문학계의 인사들을 한자리에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값진 문화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다. 어깨가 무거워지지만 이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생각에 설렘이 크다.

다시 볼로냐 박람회장. 볼로냐아동도서전은 각국의 부스 또한 재미있다. 책이 날아 다니고, 책으로 문을 만들고 다양한 표현으로 책이 나에게 다가온다.

어떤 이는 이 축제를 통해 세계로 뻗는 작가의 꿈을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의 꿈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또 하나, 이번 여행길에 빼놓을 수 없고, 사실은 가장 궁금





볼로냐아동도서전은 날아다니는 책, 책으로 만든 문 등 개성넘치는 각국의 부스들도 볼거리다.

했던 그 볼로네제 스파게티를 원산지에서 맛보기!

어디로 가야할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 영어로 질문을 하면 이탈리아어로 너무나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그림으로 그리고 손짓을 따라 눈짓을 따라 찾아찾아 간 곳. 풍보 할아버지들이 딱 한마디 하신다. booking? Or not booking? 자리도 많아보이는데 왜 물어볼까 하면서. Not booking. 이라고 대답해주었더니 한시간넘게 기다리란다. 화려한 레스토랑도 아닌데 오기의 발동으로 일단 예약을 하고 거리로 나왔다.

오래된 석조 건물들과 아케이드들이 눈이 띈다. ‘아... 유럽이구나’를 느낀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젖은 돌냄새들을 맡으며 산책을 하다보니 어느새 드디어 스파게티를 맛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아, 설렘으로 한술 뜬 치즈와 볼로네제소스가 잘 어우러진 볼로네제라자냐. 글을 쓰는 순간에도 군침이 돈다. 이곳은 풍보들의 도시가 아니다. 맛을 즐길 줄 아는 아름다운 미각의 도시이다.

이탈리아 볼로냐는 ‘지식의 도시’ ‘풍보의 도시’ 등의 별칭 외에 나에게서는 또하나의 별칭이 붙는다. ‘이야기의 도시’로, ‘아름다운 미각의 도시’로...

그렇게 이탈리아 볼로냐는 세계인을 유혹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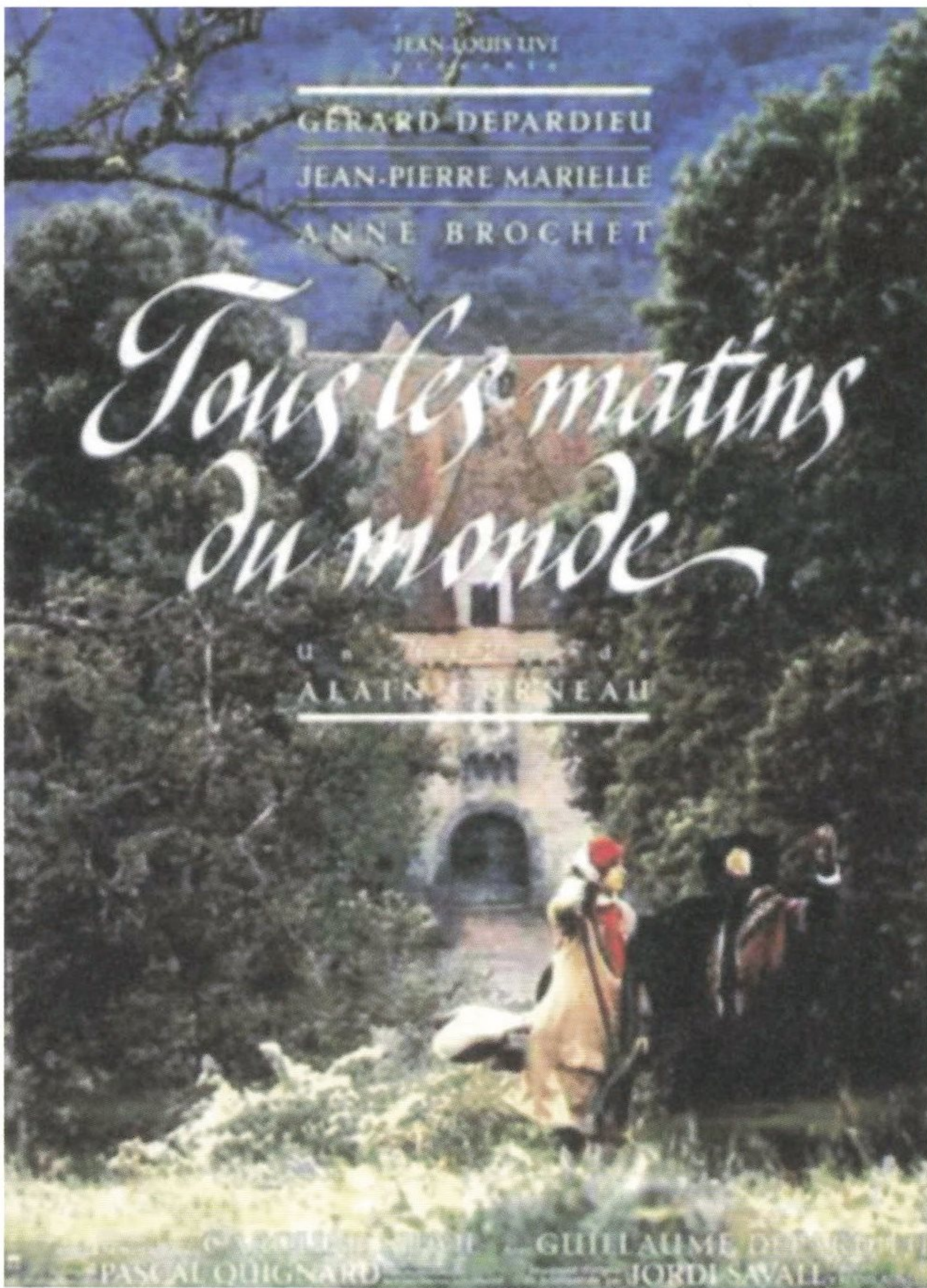




#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

*Tous Les Matins Du Monde*

이동신 \_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1992년 세자르 영화제 7개 부문을 수상한 '세상의 모든 아침'은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은 영상과 17세기 프랑스 음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예술영화다.

바로크 음악의 향기가 은은히 퍼지는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은 1991년에 개봉된 알랭 코르노 감독의 프랑스 영화다. 17세기를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코르노 감독은 우연히 소설가 파스칼 끼냐르를 만나게 된다. 음악애호가였던 끼냐르는 이미 바로크시대의 악기 '비올'에 대한 글을 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17세기말의 훌륭한 비올연주가이자 작곡가였던 '마랭 마레'와 그의 스승 '생트 콜롱브'에 관한 영화를 만들기로 의기투합을 하게 된다. 거기에 '생트 콜롱브'의 음악을 녹음한 적이 있는 '조르디 사발'이 사운드트랙 음악을 연주하여 이 영화는 탄생한다.

영화는 '세상의 모든 음악의 끝은 죽음이다'라는 주인공의 독백으로 시작된다. 궁정음악가로서 명성을 쌓은 마랭 마레가 노년에 이르러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과 스승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 이야기는 죽음을 앞둔 자만이 털어 놓을 수 있는 충격적이고도 슬픈 이야기다.

태양왕 루이 14세 시절 당시 비올의 거장 생트 콜롱브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두 딸과 함께 시골에서 은둔생활을 한다. 가끔 연주회를 열기도 하지만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고 순수하게 음악에만 전념한다. 이런 그에게 아버지처럼 가난한 구두수선공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음악을 선택한 열일곱 살의 청년 마랭 마레가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찾아온다. 콜롱브는 마레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여 쫓아내지만 큰 딸 마들렌은 젊은 마레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마레의 꿈꿨이는 마들렌의 애정을 이용하여 콜롱브의 음악



을 흠친 다음 마들린을 버리고 궁정악사로 성공하는 비정하고 세속적인 것이다. 결국 마레는 마들렌을 버리고 궁정악사로 성공하게 되지만 마들렌은 상심한 나머지 연인이 선물한 구두의 끈을 뽑아 목숨을 끊는다. 시간이 흐른 후 마레는 자신이 비록 신분상승을 이루었지만 왕과 귀족의 귀를 만족시키기 위한 달작지근한 음악만을 연주하는 기교연주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제야 스승의 음악과 삶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레, 마레와 썬뜨 꼴롱브는 실존인물들로 17세기 프랑스의 전설적인 비올(첼로의 전신) 연주가이며 작곡가이다. 썬뜨 꼴롱브는 비올을 위한 작품을 상당수 작곡했으며 원래 6현인 비올에 한 줄을 더하여 보다 풍부하고 무게감 있는 음색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레, 마레는 1656년 파리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음악공부를 시작했고 당대 최고의 비올 연주가로 명성을 날렸다. 스무살이 되던 해에 대음악가 뢰리의 궁정악단에서 연주하게 되었고 뢰리로부터 작곡기법을 배워 스물세 살에는 왕실 음악가로 인정받게 된다. 특히 5권의 비올 작품들이 유명하며 당시 이탈리아의 음악적 영향 아래 있었던 프랑스 음악을 독창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꼴롱브와 마레의 비올 이중주이다. 이 장면은 오랜 세월 동안 평행선만을 달리던 두 사람의 삶과 음악이 서로 화해하는 순간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음

악의 진정한 의미만을 좇아온 꼴롱브의 순수한 음악 앞에서 마레는 고개를 숙인다. 마레가 꼴롱브와의 연주를 통해 꼴롱브가 평생 추구해 온 음악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교감하는 장면은 숭고하고 아름답다.

영화는 음악과 죽음에 대한 각별한 관계를 의미 있게 보여준다.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죽음의 장면에는 비올의 연주장면이 더해진다. '세상의 모든 음악의 끝은 죽음이다'라는 마레의 독백은 음악이 죽음의 의미와 닿아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1992년 세자르 영화제 7개 부문을 수상한 '세상의 모든 아침'은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은 영상과 17세기 프랑스 음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예술영화다. 실외는 풍경화를, 실내는 정물화를 보는 듯하다. 이는 자연인으로서의 꼴롱브의 삶과 철학을 표현하기 위한 감독의 의도이다. 음악에 대한 내용답게 뢰리, 꼴롱브, 쿠프랭, 마레의 아름다운 바로크 음악이 영화 전편에 흘러넘친다. 아내와 딸을 향한 꼴롱브의 사랑과 마레를 향한 마들렌의 사랑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비올의 선율을 타고 우리의 감성을 적신다.

영화에 나오는 모든 비올의 연주는 세계적인 거장 '조르디 사발'이 맡았고 영화의 음악감독까지 맡아 바로크 음악의 진수를 보여준다. 100회 이상의 레코딩과 '디스크 프랑스 아카데미' 그랑프리, '샤를 꼬로 아카데미' 그랑프리 등을 수상한 사발의 고풍스러우면서도 우아한 음악은 사운드트랙으로 출판되어 영화의 감동을 더해준다.



100회 이상의 레코딩과 '디스크 프랑스 아카데미' 그랑프리, '샤를 꼬로 아카데미' 그랑프리 등을 수상한 사발의 고풍스러우면서도 우아한 음악은 사운드트랙으로 출판되어 영화의 감동을 더해준다.



# 쇼팽과 상드

노경원 \_ 피아니스트, 인제대학교 교수, 김해국제음악제 예술감독



조르주 상드의 초상(George Sand 1804-76)

슈만과 브람스 사이의 클라라 슈만(Clara Schumann)처럼 작곡가의 연인으로 많은 이야기를 뿌리고 있는 여인이 또한 쇼팽의 애인이었던 조르주 상드(George Sand, 1804-76)이다.

섬세하고 내성적이어서 여성스럽기까지 했던 쇼팽과 6살이나 연상이자 남성적인 상드와의 만남은 현대인에게도 흥미로운 일이니 당시 파리의 사교계에서는 얼마나 큰 스캔들이었을까? 당시 상드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인정한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 여성작가로 남편과의 불화 후 의사표현에도 서슴없는, 사랑 넘치는 자유인으로 아망디 오로르 뒤팽(Amandine Lucile Aurore Dudevant)이라는 남편 성의 본명을 버리고 상드란 필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1836년 가을, 쇼팽에게 결핵이 발병되자 마리아 보진스키와의 약혼은 파경에 이르게 되고 이를 위로하기 위해 리스트는 자신과 사랑에 빠져있던 다구(Marie d'Agoult) 백작부인의 살롱에서 상드를 소개해준다. 당시 상드는 사회주의적 성향의 여류작가이자 여성운동가로 남장에 앞담배를 피울 정도로 자유분방하고 남성 편력에 두 명의 아이까지 있어 처음 상드를 소개받은 쇼팽은 불쾌히 여겼다.

하지만 26살의 쇼팽은 그의 음악에 매료된 상드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란 짧은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들의 세기의 사랑은 쇼팽의 천재성에 영혼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물론 불 같은 짧은 연애 이후 오히려 상드는 쇼팽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라고 말한 어머니 또는 누이와도 같은 애인이었지만 말이다.

1838년 10월 말, 이 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각기 파리를 떠나 페르피냥에서 합류, 11월 초 상드의 두 아이와 함께 스페인 마요르카(Majorca) 섬으로 떠났다. 그러나 쇼팽의 건강 악화와 불륜관계로 인한 푸대접 때문에 프랑스 마르세이로 옮겨 요양한 후 노앙의 상드 저택으로 돌아와 평화로운 시간을 갖게된다.

여름, 가을은 노앙에서, 겨울과 봄은 파리 사교계에서 보내면서 생활에서 상드는 극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쇼팽을 돌보았다. 상드는 쇼팽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일상생활에도 관여할 필요가 없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쇼팽은 오직 창작에만 몰두, 그의 주옥 같은 대부분의 걸작들과 원숙한 작품들을 이 시기에 쏟아내게 된다.

때마침 1830년대 파리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결핵에 감염된 후 오히려 작품활동에 더욱 열정을 보여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폐결핵 환자는 오히려 ‘페로성정열(seps phathisica)’이라는 희망과 창조성이 흘러 넘치는 독특한 마음 상태를 지니게 된다고 생각했다. 특히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 폐결핵에 걸리면 창작능력이 고도로 향상된다고 생각해 오히려 은근히 예술가들은 이 병에 걸리기까지 바랬다니 아이러니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어쨌거나 1843년부터 쇼팽은 더욱 병약해지기 시작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점점 쇠약해져 갔다. 특히 1845년부터는 상드의 딸로 인해 쇼팽과 상드 둘 사이에 차츰 금이 가기 시작,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했다. 급기야 1847년 10년간 지속되었던 연인관계는 쇼팽이 상드가 반대했던 딸의 결혼을 지지해 줌으로써 둘 사이는 파경에 이르고 만다.

불행했던 그들의 사랑의 결말은 쇼팽을 파멸로 이끌었다. 상드와 헤어진 후 쇼팽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작품활동 또한 지지부진해졌다. 쇼팽은 그녀와 헤어진 후 2년 만에 사망에 이르고 만다.

‘음악과 문학의 만남’을 이루었던 이들의 사랑이 지속되었더라면 이 천재를 통해 더 많은 백미 같은 걸작들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쇼팽의 음악을 듣고 있는 조르주 상드



파리 몽소 공원에 있는 쇼팽과 상드의 동상



조르주 상드(Ferdinand Victor Eugène Delacroix, 1838)



## 스페인(Spain) II

# 까탈루냐, 바스크, 갈리시아

황윤기 \_ 음악 칼럼니스트,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마리아 델 마르 보넷

지난 호에서 소개한 것처럼 스페인은 뚜렷한 개성을 지닌 여러 지역이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며 존재해 왔다. 플라멩코의 발상지인 남부의 안달루시아(Andalucia)를 비롯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동북쪽의 까탈루냐(Cataluña), 북부의 바스크(Basque), 그리고 대서양을 접하고 있는 북서쪽의 갈리시아(Galicia)가 그 대표적인 지역들이다.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까탈루냐는 통일 스페인 이전 아라곤(Aragon) 왕국이 있던 지역으로 스스로를 스페인 사람이라 불리는 것조차 거부하면서 지중해 문화권의 일부로서 자신들만의 문화에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의 독재 시절을 보내는 동안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치를 당하고, 그들만의 언어인 까탈란어(Catalan)의 사용을 금지 당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왕성한 독립의 의지를 품어왔다. 프랑코 독재 시절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물결을 이루었던 저항 음악가들의 노래가 주목할 만하며, 그 중심인물들은 지금도 월드뮤직계에서 뛰어난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마리아 델 마르 보넷(Maria Del Mar Bonet), 유이스 야흐(Lluís Llach) 등은 지중해 문화권을 대표할 만한 아티스트로 지금도 존경받고 있다. 특히 마요르카 출신으로 '스페인의 목소리'라는 평가를 받는 빠코 이바녜스(Paco Ibañez)는 스페인 시인들의 작품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며 세계의 지성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전했던 음유시인이다.

바스크는 프랑스와 국경을 이루는 북부의 피레네 산맥과 접한 지역으로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던 그룹 모세다데스가 바로 이 지역 출신이기도 하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임을 자랑하는 바스크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

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철저히 지켜가면서 스페인과의 융화를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근대국가로서의 스페인이 탄생하기 이전까지 자치가 이루어졌던 곳이었는데, 스페인 내전을 거치는 동안 강제로 스페인에 편입되어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위한 투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굴곡진 역사 속에서 쌓인 한의 정서와 비가 자주 내리고 스산한 지역적 특성이 음악 속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초민 아르톨라(Txomin Artola), 아마이아 수비리아(Amaia Zubiria), 베니토 레르춘디(Benito Lertxundi) 등이 소박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바스크의 민속적인 향취를 담아내는 아티스트들로 손꼽힌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대서양을 향해 있는 북서쪽의 갈리시아 지방은 스페인 속의 켈트 문화권 지역이다. 세계의 여행자들에게 순례의 길로 손꼽히는 산티아고(Santiago)가 속한 지역이며, 사도 야콥의 유해가 발견되면서 세계 3대 성지로 알려져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스페인 다른 지역의 문화와 전혀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으며 언어 또한 그들만의 것을 사용한다. 켈트 문화권 고유의 음악 전통을 잇고 있지만,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의 음악들보다 좀 더 소박하고 따스한 정서를 담은 음악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가이타(Gaita)라는 백파이프는 갈리시아를 상징하는 악기로 사랑받고 있다. 세계적인 켈트 음악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까를로스 누녜스(Carlos Nuñez)가 이미 켈트 음악계의 젊은 거장으로 불릴만한 활동으로 갈리시아 음악을 대표하고 있으며, 루아르 나 루브레(Luar na Lubre)와 미야도이로(Milladoiro) 같은 그룹들도 목가적인 아름다움으로 그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다.

월드뮤직은 이번호로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세계각국의 월드뮤직을 소개해 주신 황윤기님께 감사드립니다.



## 부산생활은 멋진 모험

다이앤 스틸명크스 \_ 국제부인회 회원

미국 아이오와를 떠나 2009년 6월부터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한국, 특히 부산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부산생활은 멋진 모험이었습니다.

나는 남편과 한국에 온 후로 한국 생활을 궁금해 하는 아이오와 친구들에게 이메일로 한국에서의 경험, 한국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송회 때 이메일을 준 친구는 몇몇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이메일 주소 리스트가 점점 더 길어져 지금은 65명에게 정기적으로 이메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눈부신 햇살 아래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늘 시원한 미풍이 부는 이곳 날씨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정말 멋집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아파트에서 산다는 것은 미국 아이오와주의 옥수수 밭과는 천양지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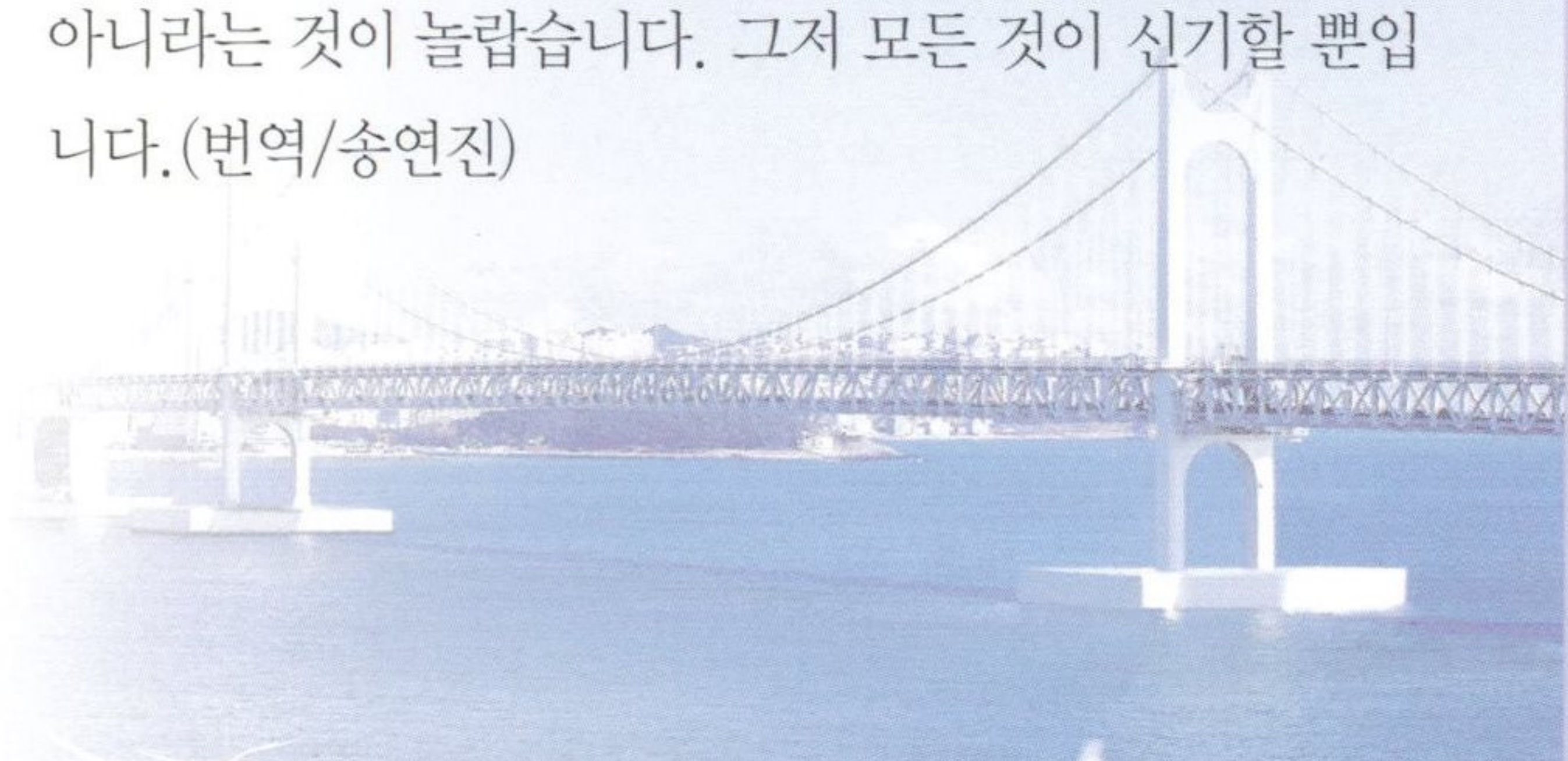
날씨와 바다 외 한국 생활에서 가장 좋은 점을 꼽는다면 역시 사람들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경탄할 만한지 새록새록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멋진 사람들이 모두 한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관대한 성품,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 헌신적인 태도, 이 모든 것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 아침 한 시간 정도 산책을 했습니다. 나는 산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굿 모닝> 하고 인사하는, 좀 우스꽝스럽게 생긴 미국인(우리의 모습이 어떤 인상을 주었을지 난 단지 상상해 볼 뿐)입니다. 우린 확실히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런 시골사람입니다. 고향에서는 아주 드물게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사

람들이 언제나 잘 차려 입고 있어 누구나 항상 멋지게 보입니다. 마치 나이키나 스피도의 광고나 어떤 운동복 카탈로그에서 방금 나온 것처럼, 자전거를 타는 소녀들이 <자전거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 유치원 아이들의 귀여운 유니폼, 회사원들의 작업복 등 여긴 유니폼의 나라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도 모두 어울리는 옷을 입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중에서 패션 감각이 없는 사람은 오직 남편 딘과 나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따뜻한 비데의 나라입니다. 방학에 잠시 왔던 딸은 이 따뜻한 변좌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비데 외에도 우리는 따뜻한 온돌을 좋아합니다. 따뜻할 뿐 아니라 건강에도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딱딱한 침대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방바닥에 깔 요에 자면서 살아온 대부분의 한국인에게는 그와 같은 느낌의 딱딱한 침대가 정상으로 느껴지겠지만 우리에게 그다지 편하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첨단기술입니다. 인터넷 연결 또한 굉장합니다. 공부벌레들만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신기할 뿐입니다. (번역/송연진)



이번호 부터 헬로우 부산, 원더풀 코리아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겪는 좌충우돌 부산생활이 펼쳐집니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59회 정기연주회

## BBB(Beethoven & Brahms in Busan) II

하순봉 \_ 작곡가

지난 5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9회 정기연주회가 'Beethoven & Brahms in Busan'란 타이틀로 개최되었다. 최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기획하고 있는 시리즈 제 2탄이다. 세 개의 B는 마치 독일의 바흐, 베토벤, 브람스를 가리키는 3B가 연상이 되지만 아쉽게 바흐는 없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 날 나란히 베토벤과 브람스의 4번 교향곡을 무대에 올렸다. 평소 베토벤의 음악정신을 승계하고자 했던 브람스이지만 이 날 베토벤과 브람스는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었다. 베토벤의 교향곡은 3, 5, 9번 등 홀수가 좀 비장한 것이 많고 짝수는 상대적으로 밝은 것이 많은데 이 4번도 역시 장조로 밝은 곡으로 때론 멘델스존의 느낌마저 드는 곡이다. 3번 영웅을 작곡한 후에 30대의 베토벤이 이런 밝고 세련된 곡을 썼다는 게 낯설 정도이지만 한편으론 심각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배려하는 인간적으로 한 단계 성숙했다는 그런 느낌마저 들게 하는 곡이다.

그에 반해 50대의 브람스가 마지막으로 작곡한 4번 교향곡은 참으로 쓸쓸하고 관조적이다. 1악장의 짧게 읊조리는 듯한 두 음으로 된 동기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다. 그러나 브람스는 마지막 악장에서 다시 그 특유의 찬란한 구원과 승리를 외치며 단순하게 조락과 체념으로만 끝내지는 않는다. 어쨌든 이 두 B의 느낌은 한마디로 밝은 베토벤과 쓸쓸한 브람스라고 할까?

이 날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에선 베토벤은 좀 더 밝고 가벼웠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브람스에선 정교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두 작곡가를 간명하게 잘 대비시켜 주었던 것 같다.

객원지휘자 유리엘 세갈은 음악이 유려하고 치우침이 없었다. 템포, 비팅 동작, 프레이징 등이 무리가 없고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간결하였다. 연주자를 편안하게 하면서, 자기의 생각도 부드럽게 얹어 놓는 지휘자였다.



그 외 이 날의 연주에서 특이했던 것은 모처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중극장에서 연주를 한 점이다. 대극장 보수 관계로 중극장을 택했겠지만 의외로 가까이서 단원들의 생생한 얼굴 표정을 보며 연주를 들으니 그 연주의 호흡이 피부로 느껴지는 색다른 즐거움이 있었다. 좁은 장소에서의 집중도나 진지함도 좋았던 것 같다. 그러나 대극장의 잔향과 음향에 익숙한 이들에게 전체 울림이 조금 거칠고 생경스럽게 들리는 부분도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마지막 한 가지 견해를 피력한다면 이 3B 시리즈는 올해 다섯 번 열리는데 아쉬운 점은 교향곡, 협주곡 위주의 작품이라는 점 외에는 색다른 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니셜 맞추기에만 그치는 레퍼토리가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재미있고 진솔하게 두 작곡가를 보여주는 그런 무대가 되었으면 싶다.

북독일의 항구도시 함부르크가 고향인 브람스, 부산과 연관되는 것은 없을까? 또 고집불통의 베토벤, 그러면서도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 간 두 사람,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다. 연주곡도 교향곡, 협주곡에만 한정하지 말고 가곡이나 소품을 편곡한다든지 해서 다양성을 보이면 어떨까? 훨씬 청중들의 이해도나 느낌이 좋을 것이다. 이번 3B 시리즈는 베토벤과 브람스라는 큰 상품을 너무 쉽게 포장해 버린 듯한 아이디어의 부재가 느껴져서 다소 아쉽다.



## 문화가 있는 골목

남인용 \_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부산문화방송에서 매주 월요일 밤 11시 5분에 방영되는 '포토에세이 골목'은 우리의 생활공간인 골목을 생생하게 담아냄으로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으로 만들 가치가 있는 내용물이라면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세태에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담은 '골목'은 더욱 정감이 가는 프로그램이다. 김홍희 사진작가의 활달한 진행과 안희성 아나운서의 차분한 나레이션은 우리의 골목을 아련한 추억의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

아쉽게도 이 프로그램은 '생활골목'을 다루고 있으며, '문화골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 프로그램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삶을 영위해가는 터전인 생활골목만 있을 뿐 함께 어울려 문화 생산물을 창조해내는 문화골목이 없기 때문이다. 모로코 페스의 구시가지인 메디나에 있는 골목길은 생활공간과 문화공간을 겸한다. 좁은 골목길에 시장, 염색 작업장, 전시장이 함께 있다. 원래 우리의 골목도 그랬었다. 생활골목으로 멋진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생산자와 문화소비자가 구분되지 않는 문화골목이었다.

얼마 전부터 부산에서도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가 오픈런으로 공연되고 있다. 비보이의 세계를 동경하던 발레리나가 비걸로 변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화골목의 이야기이다. 바르셀로나의 라발지역이 바로 그런 골목이 있는 곳이다. 라발지역은 구시가지에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을 건립하면서 문화거리가 형성되어 젊은이가 몰려드는 문화 중심지가 되었다. 그에 비하면 부산시립미술관 주변은 너무 쓸렁하다. 생활공간과

문화공간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곳이 될 수는 없었을까? 우리의 골목 중에서 문화생산과 문화소비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문화골목으로 키워나가야겠다.

부경대와 경성대 사이의 골목은 그런 가능성이 큰 곳이다.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유엔공원에 이르는 거리는 대학로로 이름 붙여져 있지만 나날이 술집만 늘어날 뿐 공연장 등 문화시설은 점점 위축되어 간다.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장점은 지역 문화 생산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주변에 여러 대학이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이미 문화적 토양은 마련되어 있다. 부산의 대학로가 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주점거리가 아닌 문화골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에서 보듯이 전시공간과 공연공간이 생활공간과 함께 할 때 생활 속의 문화가 가능하다. 대구시립미술관이 외곽지인 대구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지어지고, 비엔날레 전용관으로 기획되었던 부산시립미술관 서부산 분관이 을숙도에 지어지는 현실은 국립 현대미술관이 생활공간이 아닌 과천 서울대공원 옆에 자리했던 오류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생활공간과 유리된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우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책무가 방송 등 지역미디어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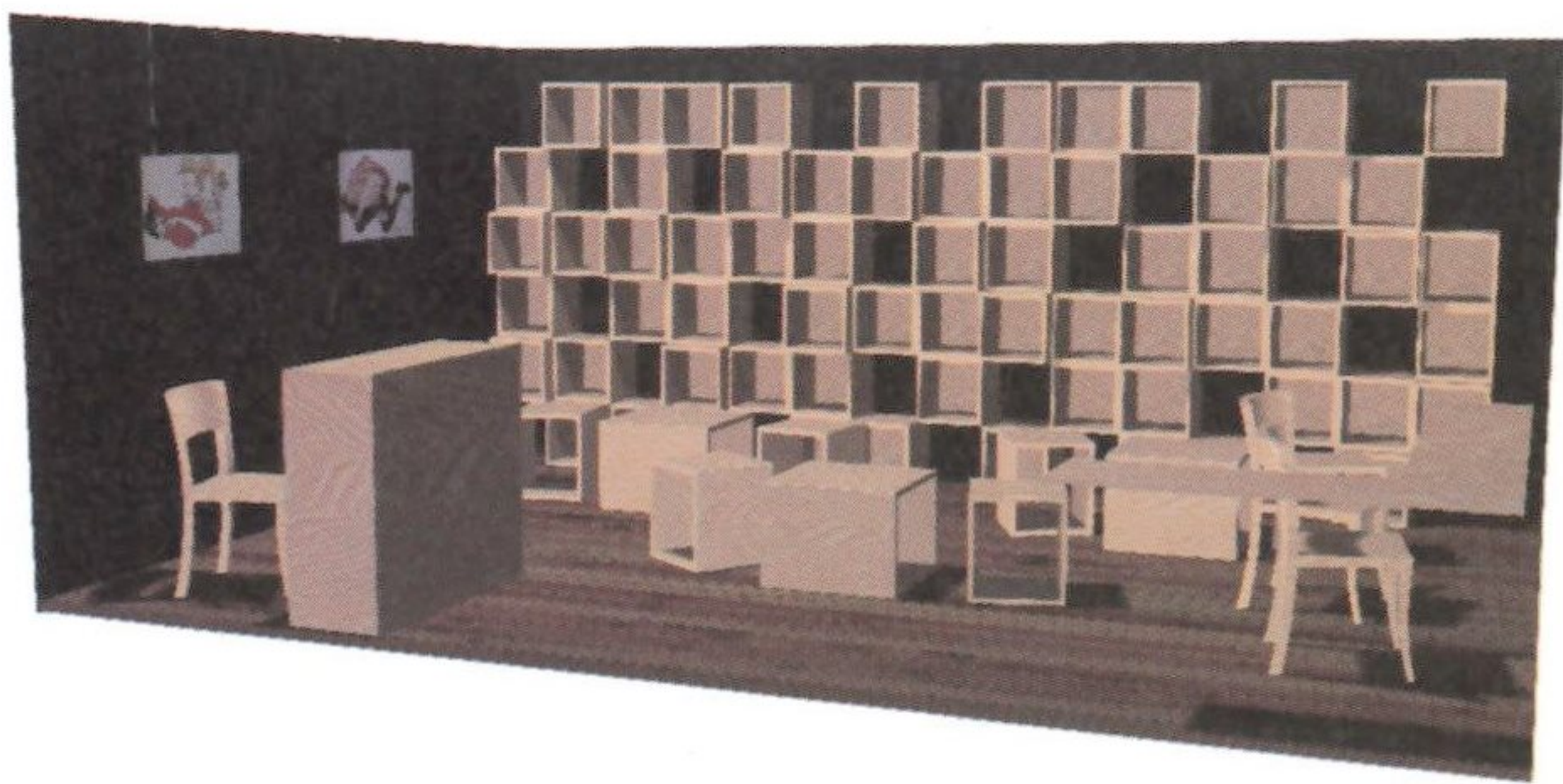
서울의 동대문 디자인플라자나 도쿄의 롯폰기 힐스 또는 미드 타운과 같은 거대 재개발공사만이 도시 발전의 능사가 아니다. 서울의 피맛길을 재개발한 건축물들은 전통있는 골목길을 없애버렸다. 부산은 그런 모습과는 다른 가능성을 갖고 있다. 곳곳의 독특한 문화를 생산할 문화골목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도가 지역 미디어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생활골목과 함께 문화골목이 활성화될 때 시민들은 생활 속의 문화를 누릴 수 있다.





덕천역 '아트폼 북카페'

## 문화향기 가득한 도시철도 문화예술정거장 아트폼 북카페



'아트폼 북카페'는 공간자체가 하나의 설치미술작품이 되는 신개념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신예작가 김정민 씨가 준비단계에서부터 참여해 '지역집합체'라는 작품으로 탄생시켰다.(사진은 덕천역 아트폼 북카페 조감도)

삭막하기만 하던 도시철도 역사가 문화향기 가득한 또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들어 20여곳이 넘는 역사에 공연장과 전시장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도시철도 역사 내에 예술과 접목시킨 색다른 북카페가 등장했다. 지난 5월 18일 지하철 덕천역에 개관한 '아트폼(Art-form) 북카페'가 바로 그곳.

도시철도 역사 내에 북카페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9년 지하철 1호선 양정역에 처음 북카페가 문을 연 후 이어 2호선 전포역에도 북카페가 들어섰다. 잘 알려지지 않은 두 곳의 북카페와는 달리 지난해 9월 시청역에 새롭게 문





덕천역에 들어선 '아트폼(Art-form) 북카페'. '아트폼(Art-form)'은 아트(art)와 플랫폼(Platform)의 합성어로, 도시철도 내 쉬어가는 예술정거장이다.



'아트폼(Art-form) 북카페'는 앞으로 독서토론회, 작은 음악회, 전시회,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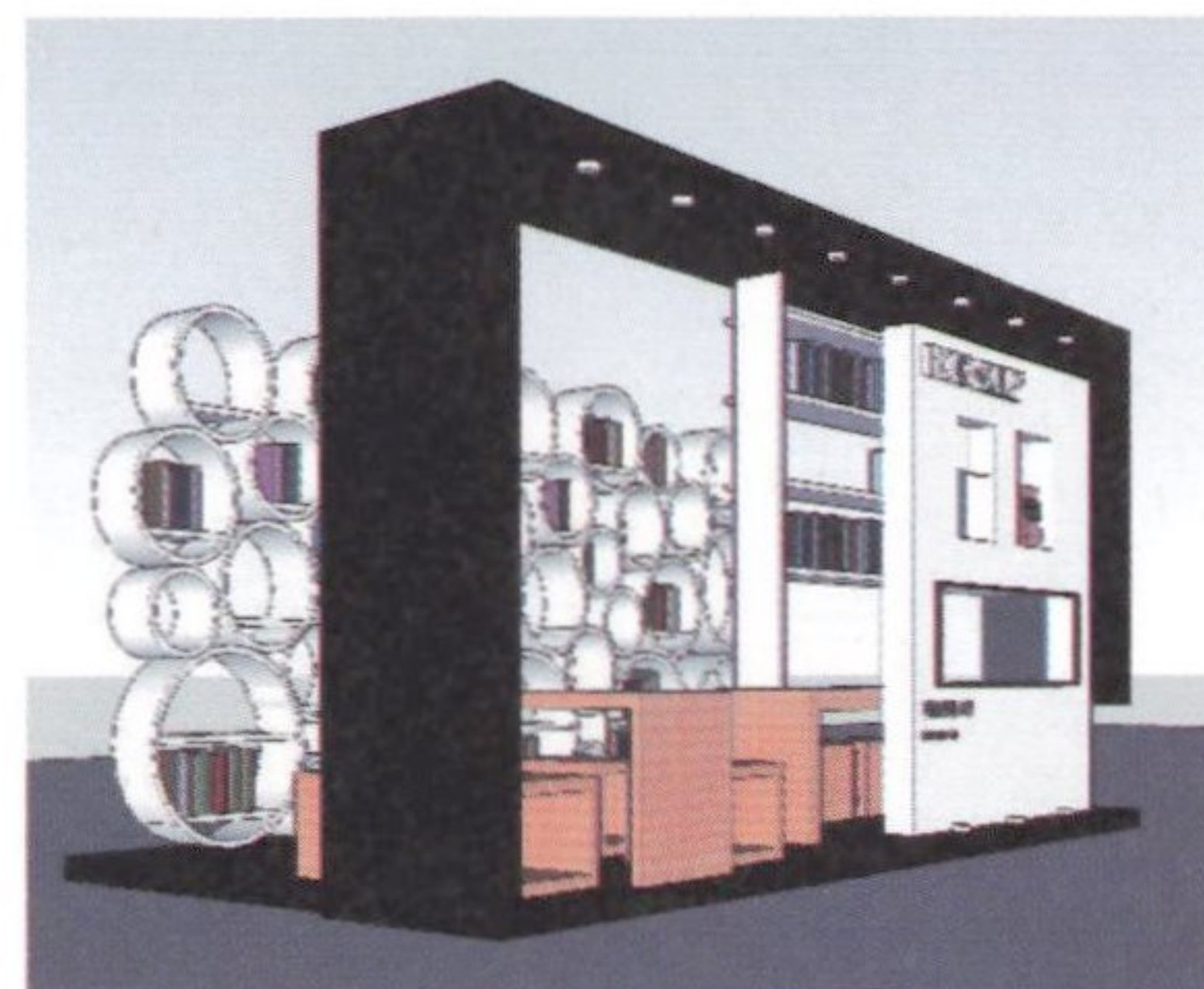
을 연 북카페는 하루 100여명이 찾고 있는 도심 속 명소이다. 이곳 시청역 북카페는 도서협찬을 받고 있는 영광도서 직원이 상근하고 있어 원하는 책의 주문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가운데 새롭게 문을 연 덕천역 북카페는 다른 북카페와는 달리 아예 '아트폼(Art-form) 북카페'라는 간판까지 내걸었다. '아트폼(Art-form)'은 아트(art)와 플랫폼(Platform)의 합성어. 그야말로 도시철도 내 쉬어가는 예술정거장인 셈이다. 기존의 도시철도 북카페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이름 그대로의 북카페에 그쳤다면 덕천역을 시작으로 앞으로 도시철도 곳곳에 들어서게 될 '아트폼 북카페'는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도시철도 역사 내 작은 문화공간이다.

'아트폼 북카페'가 신개념의 문화예술공간이 될 수 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공간 그 자체가 설치미술 작품이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예술인들이 북카페 구상에서부터 직접 참여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켰다. 덕천역 '아트폼 북카페'의 또 다른 이름은 신예작가 김정민 씨의 작품 '기억집합체'. 작가적 상상력이 담긴 책꽂이에 새겨진 나무 나이테는 기억과 흔적이 남겨진 집합체를 의미하며, 그 속에 담긴 책들은 시민들을 아름다운 기억 속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부쳐진 이름이다.

덕천역에 이어 6월경에 선보이게 될 연산동역 '아트폼 북카페'는 지금 현재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는 '오픈스페이스 배' 대표 서상호 씨가 맡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의 작품명은 바로 '비온 후'. 책이라는 매개가 바쁜 일상의 심포가 되어 비온 후처럼 맑고 개운한 기분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

는 작가의 바람이 담겨져 있다. 앞으로 2·3호선이 만나는 부산대역, 2호선 경성대역과 동의대 역에도 '아트폼 북카페'가 들어설 예정이다.



6월경 연산동역에 들어설 아트폼 북카페 조감도

총 23.37㎡ 규모의 덕천역 '아트폼 북카페'는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 내부가 환히 들여다 보인다. 한 쪽 벽면을 가득 채운 사각형 책꽂이가 바로 김정민 씨의 작품 '기억집합체'이다. 모두 해서 53개의 '기억집합체'에는 총 1,000여권의 책이 꽂혀져 있다. 책꽂이가 없는 벽면 곳곳에는 풀꽃의 생명력을 화폭에 담은 김은곤 화백의 작품들도 걸려있어 마치 작은 갤러리에 들어온 듯한 기분도 난다. 아트폼 북카페는 앞으로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덕천역 '아트폼 북카페'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예술정거장'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에서 탈피해 정기적으로 독서토론회, 작은 음악회, 전시회, 작가와의 만남을 갖는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덕천역 '아트폼 북카페'의 장소는 부산교통공사가 무상 임대하고 설치비용은 부산시가 지원했다. 운영은 부산문화재단과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부경대학교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글, 사진/정복엽)



## 소박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은 평생학습마을 수채화반 풀색향기



봄빛 가득한 5월 첫날, 수채화그리기모임인 '풀색향기' 회원들의 생애 첫 전시회가 열리는 수영구 문화센터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뽑어내는 싱그러움 향기로 가득 차 있다. 이름만으로도 봄의 생기가 물씬 느껴지는 '풀색향기'는 민락푸르지오 아파트 평생학습마을이 5년 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수채화반 모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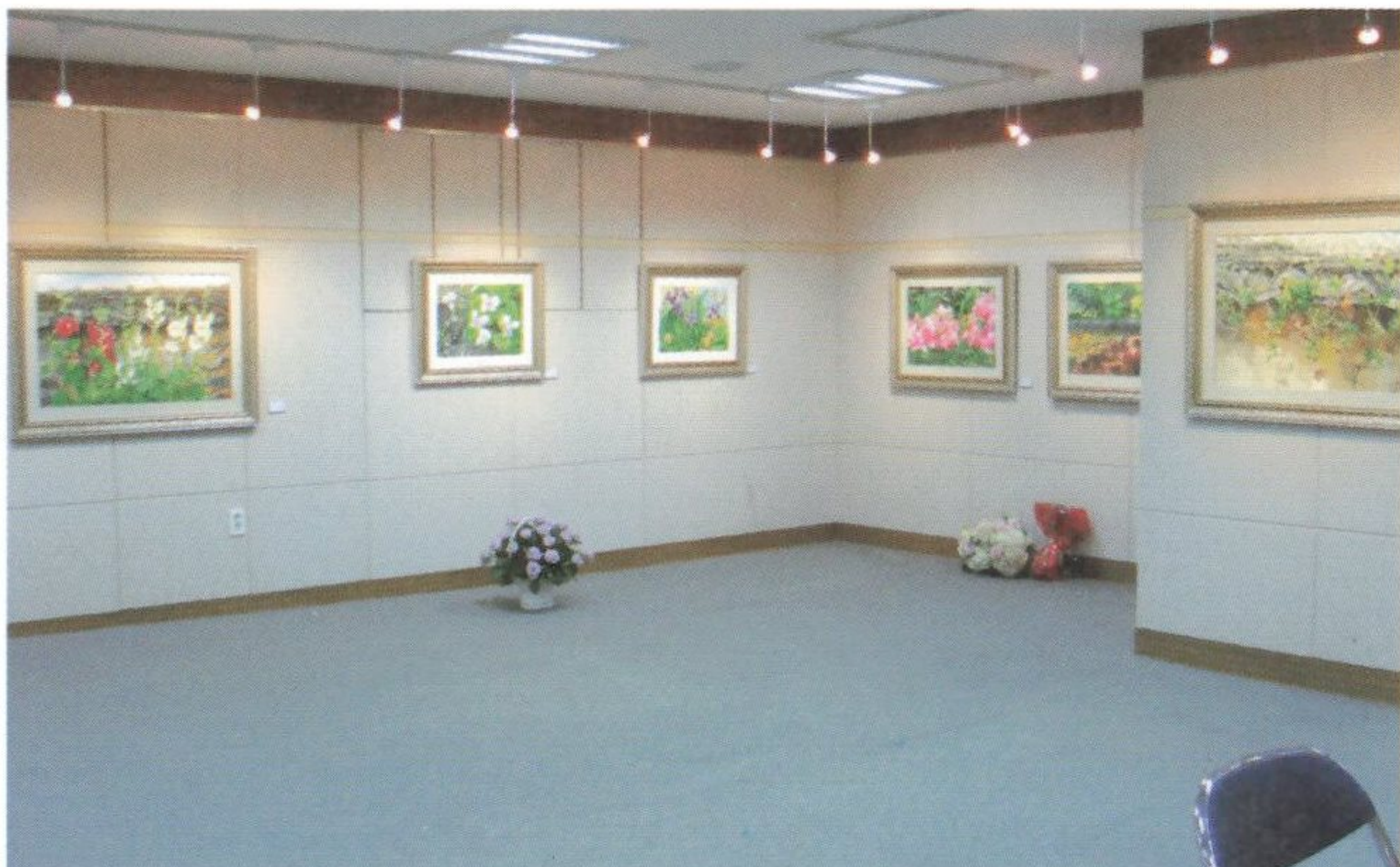
매주 한차례 모여 그림지도를 받던 회원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꾸려진 '풀색향기'는 이번 첫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전시회 타이틀로 부쳤던 '풀색향기'를 동호회 이름으로 정하고 첫 발을 내딛었다. 첫 출발을 알리는 설렘과 아마추어 작가로서의 풋풋함을 이름에 담은 '풀색향기'는 회원들이 그동안 화폭에 담

아왔던 소박한 자연의 아름다움과도 잘 어울린다.

현재 '풀색향기'에는 회장 정경철 씨를 비롯해 김계숙, 박계선, 손영호, 오영희, 이경희, 이윤희, 전문희, 정유영 등 모두 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 대부분이 평생학습마을 수채화반 수강생들이라 평생학습마을이 들어서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회원들도 점차 늘고 있다.

수채화 강습을 겸한 정기모임은 매주 화요일 한차례 열리고 있다. 판화가인 홍익중 씨가 3년 전부터 수채화반 모임을 맡아 회원들을 지도해오고 있다. 기초부터 하나하나 챙기는 홍익중 씨의 꼼꼼한 지도로 어느새 회원들의 실력이 부쩍 늘었다.





평생학습마을 수채화반 '폴색향기'의 첫 전시회가 지난 5월 1일 부터 6일까지 수영구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정기모임 외에도 수시로 모여서 작품활동을 갖고 있는 '폴색향기' 회원들은 봄, 가을에는 야외스케치도 함께 다니며 돈독한 정을 쌓아가고 있다.

현재 회장을 맡아 '폴색향기'를 이끌고 있는 정경철 씨. 5년 전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민락푸르지오 평생학습마을에 수채화반이 개설될 때부터 다녔던 가장 고참 회원이다. 젊었을 때 지냈던 그림에 대한 열정을 지금은 마음껏 화폭에 담을 수 있어 즐겁다는 그는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부족하나마 자신의 실력을 평가해주고 격려해주는 관람객들의 관심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여건만 된다면 '폴색향기' 이름으로 정기전을 계속 열어 나갈 계획이다.

이제 수채화반 3년차에 접어드는 회원 전문희 씨. "미술시간에 한번쯤은 그려본 경험이 있어 아무래도 수채화에 정이 더 간다"는 그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 새로 시작한 그림공부가 재미있기만 하다. 10년 뒤쯤 실력을 더 쌓아 공모전에도 응모해 보고 싶다는 전문희 씨는 요즘 환갑, 칠순을 기념하는 자신만의 개인전을 여는 행복한 꿈도 꾸어본다.

주부인 회원 김계숙 씨는 요즘 아이들에게 '그림그리는 엄마'로 통한다. 저녁마다 공부하는 아이들 옆에서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다. 예전에는 가족여행을 다니더라도 유명하다는 문화재만 찾아다녔다는 그는 요즘은 그림



'폴색향기'에는 회원들이 그동안 화폭에 담아왔던 소박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아마추어 작가로서의 풋풋함이 담겨져 있다.

소재가 되는 소박한 자연에 더욱 시선이 간다. 여행 중에도 자신들보다 길바닥의 돌이나 풀, 들꽃만 찍는 엄마를 보고 투덜뵈곤 하지만 사진 찍는 엄마를 기다려줄 줄 아는 아이들의 마음씀씀이가 고맙기만 하다.

"물과 물감, 종이만 있으면 언제나 그릴 수 있는 것이 수채화만의 매력"이라는 정유영 씨. 친구인 김계숙 씨의 회유에 넘어가 수채화반 활동을 시작했다는 그는 열심히 하는 만큼 실력이 느는 재미에 작품활동이 즐겁기만 하다. 회원들과의 쌓인 정이 무서워(?)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회원 오영희 씨. 늘지 않는 그림실력에 포기하려 했던 그를 잡아준 것도 회원들의 격려였다. 이제는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더욱 그림에 욕심을 내는, 열정 하나만큼은 프로작가이다.

이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지 넉달째에 접어든다는 초보회원 이윤희 씨. "폴색향기에 들어가면 실력이 부쩍 는다"는 지인의 소개에 무조건 '폴색향기'의 문을 두드렸다는 그는 "그림은 어렵고 돈 많이 든다는 편견만 버린다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며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새로운 회원들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 문의/정경철(010-6562-5960)



#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 제16회 멜로매니아 정기연주회

6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전문성악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마추어 남성성악 앙상블 멜로매니아의 제 16회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가곡/오라, 목련화,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가고파 대중가요/그대 그리고 나, My Way  
외국곡/O Sole mio, Funiculi-funicula, Che faro senza Euridice 등 수곡

### 출연

원요한, 김덕영, 최성협, 오거돈, 한성권, 민정식, 김성홍, 윤치연  
· 반주/곽윤희

■ 관람료 초대

■ 문의 멜로매니아(011-590-1115)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0회 정기연주회 및 2010 부산연주인시리즈 BBB III

6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이동신

최정윤

2010년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 프로젝트 BBB(Beethoven & Brahms in Busan) 세 번째 무대로 마련되는 제 460회 정기연주회.

불굴의 투지로 난관을 극복한 승리자이자 고전음악의 완성자인 베토벤 음악의 정수를 들려 줄 이번 무대는 부산연주인시리즈 2010년 연주자로 선발된 피아니스트 최정윤이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최정윤은 몽고메리 대학과 워싱턴 콘서바토리에 재직하면서 '한트리오'를 창단, 활동한 연주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4번 사장조 작품 58  
베토벤/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영웅' 작품 55  
· 지휘/이동신  
· 협연/최정윤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0 페퍼톤스

6월 4일 금요일 20:00 소극장



하늘아래 그 콘서트 열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된 페퍼톤스 부산공연.

2003년 KAIST 전산과 동기 신재평과 이장원이 '우울증을 위한 뉴테라피 2인조 밴드'라는 슬로건으로 창단한 페퍼톤스는 특유의 일렉트로니카 사운드에 다양한 실험적 장르를 녹여내고 있다.

메이저와 인디 사이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페퍼톤스는 2004년 3월, 첫 번째 EP 'A Preview'를 카바레사운드에서 발매한 후 2005년 첫 번째 정규앨범 'Colorful Express', 2008년 두 번째 정규앨범 'New Standard', 2009년 세 번째 정규앨범 'Sounds Good!'을 발매,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페퍼톤스는 2007년 제 4회 한국대중음악상(최우수 댄스 & 일렉트로닉) 부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 2010 제 6회 부산국제무용제 땅, 하늘, 바다의 축제 그 기상과 힘

6월 4일-8일 금-화요일 오후 7:00 중극장  
해운대 특설무대 등



세계 해양 춤 축제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산국제무용제 2010년 무대.

역대 최대 규모인 11개국 127팀의 779 작품이 펼쳐지는 2010년 부산국제무용제는 부산의 바다를 배경으로 세계 최고의 무용수가 아름다운 몸짓으로 장엄한 춤의 향연을 선보인다.

세계 각국 무용단의 초청공연으로 이루어진 공식행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 등이 함께 펼쳐진다.

■ 6월 7일(월) 오후 7:00 중극장

· AK(Arts Korea)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부산국제무용제 장학지원사업)

· AK(Arts Korea)21 축하공연-LOM Dance Company(하정오무용단) '중독'

2009년 'AK(Arts Korea)21 해외공연교류사업'에 선정된 하정오무용단은 BIDF를 대표하여 스페인의 Festival Danza Málaga 09., Nerja Danza 09.(2009. 10. 27 ~ 11. 02)에 초청받아 한국 무용단으로는 처음으로 단독 2회의 공연과 워크숍을 성공리에 치러내 극찬을 받았다.

· AK(Arts Korea)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 1차(비디오 & 서류심사), 2차(실기오디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김남진(댄스시어터 창), 김영지(부산발레연구회), 이광석(댄스컴퍼니 미디어스),



#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이지은(이지은무용단)의 무대.

■ 6월 8일(화) 오후 7:00 중극장  
BIDF 폐막공연/BIDF 영상파노라마  
BIDF 시상식

프랑스 Yann Lheureux 무용단의 안무가 Yann이 오디션을 거쳐 선발한 부산 무용수 8명이 5월 10일부터 진행한 한국과 프랑스 국가간 공동프로젝트 신작 무대를 시작으로 BIDF영상파노라마, AK(Arts Korea)21 장학지원사업의 취지에 맞춰 역경을 딛고 일어난 젊은 무용수에게 수여하는 '아름다운 젊은 예술인의 열정'상과 무용수, 예술인, 일반시민에게 존경받는 원로에게 수여하는 '아름다운 춤 인생(원로)'상 시상식을 마련, 세대와 세대를 이어 하나가 되는 융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 프로그램

- Yann Lheureux(프랑스) & BIDF프로젝트무용단 신작 공연
- BIDF영상파노라마
- '아름다운 젊은 예술인의 열정' 시상식 및 공연 '장미 없는 꽃집'
- AK(Art Korea)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 시상식
- '아름다운 춤 인생' 시상식
- 폐막축하공연 '한량무'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의 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 (555-2949)

## UKO(United Korean Orchestra) 정기연주회 제18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6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서경숙 김영환 박대용

부산에서 최초로 설립된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 United Korean Orchestra(U.K.O)가 들려주는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U.K.O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 울산, 창원, 진주, 마산, 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연주자 100여명이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U.K.O는 현재까지 약 60명의 어린이들에게 약 2억 3천만원의 공연수익금을 전달했다.

#### 프로그램

로시니/'세비야의 이발사' 서곡  
김연준/청산에 살리라  
비제/'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이수인/내 맘의 강물  
김동진/목련화  
쿠르티스/너는 왜 울지 않고 등 수곡

- 지휘/이동신
- 소프라노/서경숙
- 테너/김영환
- 바리톤/박대용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정희자(011-589-3111)

## 다이나믹 스테이지 영혼의 울림 제 28회 전국연극제

6월 11일(금)-6월30일(수) 중극장, 소극장  
야외광장

전국연극인들의 최고의 연극축제인 전국연극제가 6월 11일부터 3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내 소극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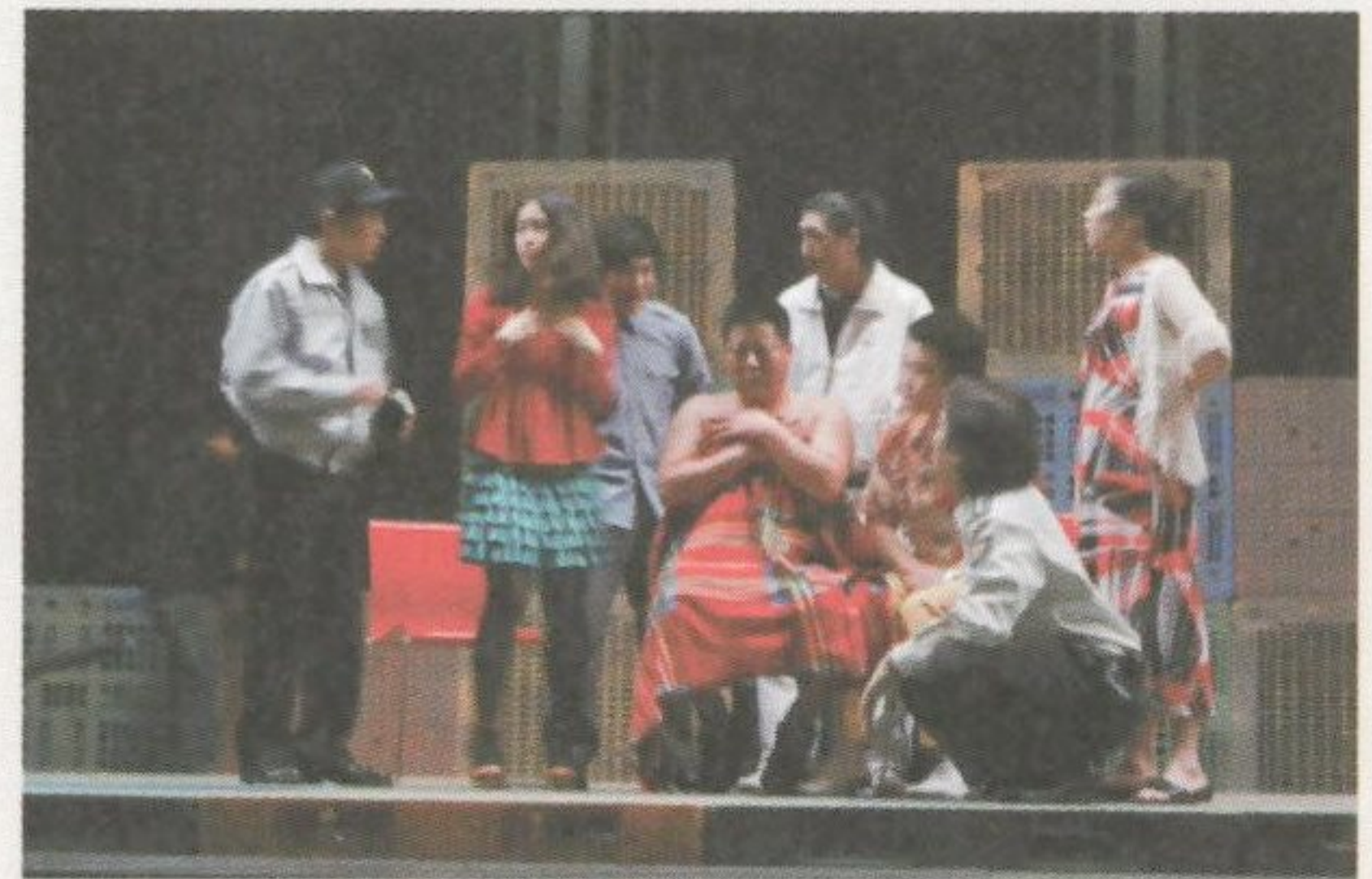
1983년 부산에서 제 1회 연극제의 막을 올린 전국연극제는 그동안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개최, 우리나라 최고의 연극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부산 무대는 1997년 제 15회 전국연극제개최에 이어 세 번째 연극제이다.

올해는 개막 초청공연 '창작뮤지컬 이수신'(연희단 거리패)을 시작으로 해외 초청공연 '까드릴 마누라 바꾸기'(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 '헤다가블러'(러시아 하바롭스크 청년문화예술극장)와 지역 예선을 거친 15개 시도 대표팀들의 경연 참가작, 37개 팀이 출연하는 소극장페스티벌, 전통연희페스티벌, 야외극페스티벌, 전국 시민연극제

및 시민 참여 행사, 퓨전페스티벌, 아트마켓 등으로 구성된 프린지 페스티벌로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 경연참가작

■ 강원도 극단 굴렁쇠 '선착장에서'  
6월 14일 월요일 오후 4:00, 7:30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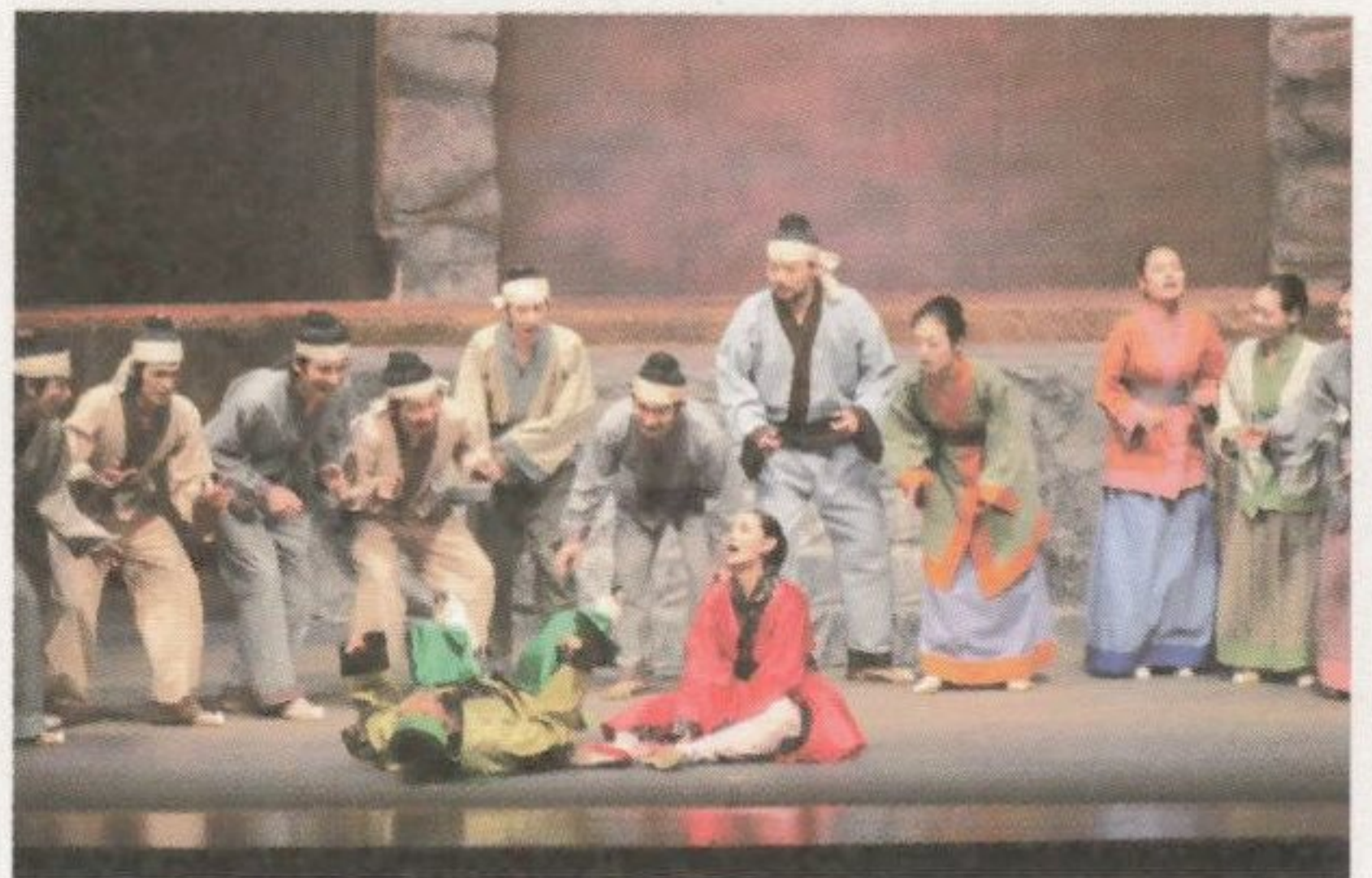
속초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원도 대표극단 굴렁쇠의 경연 참가작 '선착장에서'.

'선착장에서'는 태풍이 일어 강한 바람 때문에 배가 끊겨버린 섬 울릉도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비바람으로 인해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배가 끊겨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섬에서 사람들은 선착장을 바라보며 육지에서 배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무료하게 보내던 중 물에 자신을 물어달라는 의미심장한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마을 처녀가 자살하면서 마을에 많은 혼란이 일어난다.

- 원작/박근형
- 연출/변유정
- 출연/김귀선, 황헌중, 남호섭, 권대혁, 이슬비, 석경환, 김일출, 홍부향, 김수진, 국철 외

■ 경기도 대표팀 극단 물외 '에비대왕'  
6월 16일 수요일 오후 4:00, 7:30 중극장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던 청동기 시대, 왕위를 잇기 위해 아들을 간절하게 원하던 에비대왕이 일곱째 딸(바리데기)을 강물에 띄워 버린다. 황천강의 뱃사공 할배와 할미가 바리데기를 발견하고 그녀를 키운다. 고조선의 전설을 소재로 한 에



#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비대왕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희랍비극의 모티프까지 교직한 다양한 이야기의 변용을 통해 개인의 욕망과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과 통찰을 보여준다.

- 원작/홍원기 · 연출/임성주
- 출연/임성주, 이현수, 이종길, 이성주, 백성식, 문석희, 황승현, 신여정, 김진수, 윤정섭, 김상환, 김미경, 이미지, 류민이 외

■ 울산광역시 대표팀 극단 물의 진화 '어머니'  
6월 18일 금요일 오후 4:00, 7:30 중극장



이윤택, 손숙 등 동시대 연극 명인들이 수차례 공연하며 호평을 이끌어 낸 화제작을 울산 극단 물의 진화가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다.

일제 식민지와 광복, 6.25 동란의 격동기를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파란만장했던 충격적 경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의 정서를 보여준다.

- 원작/이윤택 · 연출/고선평
- 출연/허은녕, 황병윤, 김영희, 김영삼, 이상우, 박정영, 김솔, 김새봄, 조장길, 홍성인, 조지연, 전소현, 이준걸 외

■ 충청북도 대표팀 극단 놀품 '破夢(파몽)'  
6월 20일 일요일 오후 4:00, 7:30 중극장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극단 놀품의 경연참가작 '파몽'.

공민왕과 신돈이 꿈꿨던 사랑과 변혁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한 이 작품은 사랑과 권력으로 얽히고 설킨 드라마틱한 줄거리, 30명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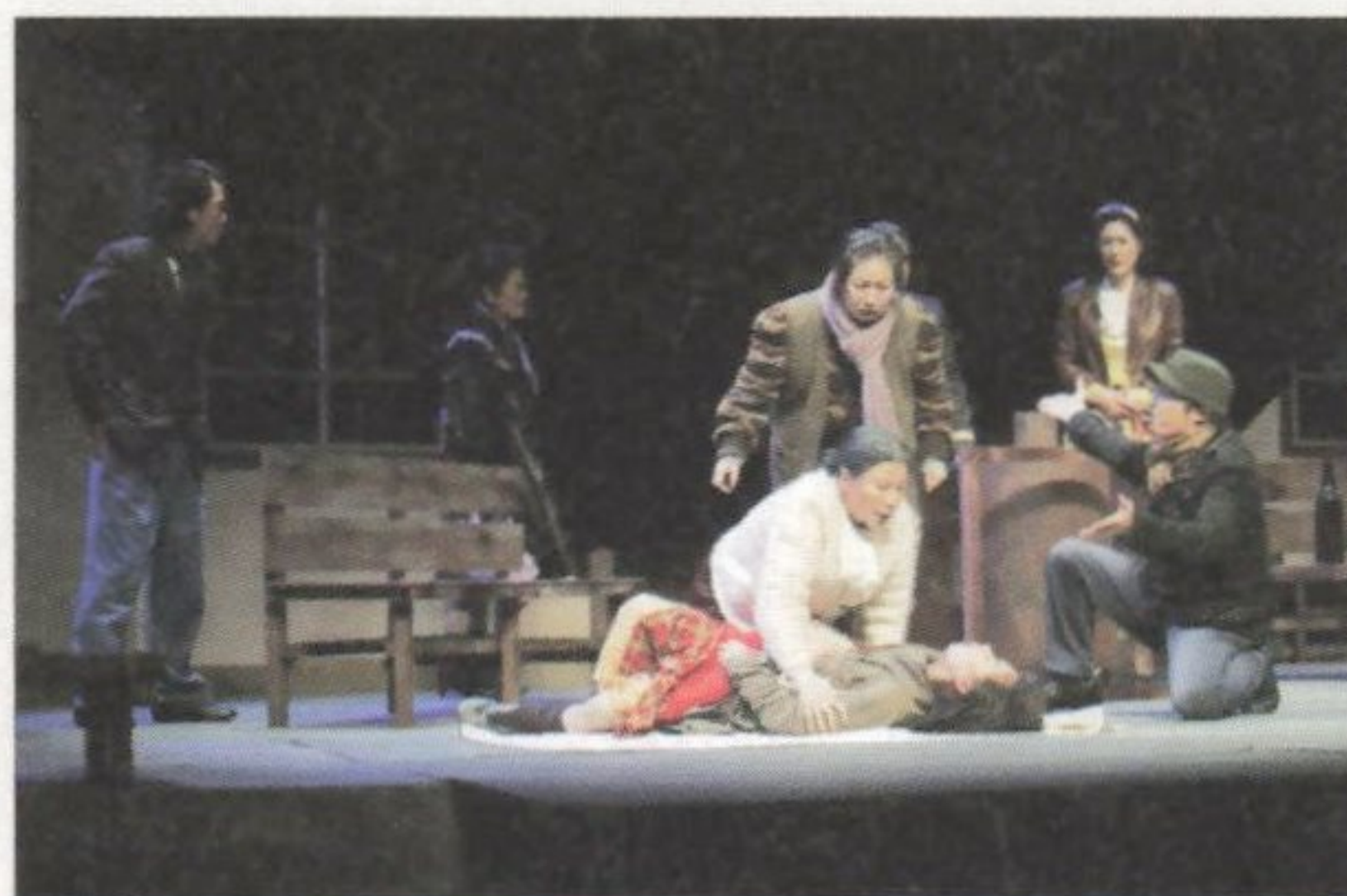
르는 출연진으로 충북연극제에서 화제를 모았다.

1365년, 유일한 사랑인 노국공주의 죽음으로 공민왕은 국사를 변조(신돈)에게 맡긴 채 불사에만 전념한다. 변조는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국공주와 닮은 시비 반야를 노국공주의 환생이라 속이고 공민왕은 국사에 손을 놓고 반야에게 점점 빠져들고 만다.

성군의 꿈이 깨어지는 공민왕은 물론 승려 신돈(변조)이 권문세가들을 배척하고 민심을 왕실로 이끌어 고려의 부흥을 꾀하려는 초기의 마음이 부패로 인해 망가지며 또 다른 파몽으로 이어진다.

- 원작/신봉승 · 연출/김상규
- 출연/안진상, 문길곤, 장은형, 이승부, 길창규, 이은희, 방재윤, 김영갑, 서복현, 신주향, 구성모, 정정진, 정아름, 김미희 외

■ 광주광역시 대표팀 극단 푸른연극마을 '사평역'  
6월 22일 화요일 오후 4:00, 7:30 중극장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연상하며 만들어진 작품 '사평역'은 자본의 가치가 모든 가치를 지배해버린 이 시대에 과연, 삶의 희망을 간직할 수는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희망을 지니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극단 대표 오성완이 직접 연출한 작품이다.

어두운 밤, 눈이 내리고 있는 사평역을 배경으로, 각자의 사연을 안고 고달픈 일상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환을 간이역의 공간에서 투영하여 삶의 기다림을 메시지로 던진다.

- 원작/곽재구 · 각색, 연출/오성완
- 출연/윤희철, 박규상, 박영진, 정은희, 이당금, 김안순, 김명대, 정일행, 조경란, 김현수, 이슬비, 박정기

■ 대구광역시 대표팀 극단 한울림 '울돌목'  
6월 24일 목요일 오후 4:00, 7:30 중극장  
임진왜란 당시 비연을 날렸던 백성들, 광대의



신분으로 활을 쓰고 격군이 되어 노를 저었던 백성들, 염초로 화약을 만들고, 나무로 거북선을 만들고 남해바다의 물길을 안내했던 어부들, 강강술래를 불렀던 아낙들, 백정, 기생, 한산섬에서 최후까지 피 흘린 이름 모를 백성들, 가장 낮은 곳에서 온 몸으로 임진왜란을 버텨낸 민초들의 한산섬을 연극으로 풀어냈다.

- 원작/박용하 · 연출/정철원
- 출연/천정락, 서정하, 최우정, 배경진, 정선현, 석현오, 김창민, 이지영 외

■ 제주특별자치도 대표팀 극단 가람 '땅 끝에서 먼 바다가 보인다'  
6월 26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중극장



한 허름한 뚝섬의 어느 목욕탕에서 일하고 있는 이발사 만배 아저씨와 개그맨의 꿈을 꾸는 때 밀이 상우, 목욕탕 구두닦이를 하고 있는 유망복싱 선수 준호, 목욕탕 사람들에게 밥을 배달하는 밥집 주인 진숙 등은 고달픈과 아픔을 가진 이들이 서로에게 희망을 찾으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아랫마을에 대중사우나가 들어서면서 이들의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뚝섬 목욕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양한 인물을 통해 코믹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 원작/김태수
- 연출/이상용
- 출연/이상용, 이창수, 이상곤, 고가영, 신연수, 홍창현, 이지, 홍영원, 한재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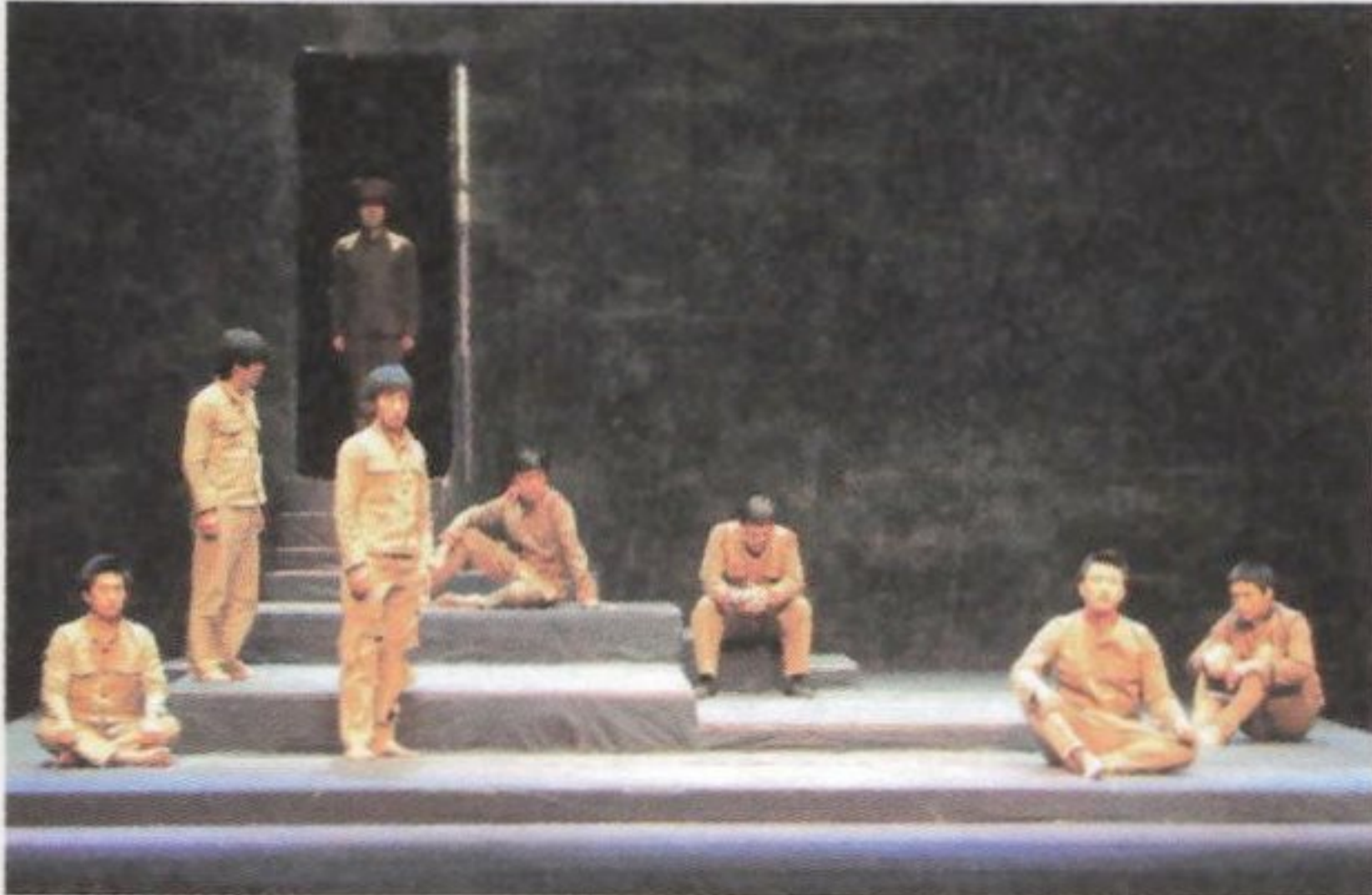


#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 부산광역시 대표팀 극단 누리에 '꿈꾸는 화석'  
6월 28일 월요일 오후 4:00, 7:30 중극장



조선인 전범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부산광역시 대표팀 극단 누리에 '꿈꾸는 화석'은 일제강점기에서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작품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다.

'과연 아픔과 설움만으로 식민지에서의 삶을 정의할 수 있을까?'란 도발적인 의문에서 시작된 이 작품은 결국 당시 우리 민족이 했던 '그' '어쩔 수 없었던 최선의 선택'이 일제 강점과 식민 지배가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였음을 고백한다.

- 원작/고연옥 · 연출/강성우
- 출연/배진만, 유재명, 백길성, 하현관, 강봉금, 김부성, 황유나, 이창환, 안재홍 외

소극장 페스티벌 참가작

■ 원주뮤지컬컴퍼니 뮤지컬 '프로포즈'  
6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소극장



노처녀와 노총각의 유쾌한 청혼 이야기를 그린 원주뮤지컬 컴퍼니의 살롱뮤지컬 '프로포즈'.

어릴 적 동네 소꿉 친구였던 광준과 순원은 꽃꽂이 전시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시간은 흘러간다. 용기를 낸 광준이 순원의 집으로 발걸음을 내밀지만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에는 두려움이 앞선다.

- 원작/안톤 체홉
- 각색, 연출/박창현
- 출연/김순원, 조광준, 최용석, 전찬명, 이유진

■ 극단 즐거운 사람들 '책키와 북키'  
6월 15일-16일 화-수요일 오전 10:20, 11:40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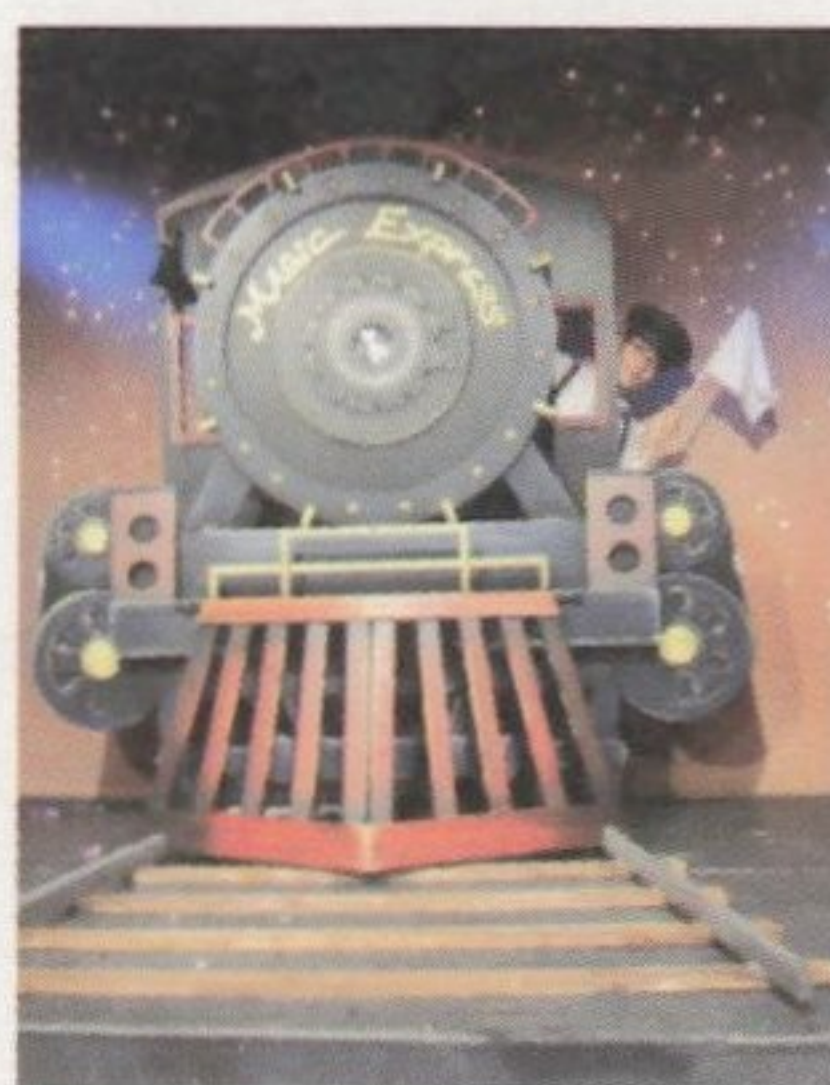


음악, 미술, 책 등이 금지된 세상, 언제나 '빹빹이 부대'가 감시하며 돌아다니고 있다. 우연히 책의 요정 '북키'를 깨우게 된 '책키', 책의 요정 '북키'는 '책키'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고 '책키'는 '북키'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북키'에게 들려주며 생활하게 된다.

'책키'와 '북키' 그리고 이야기꾼들이 함께 읽어 주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공연 내내 펼쳐진다.

- 작/고순덕 · 연출/천성국
- 출연/한상훈, 연준원, 이초롱, 박종미, 이슬
- ※만 3세이상 관람 가능

■ 극단 찰리 '찰리아저씨의 마술공장'  
6월 21일-22일 월-화요일 오전 10:20, 11:40  
소극장



꿈을 이루어주는 찰리아저씨의 꿈의 공장으로 가기위해 어린이들은 각자의 꿈을 적은 꿈종이를 손에 쥐고 역무원과 신나는 춤과 노래를 부르며 꿈의 역을 출발하는 마술열차에

탑승한다. 마술공장 공장장 찰리아저씨의 신비하고 환상적인 환영 마술공연, 관객들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코믹하고 재밌는 마임공장, 엘리베이터공장, 전통공장, 그리기공장, 꽃공장 등에서 좌충우돌 해프닝, 마술쇼 등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 작, 연출/이진영
- 출연/권유진, 김지애, 흥보람
- ※만 2세이상 관람 가능

■ 흥순아무용단 '풀이!!!'  
6월 23일-24일 수-목요일 8:00 소극장



내 딛고 미는 걸음, 부럽지 않을 만큼 소유하고 있는 달지 못하듯 하늘 안고 세상을 다 가지다 끝없다. 풀어라 한 발 한 손, 달는 그 순간.

· 안무/홍순아

- 출연/조현배, 이희림, 이연주, 이정민, 박리라, 신승은

■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튀스 '기억과 착각사이'  
6월 26일-27일 토요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가는 한사람의 이야기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만든 신체극.

누군가 데려다주고 남겨진 낯선 집에 들어오게 되는 그녀는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다른 공간이 너무 불편하고 지친 모습이다. 처음의 어색하고 답답했던 모습은 어디가고, 시간이 갈수록 차츰 그 방안에 있는 물건들을 발견하고 동감하기 시작한다.

- 작, 연출/최희
- 출연/최희, 김효정 외

전통연희 페스티벌 참가작

■ 인천 '서곶들노래'  
6월 14일 월요일 오후 6:00 야외광장



인천 서곶지역의 농민들이 옛날부터 노동을



#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해오면서 부르던 일노래 인천 '서곶들노래' 부산 공연. 지금은 도시화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으로 서곶들노래보존회의 노력으로 그 맥을 잇고 있다.

- 연출/김병훈
- 출연/양선우, 이영하, 배미희, 손영숙, 김미연, 한민자, 황계순, 김낙신, 이춘화, 정희순, 김명희 외

■ 류무용단 '2010 춤의 향기를 싣고'  
6월 16일 수요일 오후 6:00 야외광장



프로그램

- 설이타령(안무/전도현), 이매방류 입춤 사랑가(안무/류영수)
- 이매방류 대감놀이, 금파류 한량춤
- 이매방류 장검무,
- 이매방류 살풀이춤, 부채입춤(안무/류영수)
- 김백봉류 부채춤
- 연출/류영수
- 출연/전도현, 윤옥화, 김정은, 김정균, 김민정, 김초하, 박지원, 이정은, 김진영, 오화영, 흥한나, 김기승, 이채연, 고효영, 정수진, 권혜인

■ 중요무형문화재 제 15호 북청사자놀음  
6월 18일 금요일 오후 6:00 야외광장



함경남도 북청 지방에서 정월대보름에 행해지던 세시풍속으로, 총 2마당 9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사자놀음의 주목적은 연초에 잡귀를 쫓고 마을의 평안을 비는 데 있었으며 집집마다 거둔 전

곡(錢穀)은 마을의 공공사업과 사자놀음 비용 등에 써 왔다. 1950년 한국전쟁 뒤 월남한 연희자들에 의하여 현재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활달하고도 웅맹한 사자춤으로서 우리나라의 사자춤을 대표한다.

■ 중요무형문화재 제 2호 경기 양주별산대 놀이  
6월 20일 일요일 오후 6:00 야외광장



양주별산대놀이는 중부지방 탈춤을 대표하는 놀이로서 해서지역 탈춤과 함께 한국 가면극 중 연극적인 볼거리가 풍부한 가면극이다. 놀이는 전체 8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제 2과장 움중 춤, 제 5과장 3경 애사당 법고놀이, 제 7과장 1경 의막사령놀이, 제 7과장 2경 포도부장 놀이를 공연한다.

■ 중요무형문화재 제 43호 수영아류  
6월 22일 화요일 오후 6:00 야외광장



수영아류는 길놀이와 군무가 끝나고 놀이마당의 군중들이 장기자랑으로 3~4시간쯤 놀고 난 뒤 보름달이 환히 비출 무렵 수양반의 등장과 함께 탈놀이가 시작된다. 탈놀이는 4개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지도교사/곽윤희, 서봉천(수영초등학교)
- 연희지도/김성률, 김채우(수영민속보존회)
- 출연/말뚝이 황수현, 수양반 황정연, 차양반 장종찬, 셋째양반 권경욱, 넷째양반 김희승, 증가 최용훈, 영노 신태영, 영감 박찬우, 할미 서영찬, 태사 양승빈, 제대각시 이윤주, 기수 이준명, 일단대 김준서 외

■ 중요무형문화재 제 7호 경남 고성오광대  
6월 24일 목요일 오후 6:00 야외광장

고성 오광대는 고성지방에서 전승되는 탈놀이이다. 이 놀이는 경상도 초계 밤마리 장터 대광대패의 탈놀이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본래는 정월 대보름 축제에 놀았으나 나중에는 봄, 가을에 노는 것으로 오락화되었다. 전체 5과장으로 구성된 고성 오광대는 춤과 재담, 소리와 몸짓으로 이어어나가는 데 특히 덧배기 춤이 돋보인다.

- 출연/이윤순, 이윤석, 허종원, 최금용, 이재훈, 이도열, 이호원, 정채승, 이영상, 이태영, 전광열, 하현갑, 김창근, 황종욱, 남진도, 하만호, 김재명, 고석진, 김동수 외
- 공연내용/제 1과장 문동북춤, 제 2과장 오광놀이, 제 3과장 비비과장, 제 4과장 승무과장, 제 5과장 제밀주과장, 상여놀이

■ 강릉 관노가면극  
6월 26일 토요일 오후 6:00 야외광장



강릉 관노가면극은 해마다 5월 1일 본제(本祭)부터 단오날까지 노는데 서낭당을 돌아다니며 그 앞에서 연희했다고 한다. 문헌으로는 광해군 때 허균이 쓴 강릉 산신제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뒤 300여 년 동안 전해지다가 일제강점기에 맥이 끊겼으나 1967년 강릉단오제가 중요무형문화재 제 13호로 지정되면서 지금도 연희된다.

- 강릉관노가면극의 등장인물은 양반광대 1인, 소매각시 1인, 시시딱딱이 2인, 장자마리 2인 및 악사이며 전체 5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 1과장 - 장자마리 개시
- 제 2과장 - 양반광대/소매각시 사랑



- 제 3과장 - 시시딱딱이 휘방
- 제 4과장 - 소매각시 자살소동
- 제 5과장 - 양반광대/소매각시 화해
- **중요무형문화재 제 18호 동래야류**  
6월 28일 월요일 오후 6:00 야외광장



동래야류는 영남형의 대표적인 탈춤으로 양반 계급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해학적인 재담과 몸짓으로 엮어지는 한국의 전통적인 연극양식이다.

1930년대에는 탈놀이에 앞서 행해지는 길놀이 행사에 수백명이 참여하는 앞놀이를 했고 연희 과정이 끝나고 나면 참석한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뒷놀이를 즐겼던 여흥의 자리도 마련되었다고 한다. 군무과장, 문둥이과장, 양반과장, 영노과장, 할미·영감과장으로 구성되어있다.

- 출연/감독, 고영란, 송승이, 제은화, 정지연, 하희진, 백현규, 이기완, 양유빈, 이제우, 이종하, 이현, 이창기, 한승현, 윤지선, 임희선, 김인하, 한주연, 김용수, 이경주, 이다혜, 이신호, 서혜빈, 유성훈 외

### 프린지 페스티벌 전국시민연극제 참가작

연극을 사랑하는 전국의 아마추어 연극인들을 위한 축제의 장. 전국 12개 아마추어 극단이 참가 열띤 경연을 펼친다.

### ■ 6월 17일 목요일 소극장

- 오후 4:00 부산 YTCA 청소년 연극 동호회 '나의 여름 방학'(작/공동·연출/조아람)
- 오후 5:00 부산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연극동아리 상리 연극동 '나무가 된 일쟁이'(작·연출/심인보)
- 오후 6:00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하늘꿈터...우리들 이야기'(작/윤대성·연출/장소정)
- 오후 7:00 거창문화원 실버청춘연극단 '어머니 울지 마세요'(작/미상·연출/장효진)

### ■ 6월 18일 금요일 소극장

- 오후 1:00 부산여성문화인권센터 극단 아지매 '희망편지'(작/공동·연출/이상우)
- 오후 2:00 부산실버벨노인복지관 실버연극단 공각지 '우째 이런일이'(작·연출/박동민)
- 오후 3:00 대전 대덕문화원 대덕실버극단 다솜바리 '흥부네 박도깨비던'(작·연출/이용운)

### ■ 6월 19일 토요일 소극장

- 오후 3:00 부산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춘향전'(작/공동·연출/박동민)
- 오후 4:00 밀양청소년극회 세우인 '까만곰인형'(작/카롤린 필립스·연출/김은민)
- 오후 5:00 부산 극단 알이랑 'Korean패밀리가 떴다'(작·연출/박보은)
- 오후 6:00 부산 2MORO '파도를 부수는 꿈'(작·연출/박보은)
- 오후 7:00 부산 HOW Performing Team '소나기'(작/황순원·연출/공동)

### ■ 6월 30일 수요일 오후 3:00 중극장, 야외광장 폐막 및 시상식, 폐막 축하공연

전국 연극제, 전국 시민연극제, 립 씽크&댄스 페스티벌 시상식 및 뮤지컬 갈라쇼로 20일간의 화려한 축제의 막을 내린다.

- **관람료** 균일 20,000원(개막작을 제외한 경연 참가작, 해외초청공연, 소극장 페스티벌 공연에 해당)  
\* 전통 연희페스티벌, 등 야외공연은 무료(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현장카드 제시 시 30% 할인, 전국연극제 전 공연 사랑티켓 적용)
- **예매처** 팝부산, 사랑티켓
- **문의** 전국연극제사무국(638-1935~7, www.28ktf.com)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1회 정기연주회 BBB IV

7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베토벤, 브람스와 만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0년 프로젝트 BBB 네 번째 무대. 협연자 없이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브람스 교향곡 중 가장 힘이 있고 웅장한 교향곡 3번과 베토벤의 초기 교향곡 2번으로 교향악의 정수를 들려준다.

BBB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슈테판 말체브는 독일 베를린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로 기셰터 극장의 수석감독, 슈베린의 메클렌부르크 국립극장의 음악감독을 역임하고, 2001년부터 노이브란덴부르크 필하모닉 수석지휘자로 재직 중이다.

타고난 음악성과 활력, 성실함이 지휘 속에 깃들여있는 말체브는 남독일 신문으로부터 '브란덴부르크의 새롭고 경이로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격찬을 받으며 클래식 음악 분야를 넘어선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  
브람스/교향곡 제 3번  
베토벤/교향곡 제 2번  
· 지휘/슈테판 말체브

### 프로그램

브람스/교향곡 제 3번  
베토벤/교향곡 제 2번

· 지휘/슈테판 말체브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 / 국제찬양신학대학원

### 음악목사과정 (M.Div.) 2학기 신입생 편입생 모집

- **전공** : 음악목회 찬양사역 음향영상 ■ **접수기간** : 2010년 6월14일~7월30일(인터넷접수 홈페이지참조)
- **특전** : 목사안수(여자목사안수가능) / 국내외 정상급 신학 음악 교수진 / 직장인도 입학



전경

연주홀

멀티미디어실

연습실

음향조정실

세미나실

###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

www.icseminary.org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70 세원빌딩 3층  
Tel. 02-747-0691



### 국제찬양신학대학원

www.glovil.org / email:glovil@paran.com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글로벌아트홀  
Tel. 051-505-5995



# MUSIC

##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1일 성기만 '正樂, 二絃正路'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해금주자로 있는 성기만의 정악 무대.

### 프로그램

평조희상 전바탕, 관악영산회상 전바탕

▶8일 摩慮무용단 공연

마려(摩慮)무용단이 출연, 동래한량춤, 입춤,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장고춤 등 우리전통춤을 선보인다.

▶15일 문금자의 12가사

중요무형문화제 제 41호 가사 이수자, 한국소년소녀정가단 단장으로 있는 문금자가 의욕적으로 준비한 12가사 전곡 무대.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12가사 중 황계사, 양양가, 매화가 전곡을 들려준다.

▶22일 노은아의 해금이야기

'사슴이 해금을 켜거늘'

국립국악원 지도위원, 국립국악고등학교 강사로 있는 거문고주자 홍선숙 독주회.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8:00 가톨릭센터 소극장

▶1일 Violin and Cello, Brilliant solo pieces Concert 'Tarantella'

바이올리니스트 장철근, 첼리스트 최영준, 피

아니스트 차유진이 함께하는 앙상블 무대.

### 프로그램

포퍼/타란텔라 사장조 작품 33

오펜바흐/자클린의 눈물 다단조 등 수곡

▶8일 김미현 피아노 독주회 '낭만음악의 밤'

동의대학교 및 동대학원, 러시아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음악원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미현이 들려주는 낭만음악의 밤.

### 프로그램

슈만/알레그로 작품 8

리스트/헝가리안랩소디 제 2번 등 수곡

▶15일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7

'리골레토'

성악가 장진규, 장은영, 김상호, 이미경, 권영기가 베르디의 비극 오페라 '리골레토'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22일 서숙지 피아노 독주회 'My Dream'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와 계명대학교 대학원, 러시아 글링카 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다수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서숙지 독주회.

### 프로그램

모차르트/환타지아 K.V. 475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 31번 작품 110 등 수곡

▶29일 지구가 전하는 편지 첫 번째

'바람의 속사임'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퓨전 오카리나 연주팀 아인앙상블과 현재 아인앙상블 대표로 있는 옥준이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 오카리나 앙상블을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10,000원(15일 공연은 균일 20,000원)

▪ 문의 가톨릭센터(441-3788)

##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일 동의남성앙상블 VOCE 콘서트

'애창곡의 밤Ⅲ'

동의대학교 성악전공자들로 결성된 동의남성앙상블 보체(VOCE)가 들려주는 애창곡의 밤.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최훈녀와 동의여성앙상블 아띠, 인코리아 심포니오케스트라 첼로수석 최영준이 특별출연한다.

· 지휘/함도관(동의대학교 교수)

· 해설/정두환(음악평론가)

▶9일 오현정 피아노 독주회

서울예고 재학중 도미, 피바디음대에서 학사, 이스트만음대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피아니스트 오현정 독주회.

▶16일 윤태준 바순 리사이틀 '로맨틱 바순의 밤'

추계예술대학교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링카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있는 바순리스트 윤태준 독주회.

### 프로그램

글링카/소나타

엘가/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 작품 62 등

· 피아노/이은정(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23일 톤인프리 브라스앙상블 페스티벌

1997년 톤인프리 금관5중주로 창단, 2006년 금관앙상블, 2009년 윈드오케스트라로 발전해 온 톤인프리 브라스앙상블이 들려주는 금관 페스티벌.

▶30일 카운터테너 김종영 독창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으로 활동 중인 카운터테너 김종영 독창회.

김종영은 현재 부산예고 1년에 재학 중이다.

· 피아노/강현아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 2010년 칸타빌레 남성앙상블 정기연주회

### 모차르트 3대 오페라 하이라이트 -돈쥬반니,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6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7년 정상급 남성성악가들로 결성된 칸타빌레 남성앙상블의 정기연주회.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오페라 돈쥬반니,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등 3편의 오페라를 스탠딩 갈라콘서트로 선보인다.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안상철(010-2400-5271)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일상설공연 끝림

매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 ▶ 3일 누드사운드유닛의 'Love Live'

'사랑'을 테마로 이야기와 노래가 함께하는 어쿠스틱 라이브 무대.

### ▶ 10일 흥노경의 아름다운 재즈-DREAM



보컬과 피아노, 색소폰, 드럼, 베이스로 들려주는 라이브 재즈무대.

### ▶ 17일 색소폰과 금관4중주의 만남

팝인라이프 빅밴드앙상블이 출연, 다양한 팝과 재즈를 정감있는 해설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

### ▶ 24일 몽크밴드 'We are One Live'

감각적이면서도 세련된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인디밴드 몽크가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데이드림의 스토리 콘서트

6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강당

드라마 '겨울연가' 삽입곡을 연주,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피아니스트 데이드림 콘서트.

- 관람료 균일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올인스문화사업부(070-7595-2033)

## 김미연 피아노 클래스 연주회

6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예중고, 브니엘예고에 재학중인 피아니스트 김미연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스 연주회.

- 연주/손기원, 박정연, 박슬기, 권윤정, 박송이, 조선주, 여현민, 유예지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미연(011-565-5167)

## 부산하모니합창단 제 7회 정기연주회 It's a Harmony

6월 5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3년 창단 후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 혼성합창단으로 자리잡은 부산하모니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르네상스 마드리갈 무반주합창에서 부터 영화 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 지휘/김강규 · 피아노/윤지영
- 특별출연/첼리스트 김판수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하모니합창단(610-1304)

## 부산클라리넷콰르텟 제15회 정기연주회 간사이 클라리넷 콰르텟과 함께 하는 Friendly Concert

6월 5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996년 우리나라 최초의 클라리넷 사중주단으로 창단된 부산클라리넷콰르텟 정기연주회.

1992년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간사이 지역 클라리넷 연주자들로 결성된 간사이 클라리넷콰르텟이 특별출연한다.

-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 문의 김태훈(010-7543-0883)

##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 ▶ 5일 프로그램

포구락,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 평조단소 독주 헌천수, 동래한량무 등

### ▶ 12일 프로그램

**창업 55주년**  
(1955년 2월 1일)

**문우당서점 지도센터**  
에서 연구 개발하여 획득한 세계지도  
발명특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음  
나온 세계지도입니다

**이 세계지도는 문우당서점  
에서만 판매하나, 서점, 문구점  
에서 판매를 원하시면 도매합니다**  
(소매가격 ₩7,000)

**전화 241-5555(대표)**

**전국최고의 종합지도센터!**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우당서점**  
필요할 서점사서실 방문이 보다는 마지못함  
전화주문: www.munbook.co.kr  
전화: 051) 241-5555(대)  
팩스: 051) 245-1187, 051) 243-2333  
부산광역시 동구 남포동 471-1

**각종일부안내**  
03) 해시도서  
기술논문서적  
국정교과서  
04) 경제경영양판,  
05) 서고, 컴퓨터 관리실  
06) 문학, 청소년, 만화, 여성도서

**문우당서점**  
필요할 서점사서실 방문이 보다는 마지못함  
전화주문: www.munbook.co.kr  
전화: 051) 241-5555(대)  
팩스: 051) 243-2333  
부산광역시 동구 남포동 471-1

**수입자유본 소·중·대형**  
15) 아동, 유아, 잡지, 도서문화상품권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Tel: 241-5555(대표)  
**245-2714(공연문의)**  
남포동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치탑 앞  
[미나리 건너편]

**각종 공연 예매처**  
CGV 10%적립,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할인판매처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수제천, 태평무, 가야금병창 '적벽가' 중 '화룡도', 진주교방굿거리, 태평소와 관현악 등

▶19일 프로그램

향발무, 25현가야금 4중주 '신관동별곡', 좌수 영어방놀이 '어부춤' '아낙춤', 부채춤, 판굿 등

▶26일 프로그램

승전무 중 '검무', 가곡 '태평가', 동래학춤, 해금독주 '어린왕자', 삼고무, 사물놀이 등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부산신포니에타 제 70회 정기연주회

6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인 부산신포니에타의 정기연주회.

각종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첼리스트 김유리, 피아니스트 김현재 자매가 협연자로 출연, 탄생 200주년을 맞은 쇼팽과 슈만의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아렌스키/차이코프스키 주제에 의한 변주곡 슈만/첼로협주곡

쇼팽/피아노협주곡 제 1번 등

· 지휘/백진현(동의대학교 교수)

▪ 관람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김영희(010-8519-0448)

## 국악그룹 아비오 轟[홍]에 빠지다

6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2007년 창단 후 전통음악에서부터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나온 젊

은 국악그룹 아비오의 무대.

육자백이, 산조합주, 진도씻김굿 등 아비오만의 색깔을 입힌 우리의 전통음악을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1,000원(전 좌석 현장구매)

▪ 문의 국악그룹 아비오(010-2525-4380)

## 김효영 생황 콘서트 환생

6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한국생활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김효영 생황 콘서트.

김효영은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로 있다.

프로그램

김성국/생황을 위한 풍류

박경훈/'사계' 중 1월 '흠날리는 눈꽃', 5월 '순수한 사랑', 7월 '꿈꾸는 바다' 등 수곡

· 사회/현경채

· 작곡, 피아노/박경훈

· 해금/황영자

· 타악/최성무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효영(010-8865-1341)

##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청소년 협주곡의 밤

6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영화음악, 재즈, 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중과 소통해온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가 청소년 유망주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협주곡의 밤.

프로그램

비탈리/사콘느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 3번 등 수곡

▪ 관람료 초대

▪ 문의 정희보(010-3881-3753)

## 임효진, 최민경 피아노 듀오콘서트

6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



부산대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임효진, 최민경의 듀오무대.

임효진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독일 쾰른국립음대를, 최민경은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음악원, 빈국립음대를 졸업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448  
차이코프스키/무용조곡 '호두까기 인형' 등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최민경(010-9496-2687)

##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양성원 첼로 독주회

6월 11일 금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지적이고 독창적인 해석과 연주로 세계 주요 언론과 청중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첼리스트 양성원 초청 독주회.

양성원은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다.

▪ 관람료 사전예약(주최측 문의)

▪ 문의 고은사진미술관(010-4781-5959)

## YMCA 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토요일콘서트

6월 12일(토), 26일(토) 오전 11: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12일 현악앙상블 '영화 속의 클래식'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라이언 킹' '플래툰' '호로비츠를 위하여' '파리넬리' '올드보이' 등 영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화속에 등장하는 클래식음악을 현악앙상블로 들려준다.

### ▶ 26일 타악앙상블 '타악기야 놀자'

교과서에 수록된 클래식명곡을 감상할 수 있는 타악앙상블 무대.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

## 정문정 피아노 독주회

6월 13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미국 루즈벨트대학교 석사과정, 드폴대학교 최고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정문정 독주회.

정문정은 루즈벨트대학교 콘체르토 콩쿠르, 전미 교수협의회(MTNA)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 있다.

프로그램

바흐/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리스트/페트라르카 소네토 제 104번 등

- 관람료 초대
- 문의 정문정(010-5797-9755)

## 제 5회 부산 사랑의 부부합창단 정기연주회

6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87년 대구에서 창단된 후 현재는 부산을 비롯해 전국 12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랑의



합창단 부산모임의 5번째 정기연주회. 우리 귀에 친숙한 가곡과 성가곡, 팝송 등을 들려준다.

- 지휘/김정일(고신대학교 교수)
- 피아노/최윤희(경성대학교 교수)
- 관람료 초대
- 문의 사랑의 부부합창단(010-2698-6706)

## 태교 브런치 콘서트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1: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연주로 열리는 태교 브런치 콘서트.

-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김병수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부산시립합창단 제 133회 정기연주회 필리핀 합창지휘자 안나 아발레다 피케로 초청연주회

6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21세기 합창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합창강국 필리핀의 대표적인 합창단 '마드리갈 싱어즈'의 합



창감독인 지휘자 안나 아발레다 피케로 초청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필리핀합창의 신세대 지휘자로 주목받고 있는 안나 아발레다 피케로는 부산국제합창제에서 2년 연속 Grand Prix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고전적인 합창곡에서부터 필리핀, 스페인, 인도네시아의 민요번안곡과 지휘자가 직접 편곡한 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2~3)

## 국립부산국악원 크루즈공연

6월 18일 금요일 오전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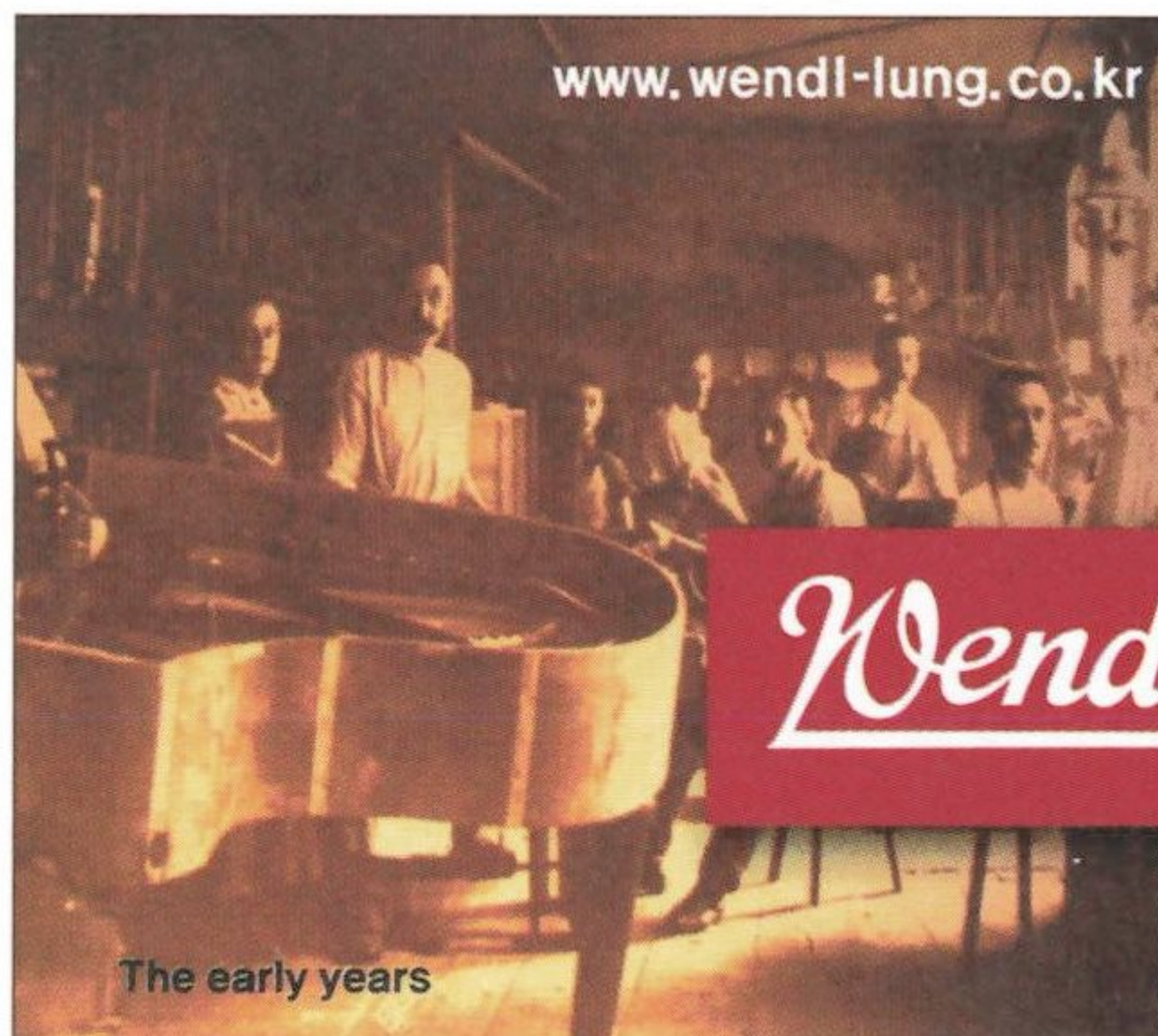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부산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 예술의 신명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는 국립부산국악원 크루즈공연.

### 프로그램

궁중음악 '수제천', 창작무용 '부채춤',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밀양백중놀이' 중 '오복춤' 등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박소영 귀국 플루트 독주회

6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프랑스 생모르 국립 음악원 superieur 과정 최연소 입학,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석 졸업한 박소영은 프랑스 U.F.A.M 콩쿠르 심사위원 만장일치 1등, 프랑스 Le Parnasse

콩쿠르 1등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피아노/유영욱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금강예술단 정기공연

6월 19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0년 이상태 단장을 중심으로 아마추어 국악연주인들로 결성된 금강예술단 정기공연.

농악, 사물놀이, 설장고춤, 장고춤, 진보북춤, 판굿 등 신명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 관람료 무료
- 문의 이상태(017-568-7143)

## 제 2회 S 스트링 오케스트라 콘서트

6월 19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재학생들과 동문 출신 연주자들로 구성된 S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두 번

째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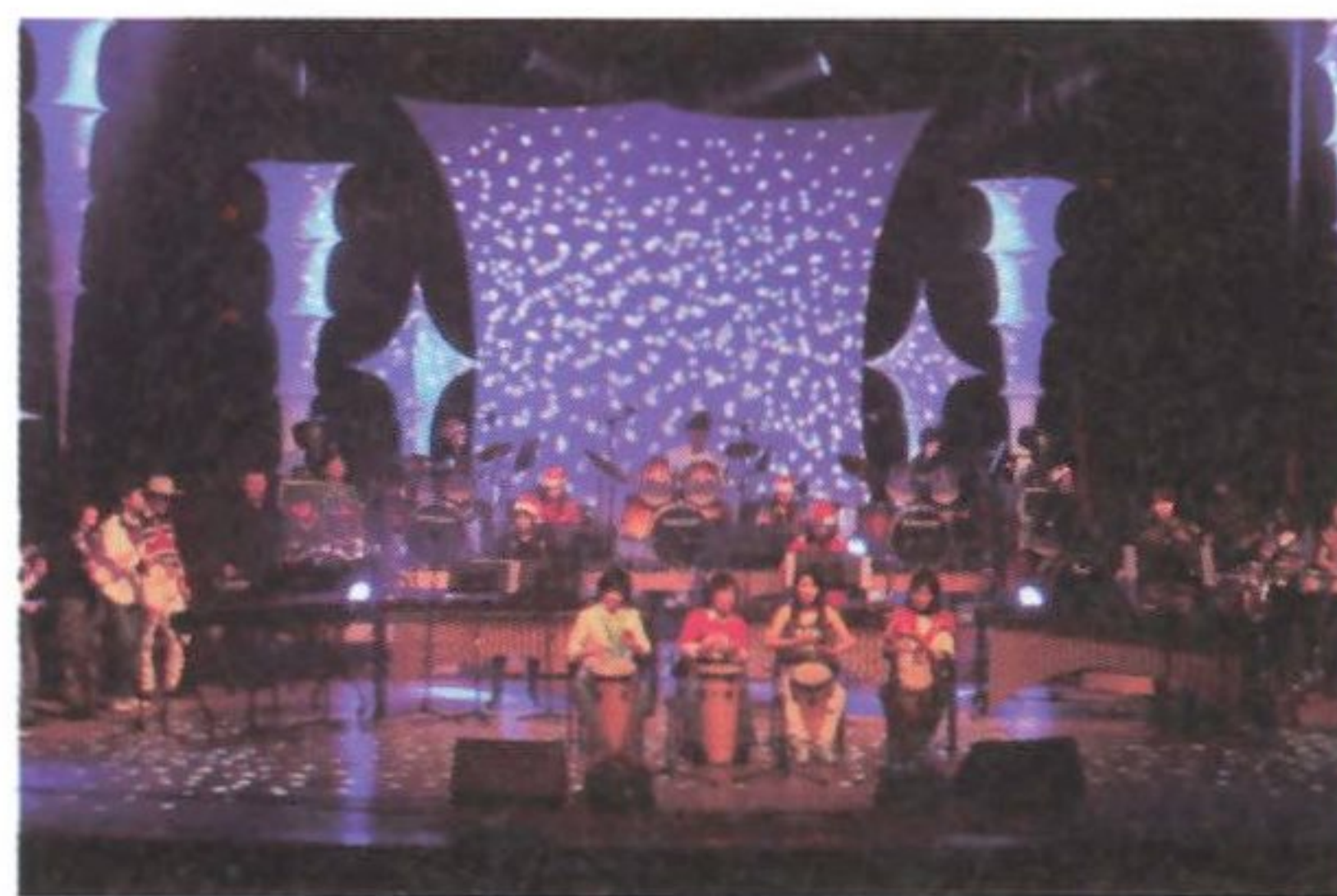
### 프로그램

야나첵/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조곡  
브리튼/심플교향곡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1,000원
- 문의 홍기은(010-4408-1347)

## 부산타악예술협회 제 5회 정기연주회

6월 20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신나는 드럼과 라틴 타악기, 풍가, 봉고, 팀발레스 등 다양한 타악기 연주가 어우러지는 부산타악예술협회 정기연주회.

- 관람료 무료
- 문의 부산타악예술협회 (501-0977, 010-2433-7358)

## 소프라노 김미정 독창회

6월 2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T. Gobbi시립음악원과 이태리 Orfeo아카데미, E. Fogliatti아카데미를 졸업한 소프라노 김미정.

김미정은 이태리 E. Caruso국제성악콩쿠르 입상, Erba국제성악콩쿠르 1위 및 '최고의 목소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 부산작곡가협회 제 38회 창작곡 발표회 교향시의밤 '아! 부산'

6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1983년 창립 후 현재 대학교수와 강사, 교사, 작곡전공 졸업자 등 7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작곡가협회의 38번째 창작곡 발표회.

· 작곡/박규동, 태미, 황선영, 문현애, 김성광, 윤소정, 김종덕, 이옥영, 김성덕, 최인식

- 연주/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
- 지휘/임준오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박규동(010-3122-3970)

## 2010 김정원과 친구들 피터 아블론스키 & 김정원 피아노 듀오 콘서트

6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2006년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영역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클래식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친구들 2010년 무대.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 피아니스트 피터 아블론스키와의 듀오콘서트로, 풍부한 감성과 열정, 매력적인 외모로 많은 음악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두 젊은 거장의 파워풀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네손을 위한 피아노 소나타 K.521  
아렌스키/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제 1번  
라흐마니노프/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제 1번  
'환상곡-정경' 사단조 작품 5



-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33,000원
- 문의 스톱뮤직(02-2658-3546)

### 우크라이나 글린카필하모니오케스트라 초청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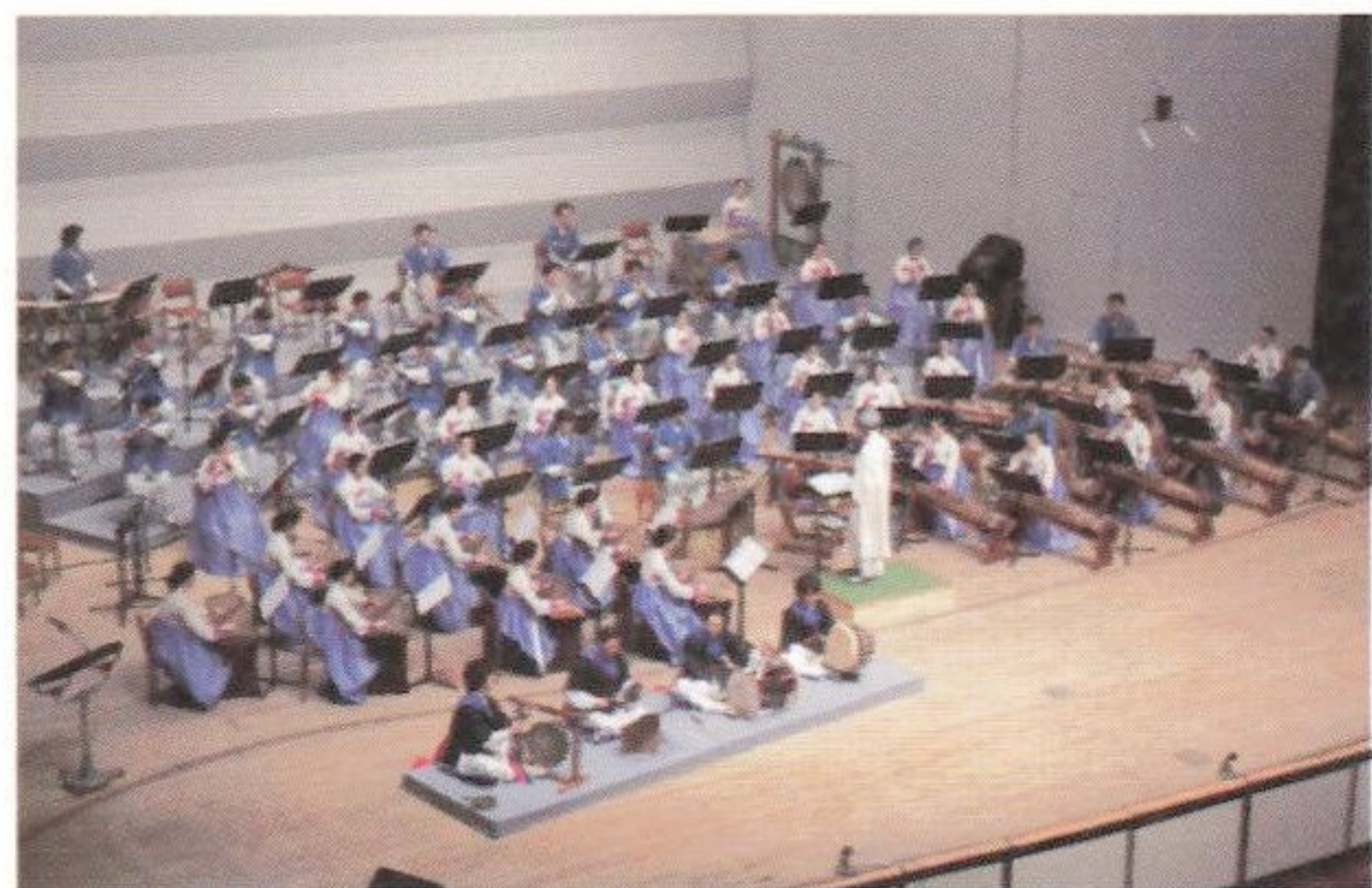
6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1957년 우크라이나 지포르지예시 시립교향악단으로 창단된 후 국내외 초청연주회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한 우크라이나 글린카필하모니오케스트라 초청공연.

- 지휘/김영근
- 특별출연/김증섭(트럼펫), 소노페 플루트앙상블(김순희, 신형숙, 강미경, 최귀화)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3회 정기 연주회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생태음악회 IV 상생 2010

6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아름다운 국악 선율로 전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10년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생태음악회 IV '상생 2010'.

영남대학교 최문진 교수가 객원지휘하고 국악계의 뉴에이지 작곡가로 명성을 얻고있는 젊은 작곡가 강상구의 피아노 협연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창작관현악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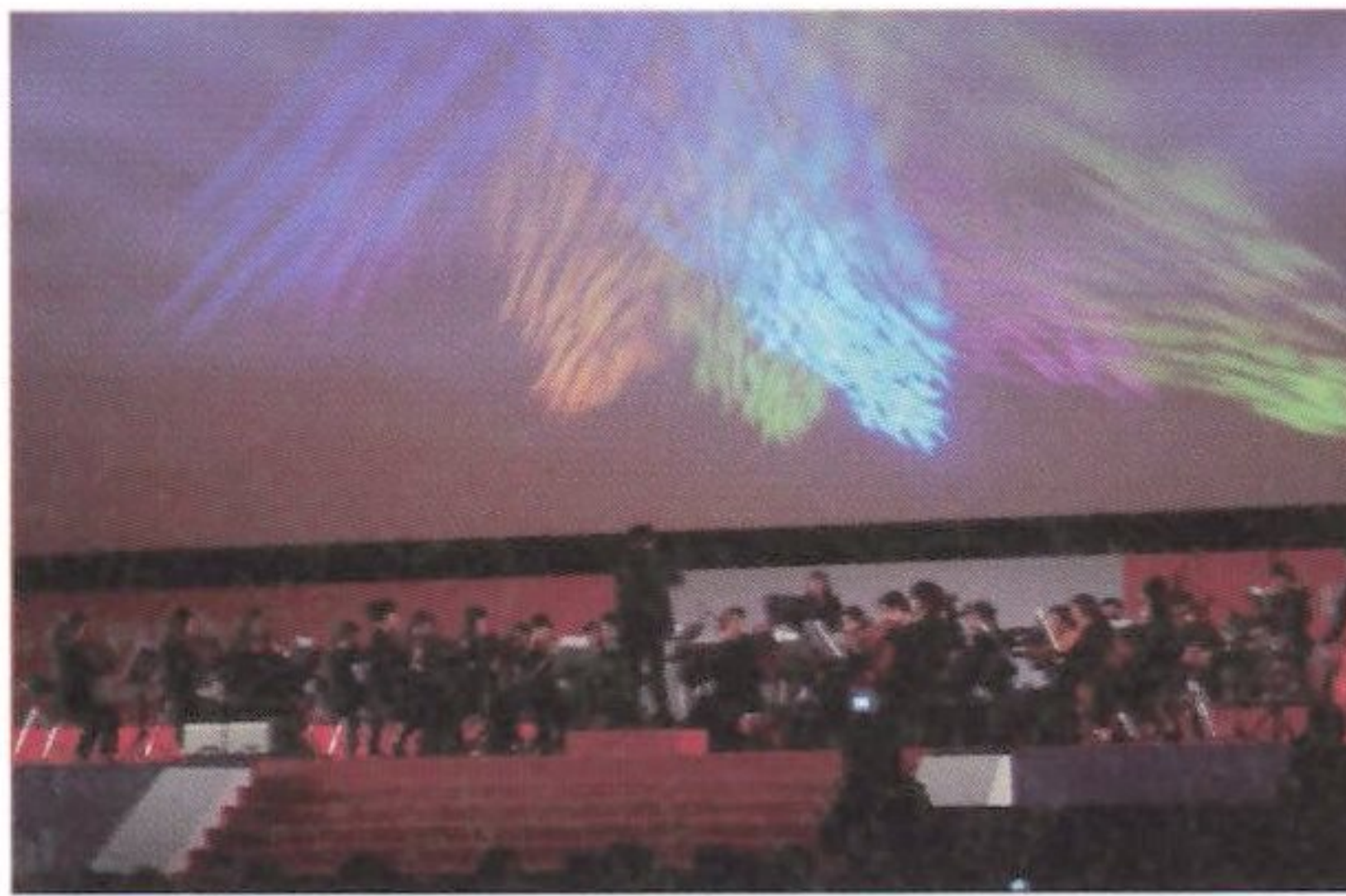
#### 프로그램

강상구/아침을 두드리는 소리

- 원일/나비 · 꿈
- 오윤일/향(鄕)[부산초연]
- 정동희/대지의 숨[부산초연]
- 오혁/고별[부산초연]
- 협연/강상구(피아노), 김기량(첼로), 윤강희(콘트라베이스)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6·25 60주년 기념음악회

6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6·25 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가 생명의 존엄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마련하는 기념음악회.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영광의 탈출' '웰컴 투 동막골' '콰이강의 다리' '작은 연못' 등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주제곡을 들려준다.

- 관람료 초대
- 문의 정희보(010-3881-3753)

### 제 30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6월 27일 일요일 오후 3:30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이 매월 시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상설무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관람료 자율(이웃돕기 성금)
-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천재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초청 독주회

6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1996년 뉴욕 영콘서트 아티스트 국제음악콩쿠르에서 300여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14살 최연소 나이로 우승해 화제를 모은 천재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초청 독주회.

오주영은 2006년 뉴욕 카네기홀 데뷔무대에서 '진정한 거장으로서의 테크닉과 음악적 감수성을 지닌 열정적인 연주자'라는 호평을 받았다.

#### 프로그램

타르티니/바이올린 소나타 사단조 '악마의 트릴' 생상/바이올린 소나타 제 1번 라단조 작품 75 피아졸라/오블리비온 등 수곡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 문의 부산문화(633-8990)

## PLAY

### 2009 점프 부산

2009년 9월 10일(목)-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공휴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6:00 IBK 점프부산전용극장(부산롯데호텔 롯데아트홀)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난버벌 퍼포먼스 '점프'.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IBK점프부산전용극장(810-7000)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2009년 12월 18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휴관) BB씨어터

비보이와 사랑에 빠진 발레리나가 비결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2005년 초연 이후 우리나라에 비보이 열풍을 일으키며 국내외 무대에서 꾸준한 호평을 받아 왔다.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B씨어터(804-2252)

## 창작뮤지컬 랩퍼스 파라다이스 시즌5

4월 9일(금)-OPEN RUN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3:00, 7:30(월요일 휴관) 숨사탕아트홀 1관



199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 래퍼들의 실화를 재구성, 생동감 넘치는 배우들의 랩과 연기, 파워 넘치는 음악의 랩뮤지컬로 탄생한 '랩퍼스 파라다이스' 시즌5 무대.

- 관람료 균일 50,000원
- 문의 숨사탕아트홀(1566-7050)

## 연극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5월 7일(금)-6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 (월요일 공연없음) 청춘나비 소극장

자신의 운명적인 사랑을 찾아나선 아니생긴 여자 박정봉의 무공해 유기농 로맨스극으로, 유쾌한 웃음과 짝한 감동을 전해준다.

- 작, 연출/김민우
- 출연/박인화, 장보단, 황하규, 김병도, 제이슨, 이유탕, 변은지, 황자미 외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문의 청춘나비소극장(626-3703)

## 의무의 희생자

5월 13일(목)-6월 5일(금)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기묘'라는 인물찾기를 강요당하는 한 가족의 지리멸렬한 과정이 극중극 형식으로 펼쳐진다.

- 원작/이오네스코 · 재구성, 연출/구현정
- 안무/강희정 · 음악/이세호
- 출연/최웅, 배진만, 진선미, 유재명, 이효림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예매시 30% 할인)
- 문의 열린소극장(555-5025)

## 뮤지컬 맘미아

5월 15일(토)-6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토-공휴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2:00, 6:30 시민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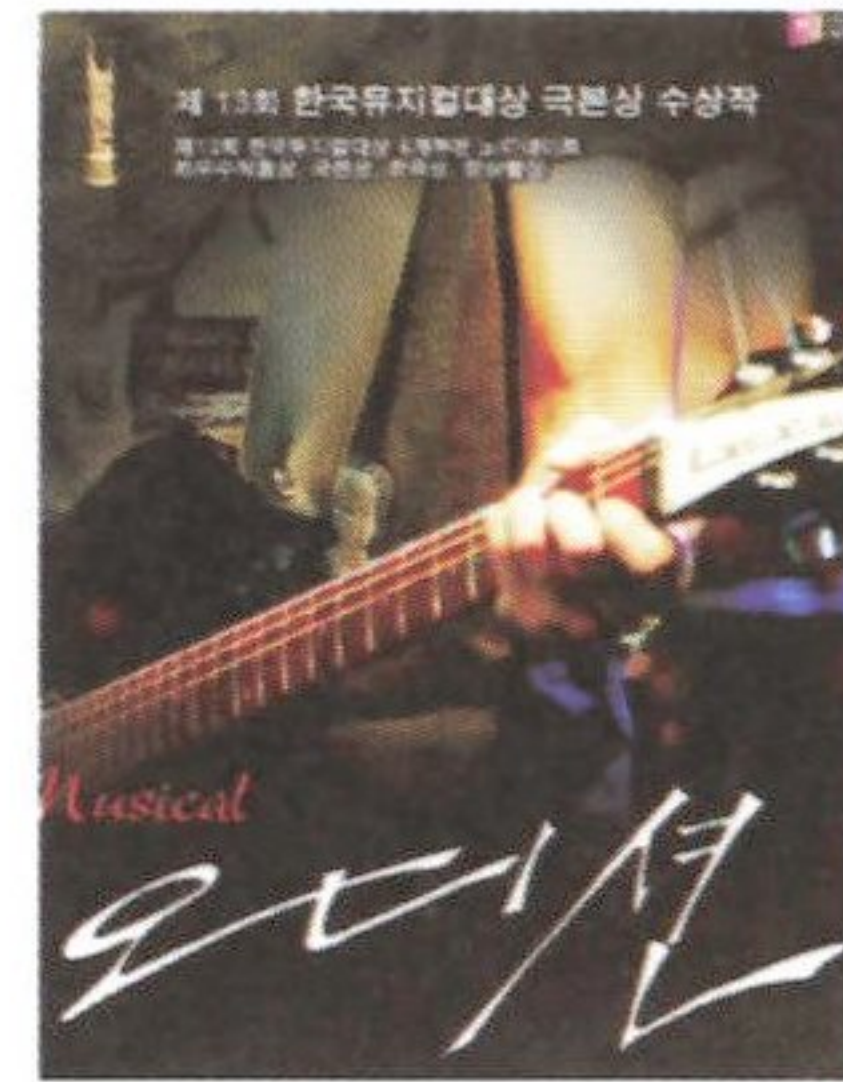
1974년 1999년 7개 세계를 뒤흔든 바로 그 뮤지컬 뮤지컬 맘미아!

아바(ABBA)의 음악으로 만든 뮤지컬 '맘미아' 부산공연. 최고의 콤비 남경주, 최정원과 국내 최정상 뮤지컬배우들이 출연, 환상의 무대를 선사한다.

- 관람료 VIP 110,000원 · R석 90,000원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B석 30,000원
- 문의 예술기획 성우(1599-1980)

## 뮤지컬 오디션

5월 21일(금)-7월 2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5/21일은 오후 6: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젊은 뮤지션들의 꿈과 현실을 그린 창작 뮤지컬.

출연배우가 직접 밴드의 음악을 라이브로 연주한다.

- 작, 연출/박용전
- 출연/허규, 이승현, 오화라, 김승환, 정찬희, 한경수, 오미란
- 관람료 균일 4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 로맨틱코미디극 잇츠유

6월 1일(화)-30일(수)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매주 월요일 휴관) AN아트홀.레드



지역방송사를 배경으로한 가슴 따뜻한 사랑이야기로 감동과 웃음을 전한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SM기획(1600-1602)

## 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6월 3일(수)-30일(수)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소강당

죽음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자살사이트를 배경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자살'을 유쾌한 조롱과 풍자로 그려낸 블랙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SM기획(1600-1602)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연극 닥터 이라부

6월 4일(금)~7월 2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6/12일은 오후 3:00, 6: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못말리는 정신과 의사 이라부와 그의 정신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기상천외한 에피소드가 시원한 웃음을 선사한다.

· 원작/오쿠다 히데오 · 작/김동연  
· 연출/이종훈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 어린이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6월 5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6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무서운 늑대의 침입에 맞서 싸우는 아기돼지 삼형제의 우애를 그린 어린이 뮤지컬.

· 작, 연출/오계영  
· 출연/길수경, 이선화, 송판수, 김기양, 조일영 외

■ 관람료 균일 12,000원(예매시 4,000원)

■ 문의 동그라미그리기(1644-5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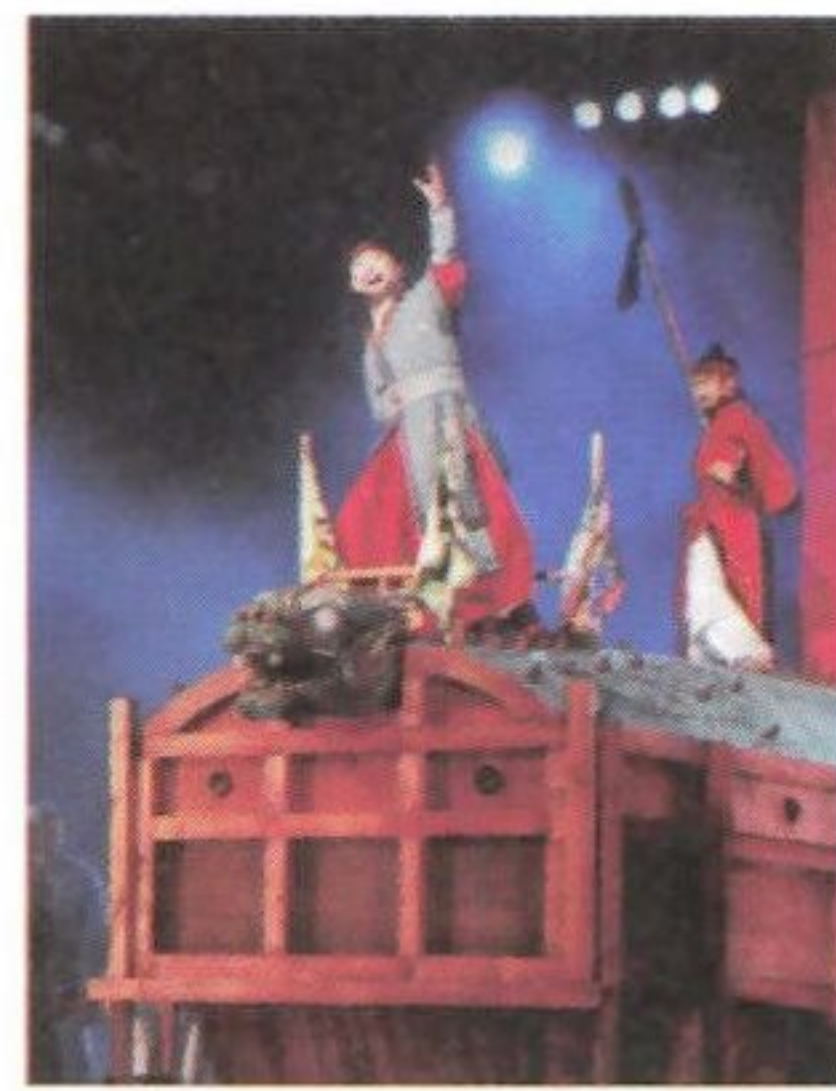
## 제 28회 전국연극제

6월 11일(토)~30일(수) 부산문화회관 중·소극장, 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시내 소극장, 광안리해수욕장

지역예선을 거친 15개 시·도 대표팀이 참가하는 경연대회와 해외초청공연, 소극장 페스티벌, 난장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제 28회 전국연극제.

### 개막 축하공연

▶연희단거리패 창작뮤지컬 '이순신'  
11일 금요일 오후 7:00, 12일~13일 토-일요일  
오후 3:00 시민회관 대극장



· 작, 연출/이윤택

스펙타클한 극구성과 거북선과 판옥선이 오가는 대형무대, 국악과 양악의 만남으로 한국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역사창작뮤지컬 '이순신'.

### 해외초청공연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청년문화예술극장 '헤다 가블러'  
17일 목요일 오후 4:00 시민회관 소극장  
극작가 입센의 희곡 '헤다 가블러'를 러시아 특유의 정서와 기법으로 각색한 작품.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 '까드릴-마누라 바꾸기'

6월 23일 수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소극장



창립 77년 역사의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이 선보이는 연극 '까드릴-마누라 바꾸기'.

### 경연작

▶극단 선창 '철조망이 있는 풍경'(전라남도)  
13일 일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소극장  
이산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그린 작품.

· 작/노경식 · 연출/강대흠

▶극단 앙상블 '밥'(대전광역시)

15일 화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소극장  
30년 동안 사제의 밥을 해온 식복사가 치매에 걸린 사제를 위해 차리는 마지막 밥상과 그 이별을 긴 호흡으로 그려낸 작품.

· 작/김나영 · 연출/이종국

### ▶극단 흥성무대 '국밥'(충청남도)

19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소극장  
재개발지역에 모여든 아웃사이더들을 주인공으로, 결코 좌절하지 않는 인간 본연의 존재의미를 묻는 작품.

· 작· 연출/전인섭

### ▶극단 예도 '주.인.공(酒.人.空)'(경상남도)

21일 월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소극장



술(酒)과 사람(人)이 공(空)존하는 축제 같은 세상. 술, 사람. 누가 주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의 불행한 이야기.

· 작/전혜윤, 이삼우 · 연출/이삼우

### ▶극단 한내 '아리랑'(경상북도)

25일 금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소극장  
재미있는 입담과 춤, 노래로 민중들에게 '아리랑'의 감동을 전하던 떠돌이 광대 김불출 이야기.

· 작/김명곤 · 연출/김은희

### ▶극단 연극하는 사람들 무대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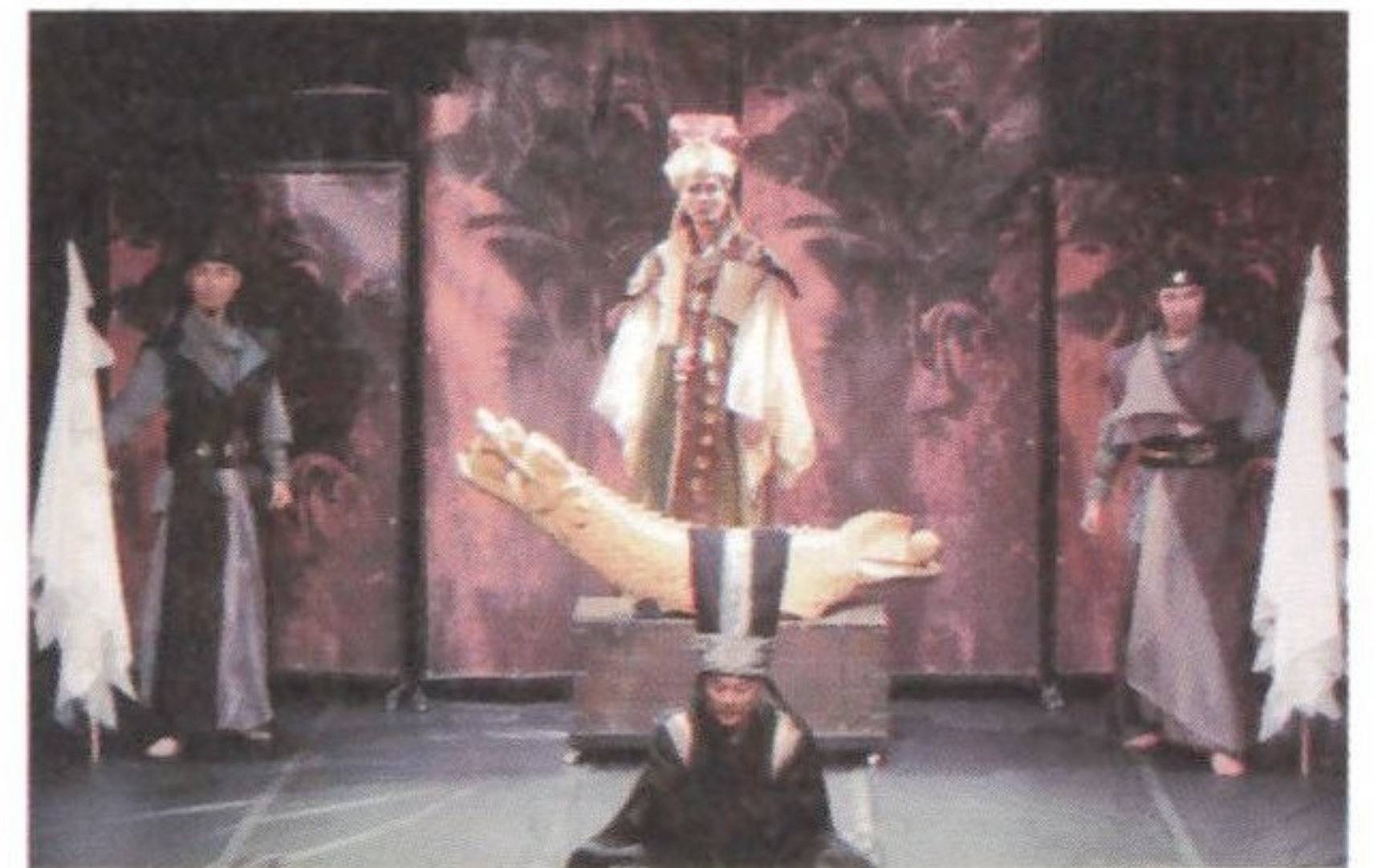
#### '눈 오는 봄날'(전라북도)

27일 일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소극장  
철거 직전인 달동네를 배경으로 근근이 살아가나 마음만은 따뜻한 이웃들의 삶을 그린 작품.

· 작/김정숙 · 연출/안세형

### ▶극단 집현 '장릉의 지문'(인천광역시)

29일 화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소극장



효종의 복벌 계획 좌절과 사대부들의 대의명분의 허구를 밝히는 역사극.

· 작/박철민 · 연출/이상희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소극장 페스티벌

### ▶극단 아이터 '안돼요 안돼'

11일 금요일 오전 10:20, 11:40,  
12일 토요일 오후 2:00 공간소극장



소아비만과 올바른 식사관을 주제로 한 창작 가족뮤지컬.

· 작, 연출/김영래

### ▶아동극단 기린 '노기오의 별난여행'

11일 금요일 오전 10:30, 11:30, 1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자유바다소극장  
친구 피노키오와 떠나는 기오의 신나는 모험  
의 세계.

· 작, 연출/강혜란

### ▶극단 배우공동체 배우창고 '원티드 스카팽'

11일 금요일 오후 8:00, 12일 토요일 오후  
5:00, 13일 일요일 오후 5:00, 8:00  
액터스소극장  
몰리에르의 '스카팽의 간계'를 무대화한 작품.

· 원작/몰리에르 · 연출/박용현

### ▶극단 마루 '슬픈연극'

12일 토요일 오후 5:00, 13일 일요일 오후  
5:00, 8:00, 14일 월요일 오후 8:00  
소극장 6번출구

죽음을 앞둔 부인과 애써 아내의 죽음을 외면  
하는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그린 작품.

· 작/민복기 · 연출/박현배

### ▶극단 은세계 '오펠리아의 그림자 극장'

12일-13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에저또소극장

목소리가 작아 배우가 되지 못한 오펠리아와  
주인없이 세상을 떠도는 그림자가 펼치는 환상  
적인 그림자극.

· 원작/미하엘 엔데 · 연출/이동준

### ▶극단 인천 '그건 도깨비 마음이야'

13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14일 월요일 오전 10:20, 11:40 청춘나비아트홀

도깨비 친구를 만나게 된 손녀 나박이의 신나  
는 모험을 그린 아동극.

· 작, 연출/천성국

### ▶극단 고도 '미스맘'

13일 일요일 오후 5:00, 8:00, 14일-15일  
월-화요일 오후 8:00 용천지랄소극장  
결혼을 하지않고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낳  
거나 입양해 기르는 여성을 일컫는 '미스 맘'을  
소재로 한 작품.

· 작/한대원 · 연출/이현진

### ▶극단 외치는 소리 '미술관은 살아있다'

14일-15일 월-화요일 오전 10:20, 11:40  
자유바다소극장



그림 속 친구와 떠나는 환상적인 미술관 여행.

· 작, 연출/김동환

### ▶극단 KC퍼포먼스 '호녀와의 동거'

15일-16일 화-수요일 오후 8:00 에저또소극장  
노벨문학상 수상자 다리오 포의 희극 '호랑이  
아줌마'를 각색한 배우 권철의 모노드라마.

### ▶극단 영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16일-17일 수-목요일 오전 10:20, 11:40  
소극장 6번출구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를 그림자극으로  
각색한 어린이 뮤지컬.

· 작/이정민 · 연출/이정민

### ▶극단 남비 공비 '베티의 과학 여행'

16일-17일 수-목요일 오전 10:20, 11:40  
액터스소극장

소녀 베티와 함께 떠나는 신나는 과학여행.

· 연출/정상식

### ▶극단 세진 '지니 스토리 The Best'

17일 목요일 오후 5:00, 18일 금요일 오후 8:00,  
19일 토요일 오후 5:00, 8:00

청춘나비 아트홀

마임이스트 김세진의 대표작을 감상할 수 있  
는 극단 세진의 유니버스 마임극.

· 작, 연출/김세진

### ▶극단 판굿코리아 '굴레-욕(慾/欲)'

18일 금요일 오후 8:00,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5:00, 8:00 자유바다 소극장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상생(相生)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작품.

· 작, 연출/차희

### ▶극단 누리에 '적의 화장법'

18일 금요일 오후 8:00, 19일 토요일 오후  
5:00, 8:00 용천지랄소극장



피할 수 없는 내부의 적과의 한판 대결을 그린  
작품.

· 원작/아멜리 노통브 · 연출/강성우

### ▶극단 엘칸토 '황혼열차'

18일 금요일 오후 8:00, 19일 토요일 오후  
5:00, 8:00 에저또 소극장

고령화 사회 속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  
른 노인문제를 그린 작품.

· 작, 연출/봉두개

### ▶달란트 연극마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2:00, 5:00  
공간소극장

셸 실버스타인의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구연동화와 마임으로 표현한 색다른 형식의 가  
족극.

· 각색, 연출, 출연/최경식

### ▶그룹포차 '추격자'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5:00, 8:00, 21일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월요일 오후 8:00 소극장 6번출구  
한편의 만화와 같은 신나는 마음 세상.

· 작/공동창작 · 연출/송정배

▶극단 얼 아리 '그들의 사회화'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5:00, 8:00

액터스소극장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린 작품.

· 작, 연출/양태훈

▶극단 금설 '이불꽃'

21일-22일 월-화요일 오전 10:20, 11:40

청춘나비 아트홀



임신기간동안 펼쳐지는 희로애락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그린 작품.

· 작, 연출/김신기

▶극단 쟁이마을 '옛날 옛적 삼년고개'

22일-23일 화-수요일 오전 10:20, 11:40

공간소극장

삼년고개에서 넘어지면 삼년밖에 못산다는 전설을 소재로 한 어린이극.

· 작, 연출/김승덕

▶극단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바리데기'

22일-23일 화-수요일 오후 8:00 액터스소극장

부모를 살리기 위해 저승으로 약을 구하러 갔던 바리데기 설화를 무대화한 작품.

· 연출/심문섭

▶극단 나무 '애들이 같이 놀자'

23일-25일 수-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6번출구



주위의 버려진 폐품을 이용해 펼쳐지는 다양한 상상의 세계.

· 작/공동창작 · 연출/기태인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팔죽할멈과 호랑이'

23일-24일 수-목요일 오전 10:20, 11:40

자유바다소극장



우리의 전래설화를 어린이의 시선으로 재미있게 그려낸 가족뮤지컬.

· 연출/오계영

▶극단 DIC '결혼연습'

23일-24일 수-목요일 오후 8:00

용천지랄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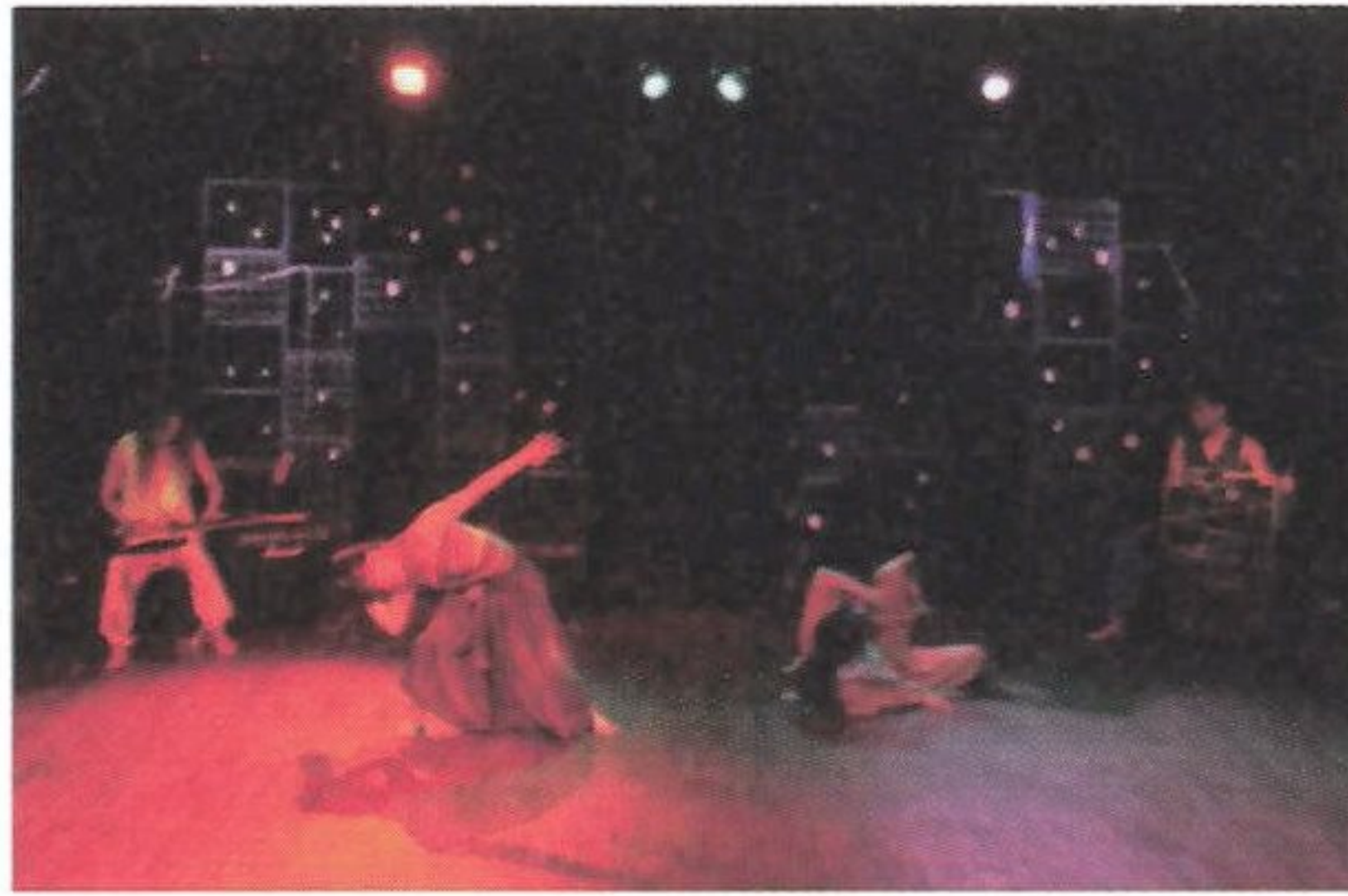
나이많은 소심한 남자 조지와 만삭의 어린소녀 루이스와의 예측불허 러브 스토리.

· 원작/레이 쿠니 · 연출/정문희

▶극단 (주)디엠씨커뮤니케이션즈 '사람풍경'

23일-24일 수-목요일 오후 8:00

에저또소극장



행위와 기타, 장구, 성악이 만나는 새로운 형식의 난장무대.

· 연출/정수석

▶극단 그림연극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날개'

24일-25일 목-금요일 오후 8:00, 26일 토요일

오후 5:00, 8:00 청춘나비 아트홀

1936년 발표된 이상의 대표작 '날개'를 극으로 구성한 작품.

· 원작/이상 · 드라마 트루기, 연출/이현찬

▶극단 누에고치 믹싱테라피(Mixing Therapy)

25일 금요일 오후 8:00,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5:00, 8:00 공간소극장

타인의 도움과 신의 사랑으로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작품.

· 작/전영지 · 연출/양승주

▶극단 부두연극단 '오프-스테이지'

25일 금요일 오후 8:00,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5:00, 8:00 액터스소극장

소외된 배우들의 꿈과 현실을 장-주네 식의 거울의 연극으로 새롭게 창조한 메타드라마.

· 재구성, 연출/이성규

▶극단 하얀코끼리 '어두워질 때 까지'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5:00, 8:00

자유바다소극장



추리극의 치밀한 구성력과 탄탄한 시나리오가 돋보이는 작품.

· 작/프레드릭 노트 · 연출/고선평

▶극단 마루 '쌩쑈(부제:내 맛이 어때서)'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5:00, 8:00

용천지랄소극장

천박한 상술이 난무하는 병든 우리 사회를 고발하는 작품.

· 작/선욱현 · 연출/추지숙

▶극단 에저또 '돼지사냥'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5:00, 8:00

에저또소극장

돈과 권력을 맴도는 소시민의 가치관을 조명 한 사회풍자극.

· 작/이상우 · 연출/최재민

전통연희페스티벌

▶낙동한울림 '울어라 색소폰아'

18일 금요일 오후 7:00 광안리 특설무대

▶예림가야금병창단 '가야금 병창'

18일 금요일 오후 8:00 광안리 특설무대

▶극단 신명나게 '동네 아줌마와 춤을'

18일 금요일 오후 9:00 광안리 특설무대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 다락전통예술원 사물판국  
20일(일), 27일(일) 오후 8:00 광안리 특설무대
- ▶ 놀이패 신명 '무지개 뜨는 교실'  
20일 일요일 오후 9:00 광안리 특설무대
- ▶ M&M플레이 '마법사 코리'  
25일 금요일 오후 9:00 광안리 특설무대
- ▶ 현미밴드 '갈라갈라갈라'  
27일 일요일 오후 9:00 광안리 특설무대
- 관람료 균일 20,000원(단, 개막축하공연은 VIP  
석·60,000원·R석 50,000원·S석 40,000  
원·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사랑티켓 적용)
- 문의 전국연극제 사무국  
(638-1935~7, www.28ktf.com)

##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6월 19일 토요일 오후 2:00, 5:00,  
20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MBC롯데아트홀



뮤지컬, 영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오즈의 마법사'와 어린이 난타가 만난 새로운 형식의 가족뮤지컬.

- 제작/송승환 · 각색/채훈병
- 작곡, 작사/김태근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 창작뮤지컬 친정엄마

7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 KBS부산홀

모녀시간의 가슴따뜻한 사랑이야기가 전 세대 추억을 자극하는 7080 가요와 어우러져 공감을 자아내는 창작뮤지컬.

- 작/고혜정 · 음악감독/유영석
- 출연/김수미, 선우용녀, 오정해, 정나은, 민경  
옥, 홍윤희, 박정림, 김동화, 김현지 외
-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 문의 (주)WSM(1600-1716)

## MOVIE

### 빈센트 미넬리의 뮤지컬 월드

6월 8일(화)~6월 23일(수) 시네마테크 부산(상  
영시간 홈페이지 참조, 월요일 휴관)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의 선구자인 빈센트 미  
넬리 감독의 대표작 11편이 상영되는 시네마테크  
부산 특별상영전.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  
(742-5377, cinema.piff.org)

## DANCE

### 제 6회 부산국제무용제

6월 4일(금)~8일(화)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광안리 해변 상설무대, 해운대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외



'땅, 하늘, 바다, 춤 릴레이축제-그 기상과 힘'  
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2010 부산국제무용제.

전 세계 11개국 127개팀이 참가, 수준높은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 주요일정

- 4일(금) 오후 7:0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BIDF 개막식 및 공식초청 개막공연
- 4일(금) 오후 5:00 해운대 해변 일원  
-BIDF 춤 릴레이전
- 5일(토) 오후 5:00, 6일 오후 6:00 해운대 해  
변특설무대-BIDF 열린 춤 무대
- 5일(토) 오후 6:0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BIDF 춤 아카데미 초청공연
- 5일(토)~6일(일) 오후 7:30 해운대 해변특설무  
대-BIDF 공식초청작 공연
- 6일(일) 오후 5:00 해운대 해변 일원  
-시민 춤 한마당 릴레이
- 7일(월)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AK(Arts Korea)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
- 8일(화)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BIDF 폐막식 및 폐막공연
- 문의 부산국제무용제 사무국(555-2949)

### 민병수발레단 제 14회 정기공연

6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클래식 발레 테크닉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는  
민병수발레단의 신화 속 이야기 3번째 무대.

작곡가 베르디, 코다이의 음악과 발레가 만나  
는 무대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의 쌍  
둥이형제의 이야기를 다룬 '카스토르와 폴룩스'  
를 선보인다.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김희쟁(010-6566-7136)

### 하연화의 춤 해설이 있는 우리 춤

6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지루하게만 느껴지  
던 전통춤 공연을 상  
세한 해설과 함께 감  
상할 수 있는 춤꾼 하  
연화의 해설이 있는  
우리춤.

· 춘앵전, 태평무, 장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고춤, 진주교방굿거리춤, 허튼배김춤 등이 소리꾼 홍순연의 시원한 해설과 함께 펼쳐진다.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초중고생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 **문의** 하연화무용단 (663-4964, 016-436-7121)

## 로고현대무용단 제 20주년 기념공연

6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동아대학교 장정운 교수를 예술감독으로, 지난 1990년 창단이후 활발한 공연을 가져온 로고현대무용단 창단 20주년 기념무대.

로고현대무용단은 이번 무대에서 어렵고 난해하다는 현대무용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착향(안무/윤경호)

Oblivion(안무/김현정)

Decalogue 중 '5계명'(안무/강미란)

아담과 이브(안무/이현)

- 연출/장정운 · 조명/김철현
- 음악/권태우 · 영상/몽

▪ **관람료**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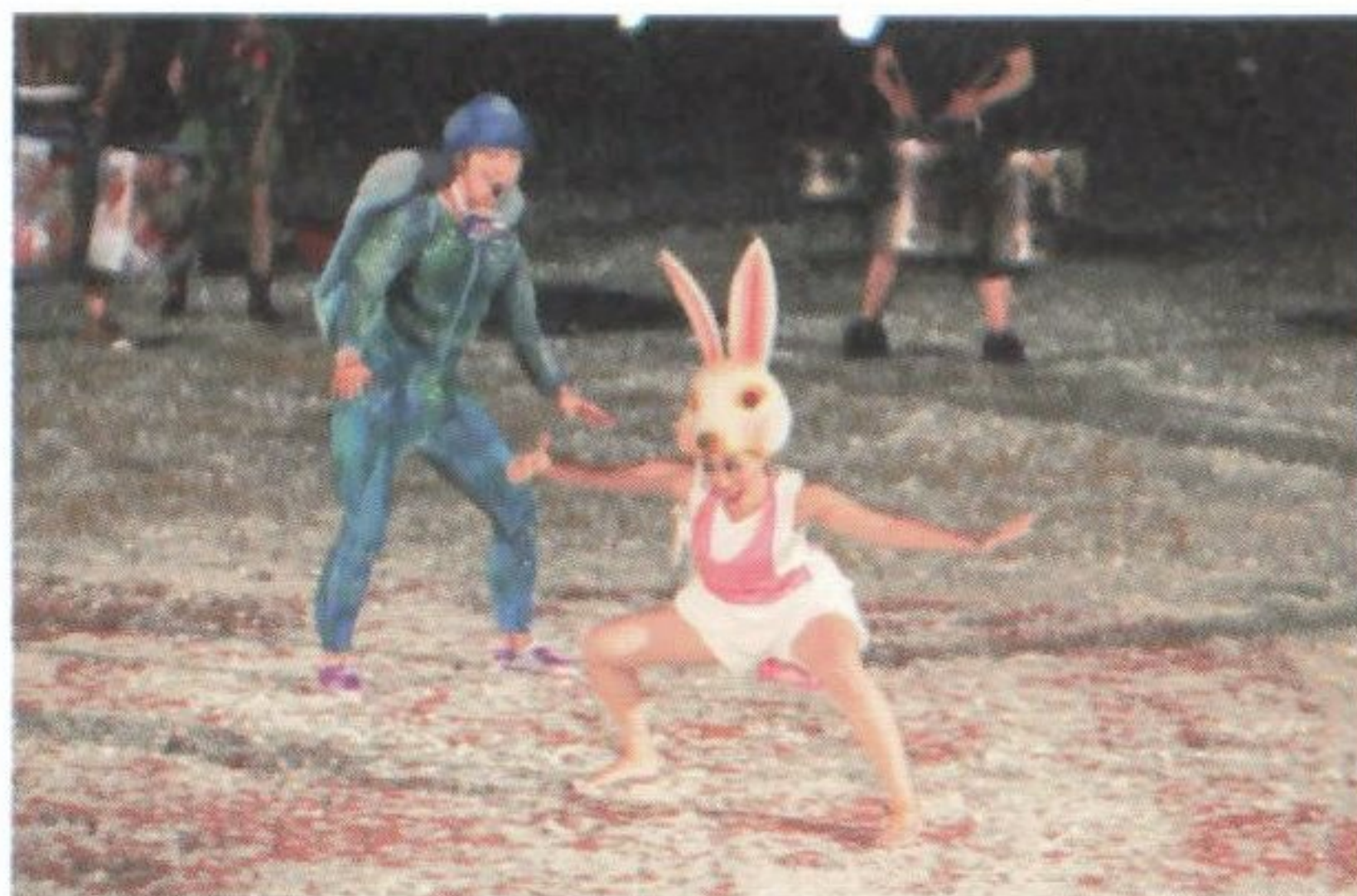
▪ **문의** 김도경(200-7822, 010-8858-2831)

## 2010 區 문화회관 순회공연 부산시립무용단 마당춤판 별주부전-용궁으로 간 토끼

6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7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전통설화 '별주부전'을 현대적으로 각색, 해학과 신명, 감동이 있는 마당춤판으로 풀어낸 부산시립무용단 '별주부전-용궁으로 간 토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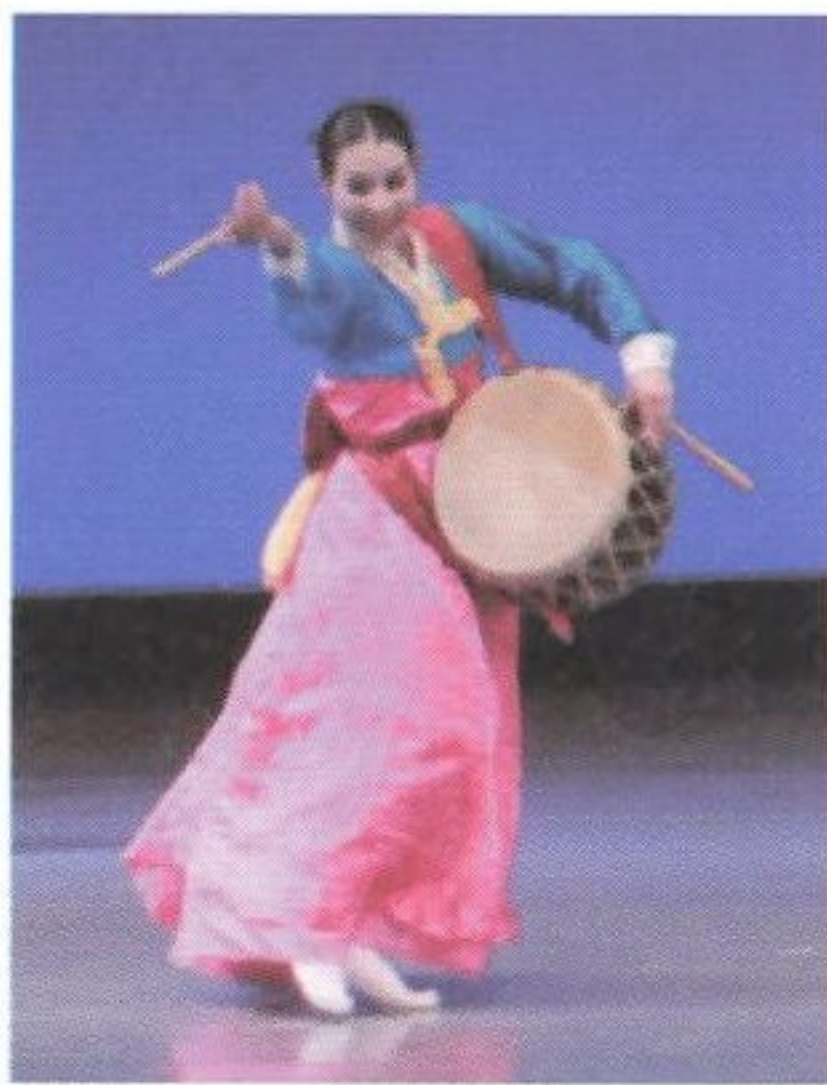
· 안무, 구성/홍기태



- 각색, 대본, 연출/황해순
- **관람료** 무료(선착순 입장)
-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윤정미의 춤 '사랑'

6월 20일 일요일 오후 6: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부산여자대학 무용학과와 신라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제 10회 광주국악대제전 준우승, 제 5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명인부 차하, 제 33회 전통예술경연대회 동상을 수상

한 윤정미의 춤.

**프로그램**

살풀이춤, 즉흥무, 승무, 태평무, 풍류장구춤, 문동탈춤, 진도북춤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윤정미(636-8071, 016-575-1099)

## CONCERT

트리오 세드릭 앙리오 콘서트

6월 10일 목요일 오후 4:00 신세계문화홀

상승가수 세드릭 앙리오가 세계적인 재즈뮤지션 테리 린 카링톤, 존 파티투시와 함께 들려주는 재즈콘서트.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 GALLEEY

심중의 획-9년간의 문자기호와 색깔  
조안 림 개인전

5월 1일(토)-6월 13일(일) 부산프랑스문화원

▪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 요셉 보이스展

5월 7일(금)-6월 30일(수) 부산조현화랑

▪ **문의** 부산조현화랑(747-8853)

## 고명근展

5월 14일(금)-6월 13일(일) 도시갤러리

▪ **문의** 도시갤러리(756-3439)

## 최혜영 개인전 공명하는 판

5월 15일(토)-6월 20일(일) 오픈스페이스 배

▪ **문의** 오픈스페이스 배(724-5202)

## 그림같은 사진, 사진같은 그림 유현미展

5월 19일(수)-6월 20일(일) 갤러리 이듬

▪ **문의** 갤러리 이듬(743-0059)

## 부산회화제 화랑미술제 -소품동행전

5월 29(토)-6월 4일(금) 타워갤러리

▪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 이목을 초대전

6월 9일(수)-6월 30일(수) 김재선갤러리

▪ **문의** 김재선갤러리(731-5438)

## 2010 한-아세안 현대사진전 EMERGING WAVE

6월 18일(금)-8월 8일(일) 고은사진미술관

▪ **문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 메르세데스 소사가 노래한 미사 크리올라

김의호 \_ 삼성여고 교사



긴 비행 끝에 이구아수(브라질과 아르헨티나국경에 위치한 세계 최대 폭포)앞에 섰다. 지척을 분간키 어려운 물보라는 주변을 뒤덮었다. 시쿠(팬파이프의 일종)와 쿠에나(통나무

로 만든 플룻)의 물빛 같은 신비로운 선율과 봄보(안데스 전통 북)의 울림이 들려온다. 콘트라알토 소사의 부드럽고 수정 같은 노래가 그 위에 흐르고 있었다. 형언키 어려운 감동이었다.

지난 가을, 메르세데스 소사(Mercedes Sosa)가 세상을 떠났다. 소사는 1935년 7월 9일 안데스 끝자락 뚜꾸만의 산 미구엘에서 태어났고, 1965년 아르헨티나 최고의 가요제 '코스킨(Cosquin)포크 페스티벌'을 통해 데뷔하였다. 이 때 그녀의 노래를 필립스사가 주목했다. 아리엘 라미레스가 피아노주자로 함께 한 첫 앨범을 필립스사를 통해 발표하게 되고, 그녀의 전설이 시작된다.

1960년대 초 후안 페론정부의 민족음악보존정책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노래운동(Nuevo Cancionero Argentino)이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 이 새 노래 운동은 1970년대 군부독재시절을 거치면서 정치에 대한 저항정신을 담아 민중을 대변하는 저항음악이 된다. 그 중심에 소사가 있었다.

아르헨티나 아니 라틴아메리카는 수탈과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다. -그들의 왕조 시대에도, 서구열강의 물욕 앞에서도- 그 누구도 인디오들의 터진 상처를 싸매주고 안아주지 못했다. 지금도 백인거주지역의 높은 담이 존재하는 아르헨티나에서 민중의 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사는 시대의 양심이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절, 희망의 노래로 민중에게 다가왔다. 인디오의 고티 깊은 한을 가슴으로 노래한 소사! 그녀는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아

닌, 민중이 원하는 노래를 불렀다. 민중은 그녀의 노래에 빠져 들었다. 소사는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끌어안아 핏물처럼 민중의 가슴에 몰입되었다. 그리하여 아르헨티나 민중 음악의 어머니요, 저항음악의 상징이 되었다.

소사의 기념비적인 음반중 하나가 '크리올라 미사'이다. 크리올라는 남미지역의 스페인계 후예들을 일컫는 말이다. 작곡가 아리엘 라미레스는 안데스 민속음악과 히스페닉계 아메리칸의 토속적 리듬과 형식을 잘 조화하여 민족적 색채가 강한 미사곡을 만들었다. 텍스트는 라틴어가 아닌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 옛 왕조의 언어인 카스티아어를 사용했다. 미사를 토착화 하려는 움직임은 로마교황청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를 통해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곡 역시 1963년 남미가톨릭교단의 승인을 받게 된다. 1964년 녹음된 이 곡은 곧이어 40여 개의 나라에서 발매되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 곡은 여러 종류의 라틴아메리카 전통악기를 사용하여 영감과 신비를 더 한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인디오 민속음악과 전통악기를 악마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악기를 불사르고 악기제작자와 연주자를 죽였다. 그러나 인디오들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악기들을 제작, 보존하며 안데스민속음악을 지켜왔다. 안데스음악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곡을 통해, 음악이야말로 인디오들의 생활이요, 감성을 담아내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크리올라 미사'는 호세 카레라스가 부른 음반도 유명하다. 피아노시모로 노래하는 호세의 미성에 처음 듣는 사람도 넋을 잃는다. 하지만 왠지 턱시도를 입은 인디오의 형색이 떠오른다. 께추아족 전형의 까만 머리 인디오 소사가 안데스 전통의 상 판초를 입고 절규하듯 노래한다. 백인들의 하나님인 아닌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인디오의 하나님을 향해...



## 부산시립합창단 '합창으로 듣는 7080 대중가요'

음악을 사랑한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오늘 부산시립합창단 공연은, 언제나 그렇듯이, 뭔가 뿌듯한 감동과 행복함을 오랫동안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2시간이 언제 흘렀는지... 특히 마지막에 '만남'을 함께 부르자고 객석에 청할 때, '아! 이런 음악회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공연이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얼굴마다 밝은 미소와 웃음기든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꼭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만이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 좀 더 많은 이들이 음악을 통해 행복해하면 아름다운 세상도 금방 만들어질텐데... 좋은 공연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한다. 벌써 다음 공연이 기다려진다.

- 민봉기(수영구 남천동)

## 뮤지컬 '시카고'

최정원의 'All that Jazz'의 리드미컬한 선율로 무대가 열린다. 배우들의 노래 뿐 아니라, 라이브로 연주하는 음악 덕분에 눈 못지않게 귀가 즐거웠다. 그리고, 행복했다. 날카로운 풍자와 위트, 사회의 속성에 대한 예지적인 시선으로 그려낸 시대를 초월하는 명작. '역시'란 감탄사로 명성을 증명한 남경주(변호사 빌리)와 최정원(벨마 켈리). 그리고 무섭게 떠오르는 옥주현(록시 하트). 자극적인 사건에는 불나방처럼 모여드는 언론의 속성이 확실하게 꼬집어 진다. 이런 작품의 극작가에서부터 프로듀서, 안무, 조명, 그리고 이걸 무대에서 완성시키는 배우들에게 '천재적'이란 형용사를 붙여주고 싶다.

- 윤지현(해운대구 좌동)

## 로맨틱뮤지컬 '햇 온 러브'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판투테'가 뮤지컬과 만나 전혀 다른 느낌의 뮤지컬로 태어났다. 오구에서 노모로 열연한 남미정씨의 연출작품이라 기대가 컸다. 사랑을 두고 내기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장난스러운 내기를 통해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랑에 눈뜨는 모습, 사랑의 열병을 앓는 그 모습들에 점차 동화되어 간다. 거기에서 땀에 흠뻑젖는 열연,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다.

- 이윤희(부산진구 부암1동)

## 스노우드롭 시즌2

작년에 보지못해 아쉬워했었는데, 부산에서 한다는 소식에 바로 예매! 재밌다고 웃기다고 한번은 볼만하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긴 했는데, 사실 줄거리만 보고는 별 기대를 하지않았다. 하지만, 관객들과 소통하려는 배우들의 모습에 빠져들었고 공연시간도 금방 지나가버렸다. 처음의 내 기대와 달리 박수도 많이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 아직 보지못한 사람들에게 즐거운 공연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 강숙희(영도구 봉래동3가)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공방 전문점

나랏소리?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드립니다.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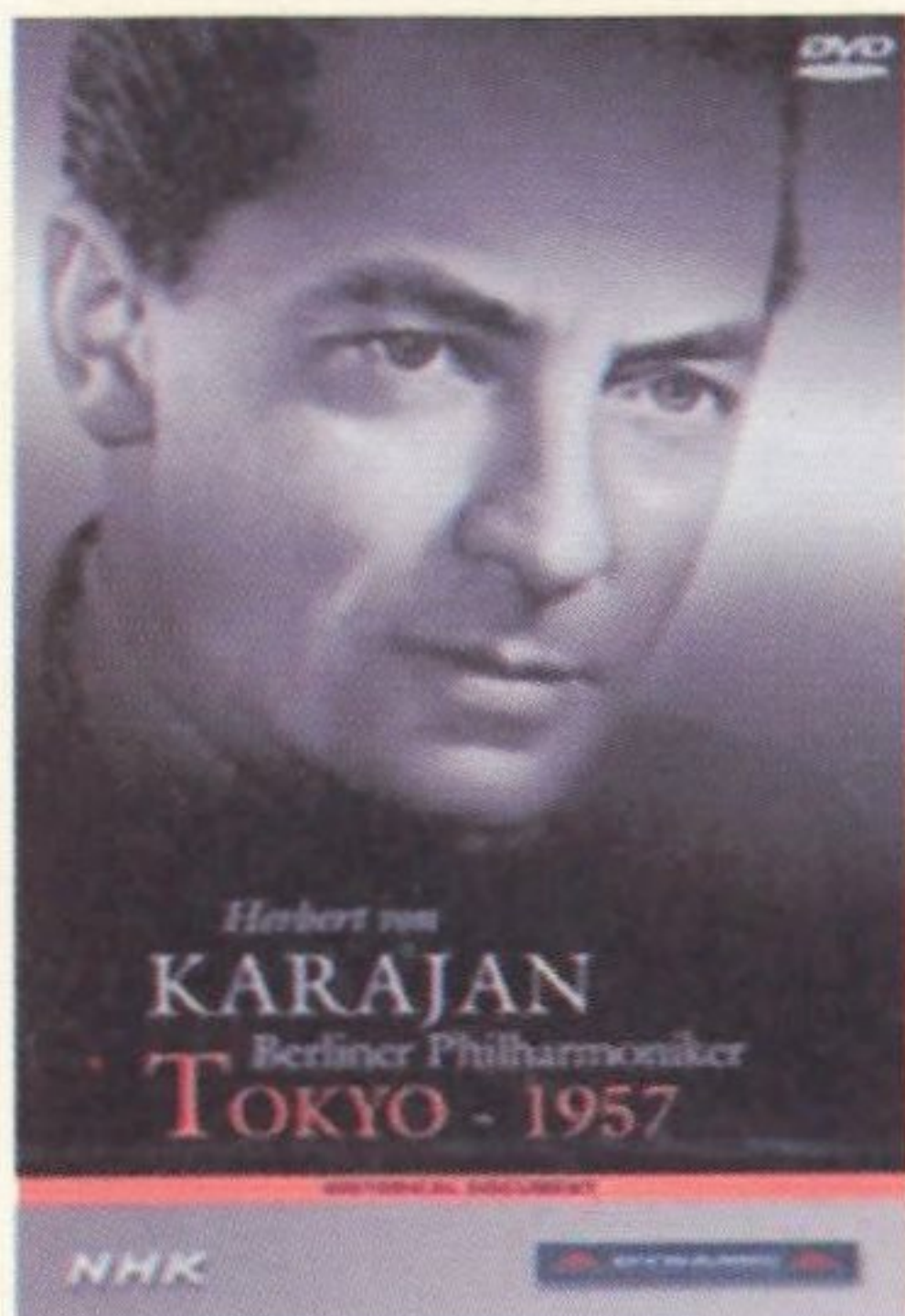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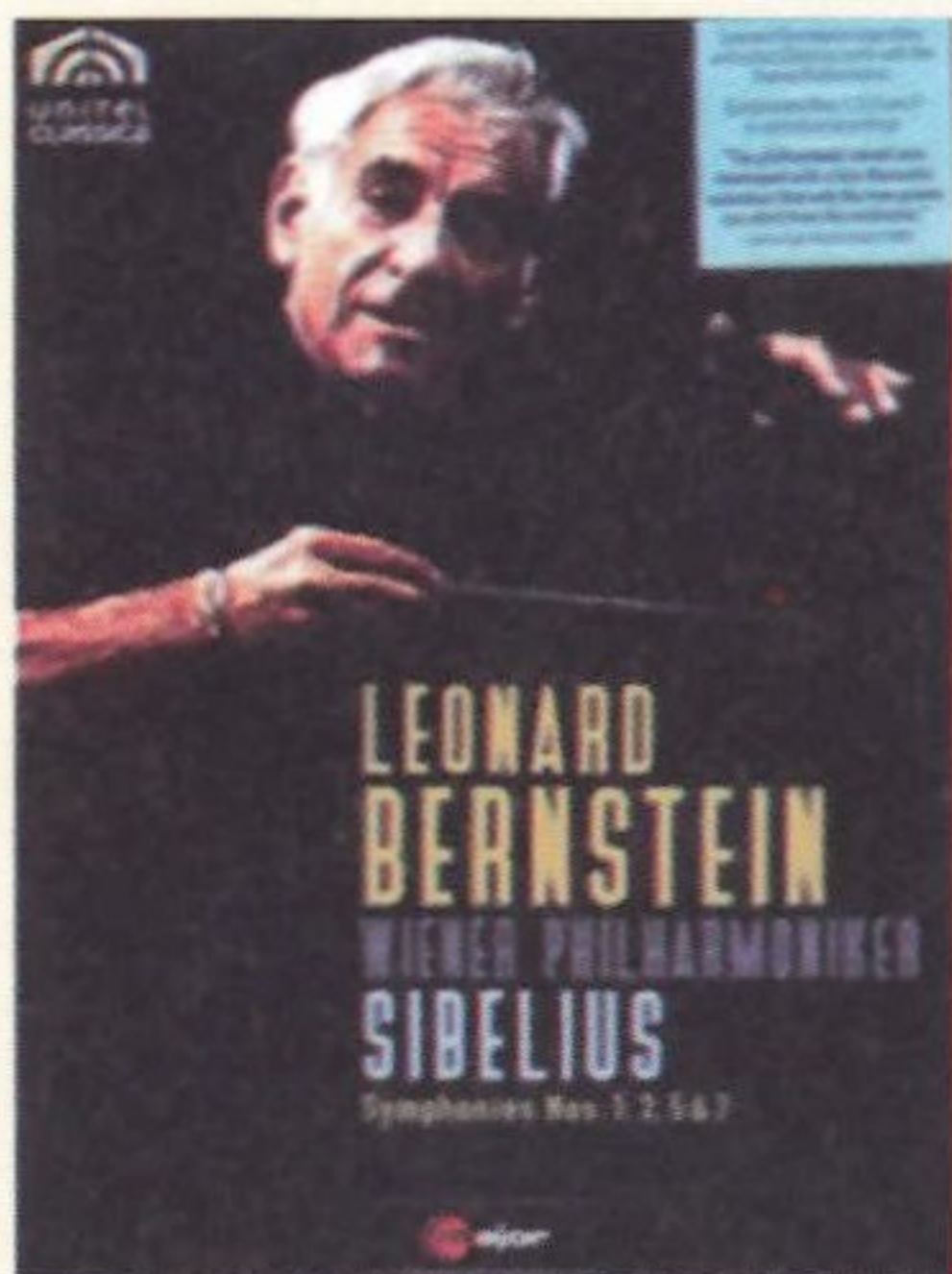
## 카라얀 마니아들을 위한 특별한 영상

카라얀과 베를린 필의 전설적인 1957년 도쿄 콘서트 실황 (DVD)

▶ 바그너/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1막 전주곡, R 슈트라우스/돈 환, 베토벤/교향곡 5번

클래식 음악계의 영원한 아이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위대한 지휘자가 보여줬던 음악 혼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카라얀 마니아들을 위한 특별한 영상 하나가 발굴되었다. 1957년 11월 3일 도쿄의 구 NHK홀에서 있었던 베를린 필의 역사적인 일본 공연실황이 DVD로 제작되었다. 당시 카라얀과 베를린 필은 바그너의 마이스터징거 1막 전주곡, R 슈트라우스의 돈 환,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이라는 자신들 최고의 레퍼토리들로 일본 관객들을 열광케 만들었다. NHK에서 기록했던 이 콘서트의 실황은 열악한 흑백화질에도 불구하고 당시 카라얀과 베를린 필이 만들어내었던 혼신의 열연을 감동적으로 전달해준다. 아쉬운 화질에 비해 LPCM 2.0채널로 제공되는 사운드는 준수하다.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의 초반부의 경우 원본필름의 훼손으로 인해 영상과 사운드가 고정화면과 모노로 대체되는 부분이 나타나지만, 40대 후반 카라얀의 기백과 미헬 슈발베, 오렐 니콜레, 에버하르트 핑케, 마르틴 칠러 등 베를린 필의 전설적인 면면들을 확인시켜주는 이 영상의 소중함은 변함이 없다.



## 번스타인의 미완성 시벨리우스 사이클 드디어 DVD로 등장하다

연주/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레너드 번스타인)

▶ 시벨리우스/교향곡 1, 2, 5, 7번

번스타인 마니아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값진 영상이 드디어 DVD로 발매되었다. 번스타인은 1980년대 후반 빈 필하모닉과 더불어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전집에 착수했었다. 1986년 교향곡 2번을 시작으로 매년 한 작품씩 무지크페라인 홀에서 콘서트실황으로 진행될 계획이었으며, DG와 Unitel에서 각각 CD와 영상물로 출판되었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1990년 2월 교향곡 1번의 녹화가 완료된 이후 그해 10월 14일 72세를 일기로 번스타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사이클은 중단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시벨리우스의 일곱 교향곡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들인 1, 2, 5, 7번의 녹음이 완료되었다는 점이다. 번스타인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빈 필의 비단결 같은 소노리티가 조화를 이룬 이 미완성의 시벨리우스 사이클은 음반으로서도 크게 호평을 받았던 번스타인 만년의 역작이었다. 그 감동이 이제 DVD를 통해서 또 다시 우리 곁으로 생생하게 찾아 올 것이다. 번스타인의 팬들은 물론, 시벨리우스 애호가들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아이템으로 적극 추천한다.



## 시대악기-역사주의 연주를 통해 새롭게 바라본 역작

연주/빅토리아 물로바(바이올린), 크리스티안 베자위던하우트(포르테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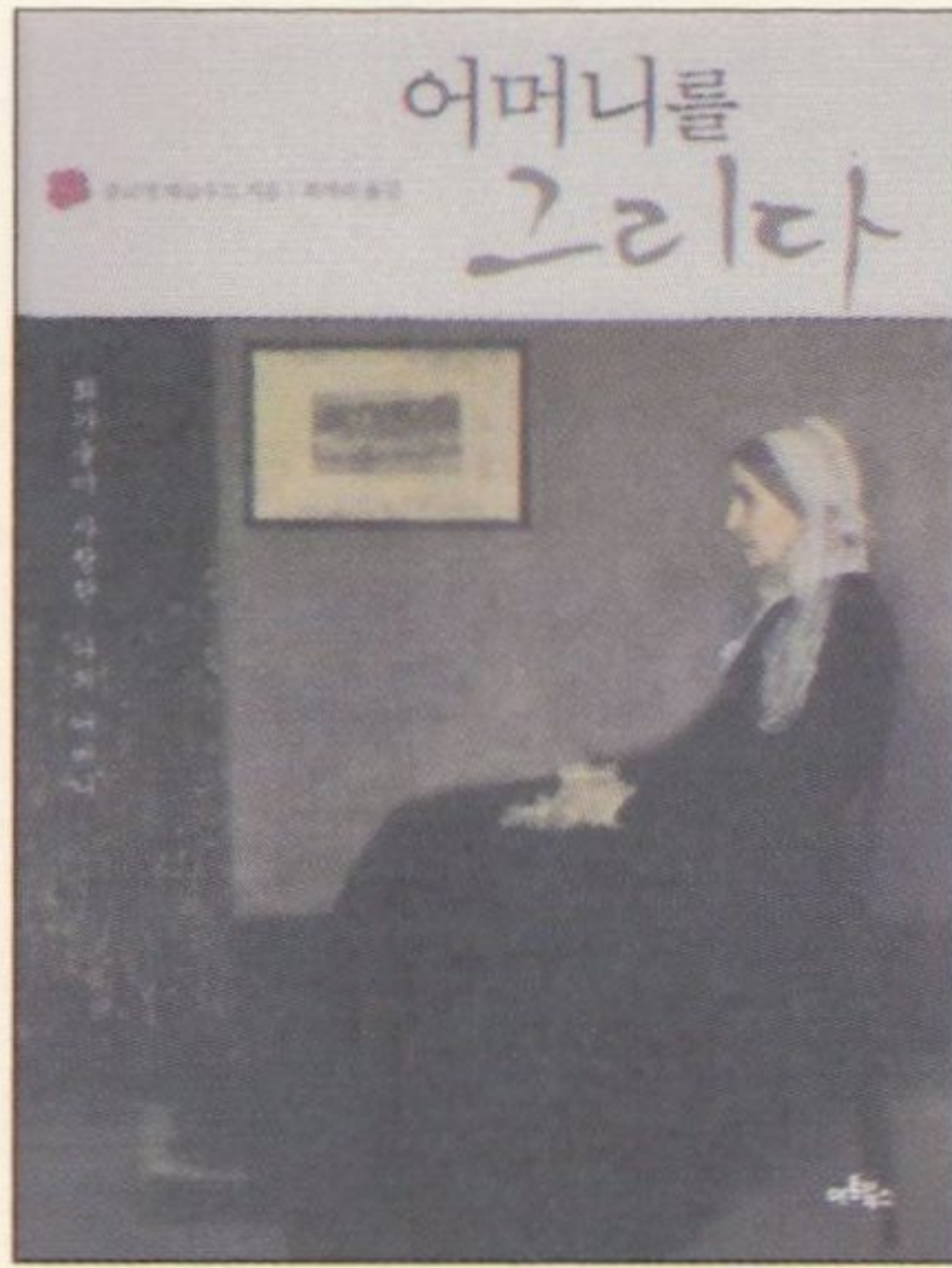
▶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3번

결코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 진취적인 음악가, 빅토리아 물로바가 크리스티안 베자위던 하우스와 함께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를 녹음했다. 찬사를 받은 바흐에 이어 이번에도 어린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연주했던 작품을 시대악기-역사주의 연주를 통해 새롭게 바라본 역작으로, 오랜 사색과 격렬한 감정이 교차하는 통찰력이 넘치는 연주가 태어났다. 완벽하게 복원된 1816년제 빈 포르테피아노를 연주하는 베자위던 하우스 역시 물로바와 대등한 음악적 파트너로 특유의 섬세한 아티클레이션과 다채로운 음색을 과시하며 호연을 펼치고 있다. 오닉스 5주년을 기념하는 50번째 레코딩!



# NEW BOOK

박현주 \_ 동보서적 <웹진 책소식> 편집장



## 어머니를 그리다

줄리엣 해슬우드 지음  
아트북스  
183p / 1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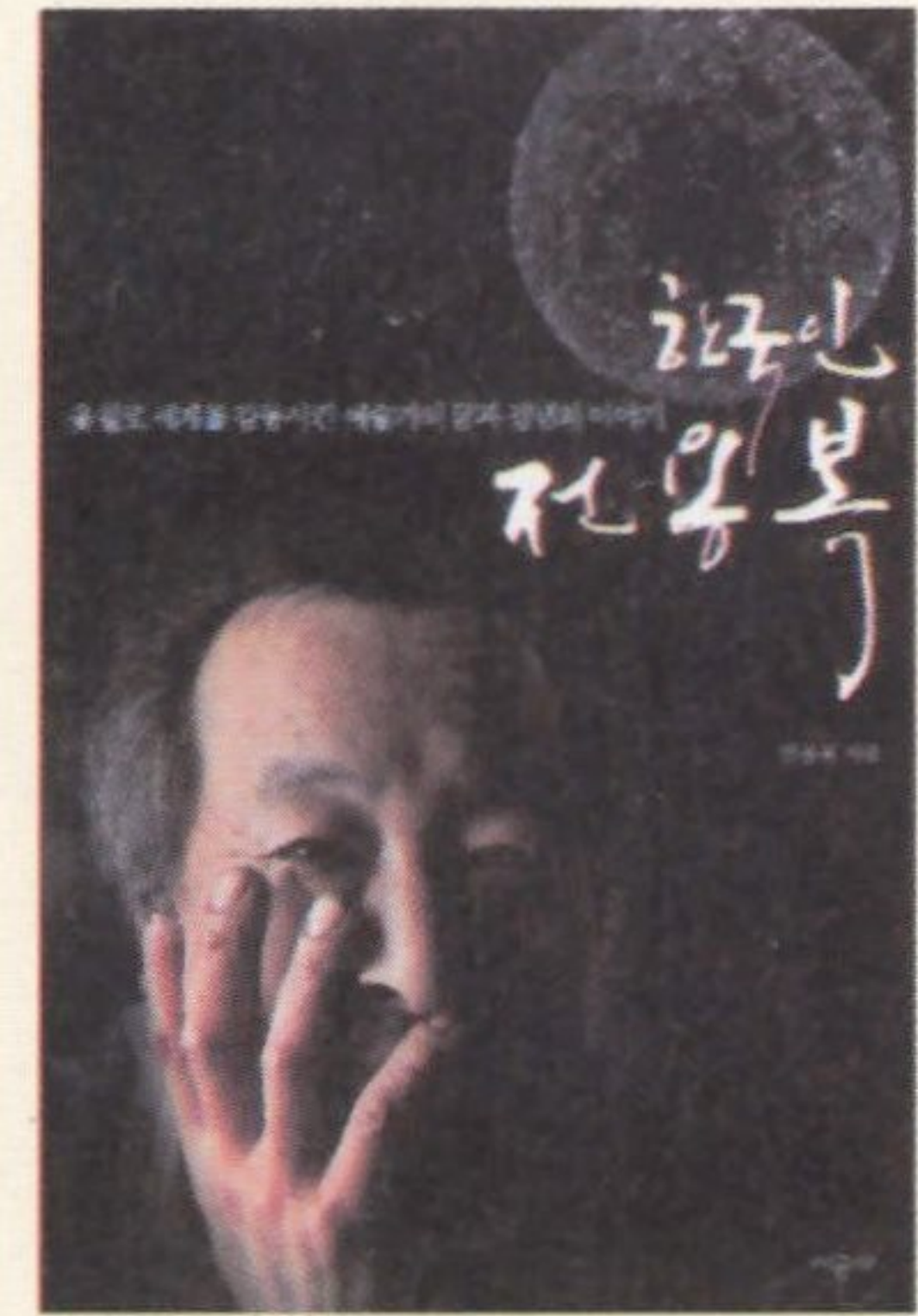
초등학교 시절 미술시간에 어머니 얼굴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받은 기억이 있는가. 바쁘다는 어머니를 쫓아 다니기도 하고, 사진을 앞에 두고 그리기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그리고 싶어 애쓰던 그때의 마음은 얼마나 예뻐했을까.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던 화가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렸을까? 거장들이 그린 어머니 얼굴을 한 권의 책에 모았다. 자녀를 세계적인 회화의 거장으로 키워낸 어머니들. 화가들은 그런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다양한 모습으로 화폭에 담아냈다. 어머니의 희생과 내조가 있었기에 위대한 화가들은 꿈을 이룰 수 있었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머니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 책은 화가들이 그린 어머니의 초상에 대한 설명 뿐만 아니라, 화가와 그 어머니의 일생까지 들려준다. 이야기와 함께 그림을 살펴보면서 화가들이 왜 자신의 어머니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 파블로 피카소 등 유명한 화가들부터 에릭 윌슨이나 톰 필립스 같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화가들까지 거장들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 화가들의 그림은 대체로 자신의 어머니를 따뜻하고 밝은 시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 박수는 언제 지나요?

다니엘 호프, 볼프강 크나우어 지음 / 김진아 옮김  
문학세계사  
304p / 11,000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호프가 일반 대중들을 위해 클래식 상식을 쉽게 재미있게 정리했다. 클래식 공연장에서 가장 기본 매너인 '박수'를 쳐야 할 시점부터 클래식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대중들의 기대에 맞출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이란 어떤 것인지 클래식 계의 조망까지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세계의 유명한 콘서트홀, 전설적인 지휘자들, 음악사조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재미있는 일화와 유머러스한 삽화를 곁들여 책을 즐겁게 읽으며 클래식 공연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자란 다니엘 호프는 영국 로열 아카데미 음악원에서 자카르 브론의 가르침을 받았다. 세계적 클래식 음반사인 도이치 그라모폰 소속인 그는 BBC 프롬스(Proms),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그의 연주에 지적이며 인간미가 넘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의 음악 여정은 네 살 때 뜨개질 바늘로 바이올린 연주를 흉내내는 것으로 시작됐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을 가졌으며 '이 책은 클래식 공연의 즐거움을 아직 맛보지 않은 이들을 위한 가이드 북'이라며 '한국에서 출판돼 흥분된다'고 말한 바 있다.



## 한국인 전용복

전용복 지음  
시공사  
317p / 13,800원

옷칠로 세계를 감동시킨 예술가의 꿈과 집념의 이야기. 일본의 국보급 건물인 메구로가조엔을 복원하고 세계적인 칠예작가로 우뚝 선 전용복 씨의 예술과 인생을 담았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가구공방을 운영하면서 접한 옷칠의 매력에 빠지게 된 사연, 일본의 국보급 옷칠 문화유산인 '메구로가조엔'의 옷칠 복원 공사에 얽힌 이야기, 5천 250만엔(약 6억원)에 팔렸던 옷칠 시계 제작의 뒷 이야기 등 세계적인 칠예(漆藝) 작가로 인정받기까지 인생역정과 옷칠의 세계화를 위한 저자의 집념을 읽을 수 있다. 옷칠 인생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자서전인 이 책에는 작가의 최근 작품도 실려 있어 감상의 기회를 준다. 중간중간 삽입된 작품 사진들이 달리는 기차에서 보는 풍경처럼 운치 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이 책에 대해 '천 년의 바닥 속에 감춰진 찬연한 빛들이 상감된 것 같다'고 했다. 조선의 칠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작품 활동과 제자를 양성하는 작가는 현재 세계 최대의 옷칠 미술관인 이와야마 칠예미술관 관장, 일본 이와테 현의 문화예술진흥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만년을 산다는 옷칠장이에게서 예술의 진수를 느껴보자.



## 부산문화회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류협약 체결

부산문화회관과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5월 12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인적·물적 문화예술 사업 교류를 위한 '문화예술교류협약'을 체결했다.

부산문화회관(관장 최성달)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용환)과의 상호협력, 문화예술사업 교류를 통해 예술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부산문화회관은 이번 대전문화예술의전당과의 협약을 통해 타지역과의 문화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올해 10월 부산시립교향악단 전국순회연주회 대전공연, 대전시립교향악단의 부산 초청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문화회관은 두 도시간의 문화예술분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두 도시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문화도시 부산'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 6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 |         |       |  |                        |
|---------|-------|--|------------------------|
| 6.03(목) | 15:00 | 꿈나무소망심기공연 '개성고등학교와 함께' 개성고등학교 강당         | (출연/국악관현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
| 6.07(월) | 13:30 | 꿈나무소망심기공연 '부산은해학교' 부산은해학교 강당             | (출연/무용단)               |
| 6.11(금) | 14:00 |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상이군경과 함께 하는 국악' 부산보훈복지회관 | (출연/국악관현악단)            |
| 6.16(수) | 11:00 | 꿈나무소망심기공연 '주양초등학교와 함께' 주양초등학교강당          | (출연/무용단)               |
| 6.19(토) | 15:00 | 내사랑부산공연 '미술과 함께 하는 클래식 공연' 시립미술관로비       | (출연/교향악단)              |
| 6.22(화) | 13:20 | 꿈나무소망심기공연 '교리초등학교와 함께' 교리초등학교강당          | (출연/교향악단)              |
| 6.23(수) | 12:30 | 내사랑 부산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 시청로비           | (출연/합창단)               |
| 6.25(금) | 10:00 | 근로자를 위한 활력공연 '중소기업인대회 축하공연' 시청대회의실       | (출연/교향악단)              |
| 6.26(토) | 15:00 | 아기사랑콘서트 '예비부모와 함께하는 음악회'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출연/교향악단)              |
| 6.30(수) | 14:20 | 꿈나무소망심기공연 '모라중학교와 함께' 모라중학교강당            | (출연/국악관현악단)            |

※문의:부산문화회관(607-6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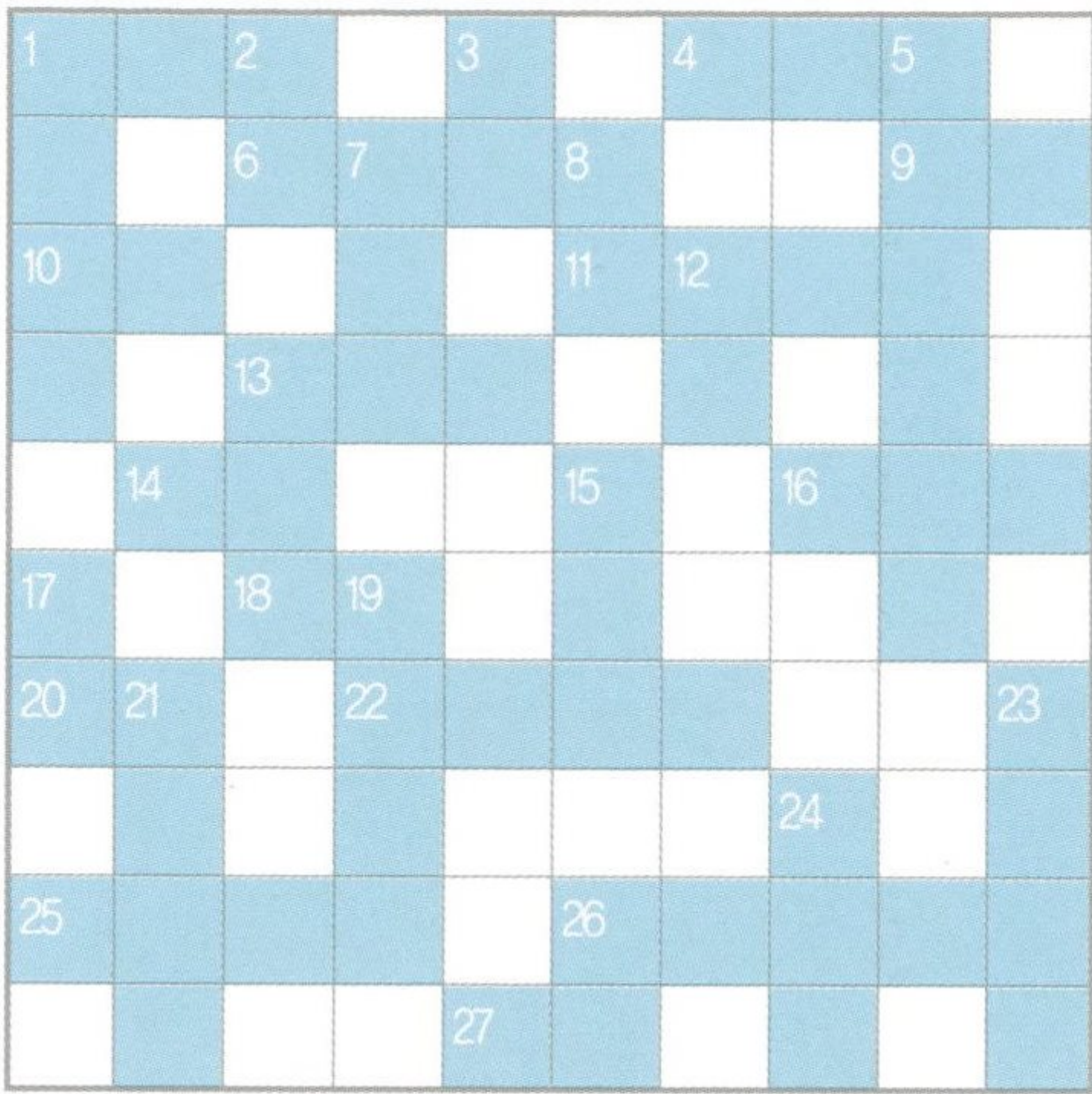
## 크리스피 크림 도넛 웰빙콘서트 관람객 도넛 협찬



부산시립교향악단 2010 웰빙콘서트 시리즈 '댄스 인 클래식' 5월 공연이 열린 지난 5월 20일 크리스피 크림 도넛에서 관람객들에게 오리지널 클레이즈 도넛을 협찬했다.

부산문화회관에서는 크리스피와 함께 브런치 공연의 취지를 살려 9월과 11월 공연에서도 음악과 차, 간식을 즐기며 여유로운 한낮의 음악회를 펼칠 계획이다.





가로열쇠

- 1\_부산시립교향악단이 교향악의 정수이자 기초라 할 수 있는 두 작곡가 ○○○과 브람스의 작품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2010년 기획 프로젝트 무대 'BBB'.
- 4\_방송국에서 발신하는 전파를 잡아 이것을 음성으로 복원하는 기계.
- 6\_201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성 최초로 감독상을 수상한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최고 화제작.
- 9\_스타를 꿈꾸는 예술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 10\_쌀로 빛은 일본식 청주.
- 11\_아르헨티나의 탱고 작곡가. 탱고의 전설, 탱고의 황제로 불리며, 대표적인 작품에는 '리베르탱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등이 있다.
- 13\_영국의 작가 배리가 쓴 동화극.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소년과 인간 세계의 소녀 웬디가 해적선장

- 후크에 맞서 펼쳐지는 모험이야기.
- 14\_회사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해 보상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
- 16\_김소월의 시. 인생을 꽃에 비유해 저만치 외롭게 떨어져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함축성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 18\_프랑스 조각가.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생각하는 사람' '지옥문' '칼레의 시민' 등이 있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국내최초로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
- 20\_변종 식인 멧돼지와와의 추격전을 그린 신정원 감독의 2009년 영화.
- 22\_미래의 잠재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유명 공연장의 미판매 공연티켓을 60~80% 할인된 가격으로 학생과 교사들에게 판매하는 제도.
- 25\_우둔한 고양이와 꼬 많은 생쥐와의 좌충우돌 추격전을 그린 애니메이션.
- 26\_대공황기의 캘리포니아 소작농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존 스타인벡의 1939년 풀리처상 수상작.
- 27\_중국 고대의 사상가. 도(道)를 천지만물의 근본원리로 본 도가(道家)의 대표자이다.

세로열쇠

- 1\_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건축한 바로크 양식의 궁전. 1979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 2\_1959년 아카데미 11개부분을 수상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
- 3\_유럽에서 발생한 저음찰현악기. 모양이나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바이올린과 같으나 길이는 약 2배 가량으로 연주자가 의자에 앉아 악기를 세우고 연주한다.
- 5\_1988년 토니상 최우수 뮤지컬작품상, 감독상 등 7개 부분을 수상한 앤드루 L. 웨버의 뮤지컬.

- 7\_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홈페이지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지저귀다'라는 뜻으로, 하고 싶은 말을 그때 그때 짧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이다.
- 8\_독특한 풍미를 가진 갈색에 가까운 기호 음료. 에티오피아의 산악지대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896년 고종황제가 아관파천으로 러시아에 머물 당시 최초로 마셨다고 한다.
- 12\_국악 현악기 중에 가장 좁은 음역을 지닌 저음악기.
- 13\_플루트의 음 높이보다 더 높은 음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악기. 많은 나라에서 '작은 플루트'라고 불린다.
- 15\_영국 속담으로 '홀딱 벗는다'는 뜻으로, 1980년대 초 대처총리 집권시절을 배경으로, 실직노동자들의 분노와 괴로움을 웃음과 풍자를 통해 그려낸 영국의 코미디 영화.
- 17\_19세기 중엽 차(茶)를 수출하려 했던 일본인이 자국 내의 녹차를 '일본차'로 부르고 유럽인이 마시는 발효차를 차의 빛깔이 붉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 19\_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의 전통적 머리모양으로, 딸은머리라고도 한다.
- 20\_남아메리카 동부에 있는 공화국. 수도는 몬테비데오. 1930년 이 곳에서 열린 제 1회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의 홈팀 우승국가이기도 하다.
- 23\_한국정부로부터 간첩혐의를 받고 입국금지상태였던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33년만의 귀향과 귀국 10일만에 '대한민국 최대의 거물간첩'으로 몰리기까지를 1, 2부로 나누어 기록한 홍현숙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 24\_이인직이 1906년 발표한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
- 26\_두 개 이상의 원자가 어떤 힘에 의해 일정한 형태로 결합한 것으로 1개의 독립된 입자.

지난호 정답



조은극장

- 김소현(사하구 감천동)
- 김영미(동래구 사직동)
- 김은지(연제구 연산동)
- 박은서(남구 대연4동)
- 이호광(사하구 하단동)

공간 소극장

- 김정화(사상구 괘법동)
- 윤소희(연제구 연산5동)
- 이중기(수영구 남천동)
- 최소영(사하구 괴정2동)
- 최은기(부산진구 연지동)

나랏소

- 김민재(수영구 망미동)
- 김정임(수영구 수영동)
- 박미정(기장군 교리)
- 정은영(남구 용당동)
- 최경연(수영구 광안2동)

큰집

- 김은미(중구 중앙동)
- 박상현(부산진구 전포동)
- 석상훈(부산진구 부암1동)
- 송말남(연제구 거제동)
- 이서현(연제구 연산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1588-2757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최고급 부산만을 고집합니다

##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고풍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0년 6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역사와 전통의 고장 고성 문화체험 여행

5월 14일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공룡의 나라 고성으로 떠나기 위해 이른 아침 정기회원 가족들이 하나둘 부산문화회관으로 모여들었다. 떠난다는 기쁨 때문에 전날 밤잠을 설쳤다는 몇몇 회원들이 소녀처럼 미소짓는다.

5월 테마여행은 부산시립극단 정행심, 이혁우 단원이 회원들과 동행했다. 공룡의 나라로만 알고 있는 고성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 떠나는 5월 여행은 싱그러운 햇살과 아름다운 고성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더욱 빛이 났다.

2시간을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신라의 고찰 옥천사. 속세의 묵은 때를 내려놓고 이른 아침 산사를 찾은 정기회원 가족들은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김영환 선생의 설명을 들으며 천년

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신라 문무왕 16년(676년)에 창건된 옥천사는 대웅전 뒤에 맑은 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 옥천사라고 불리게 되었다. 옥천사 샘은 지금도 옥천사를 방문하는 중생들의 목을 적혀주고 있다.

지금의 옥천사는 쌍계사의 말사이지만 그 옛날 옥천사는 600여명의 승병이 기거 하던 큰 사찰이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나라에 진상하던 어람지로 지정받으면서 질 좋은 한지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스님들이 동원되었다. 당시의 규모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자방루로 잘 알 수 있다. 옥천사는 가람배치가 독특해 불교건축을 연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옥천사에서 산림욕까지 마친 회원들은 옥천사 인근의 공룡 발자국과 장산숲, 허씨고가를 따라가며 역사의 고장 고성의 새로운 매력에 빠져들었다.

아침 일찍 출발하느라 일찍 찾아온 시장기를 채우고 오후 전통문화 체험여행에 들어갔다. 오후 첫 여행지는 탈박물관. 고성탈박물관에는 경남지역 탈놀이에 사용했던 탈을 중심으로 신앙탈, 창작탈 등 국내 탈들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외 여러나라의 탈들을 전시하고 있다. 부산 지역에서 연희되고 있는 수영야류, 동래야류 탈도 전시관 한 칸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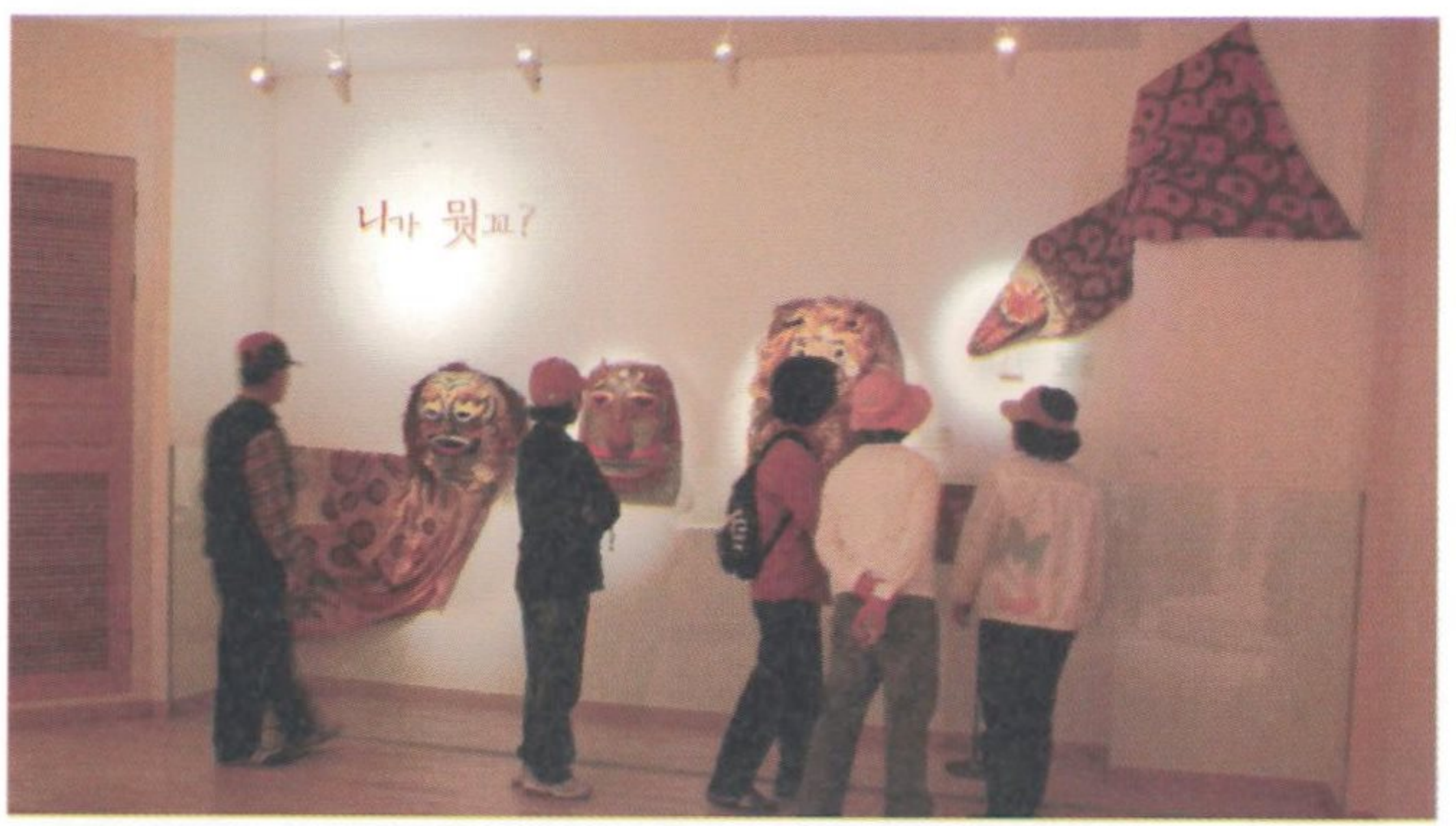
학예사의 설명을 들은 뒤 박물관 로비에서 정행심 단원의 특별무대가 마련되었다. 제대로 된 무대, 조명도, 객석조차 없는 박물관 로비에서 모노드라마 '늙은 창녀의 노래'가 펼쳐졌다. 오랜 연륜에서 묻어나는 감칠맛 나는 대사와 입담으로 극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늙은 창녀의 노래'에서는 모두가 수준급의 배우들. 정기회원들이 모두 배우가 되어 주인공 창녀가 즉흥적으로 권하는 술을 나눠 마시며 늙은 창녀의 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다.

감동을 뒤로 하고 다음 탈박물관과 이웃한 고성오광대 전수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고성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고성오광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7호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고성오광대는 다른 지방의 오광대에 비해 놀이의 앞뒤에 오방신장춤, 사자춤 같은 귀신 쫓는 의식춤이 없고, 극채색(極彩色)을 많이 쓰며 오락성이 강한 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성오광대 보존회 이윤석 회장을 비롯해 보존회 가족들이 부산에서 찾아온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농번기라 힘들게 시간을 내어준 보존회 가족들의 지도로 고성오광대를 직접 배워 보는 기회를 가졌다.

처음 접해본 고성오광대 춤사위. 마음 따로 몸 따로 회원들의 개성 넘치는 춤사위에 전수관이 한순간 웃음바다가 되었다. 정기회원 가족들은 테마여행에서 제대로 보지 못한 고성오광대의 일품 덧뵈기춤은 6월 24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전국연극제 축하공연 무대에서 다시 보기로 약속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다.

고성의 속내를 들여다 본 5월 테마여행. 고성의 맛과 멋, 신명에 취한 특별한 하루로 오래도록 기억된다. (글/백경옥, 사진/정복엽) ■ 협찬/레임투어편



2010년 7월에는 **가덕도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6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6월 테마여행 당첨자

#### 엽서당첨자

- 김 산(기장군 기장읍)
- 김말자(연제구 연산동)
- 김정임(수영구 수영동)
- 김정자(해운대구 반여동)
- 박정호(해운대구 반여동)
- 박정희(동래구 안락1동)
- 배영하(수영구 망미동)
- 신기연(금정구 구서2동)
- 천진미(남구 용호1동)
- 홍정남(부산진구 전포동)

#### 신규가입자

- 강희숙(강서구 강동동)
- 고경우(남구 용호1동)
- 김미성(사상구 엄궁동)
- 김민희(수영구 남천1동)
- 김정대(연제구 연산5동)
- 박미애(해운대구 중동)
- 박청숙(부산진구 초읍동)
- 배연경(해운대구 중동)
- 정수선(남구 용호1동)
- 조현주(남구 용호1동)



Make  
Today  
Special



“사랑보다 달콤하고  
그보다 더 부드러운 크리스피 크림”

바로 만들어 신선하고 우수한 원료로  
더욱 건강해진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칼로리 걱정없이 즐기세요.

1937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살렘에 설립한  
크리스피 크림의 유명한 따뜻한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도넛”은  
세계 제일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도넛입니다.



100% 유기농커피  
**ORGANIC Coffee**  
Columbia



[www.krispykreme.co.kr](http://www.krispykreme.co.kr)

검색창에서 **크리스피 크림** 을 찾아보세요.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단원 모집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는 21세기 부산문화예술을 이끌  
주인공이 될 참신하고 유능한 신규단원을 모집합니다.

## 1. 모집부문 및 전형내용

- 단체명 : 소년소녀합창단      · 모집부문 : 비상임단원(합창)      · 인원 : 13명
  - 응시자격 : 초등 3년~초등 6년(전형일 기준)에 재학 중인 용모 단정한 어린이 및 청소년
  - 전형과목 : ①자유곡 1곡 ②음역, 음감 테스트 ③자기소개하기
- ※ 소년소녀합창단 반주자가 반주(응시시 반주자 동반 가능)

## 2. 전형일시 및 장소

- 실기(1차) : 2010년 6월 12일(토) 11:00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 면접(2차) : 2010년 6월 17일(목) 17:30 부산문화회관 회의실

## 3. 합격자 발표

- 실기(1차) : 2010년 6월 15일(화) 14:00
  - 최종(2차) : 2010년 6월 21일(월) 14:00
-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고

##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년 5월 24일(월) ~ 6월 9일(수) 18:00 까지

※우편접수는 6월 9일(수) 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진첨부), 재학증명서 1부, 악보 2부

다. 접 수 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46)

※우편접수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 부산문화회관 공연과(우 608-024)

## 5. 기 타

가.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일정 : 매주 화, 목, 토요일 17:00~19:30

나. 문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607-3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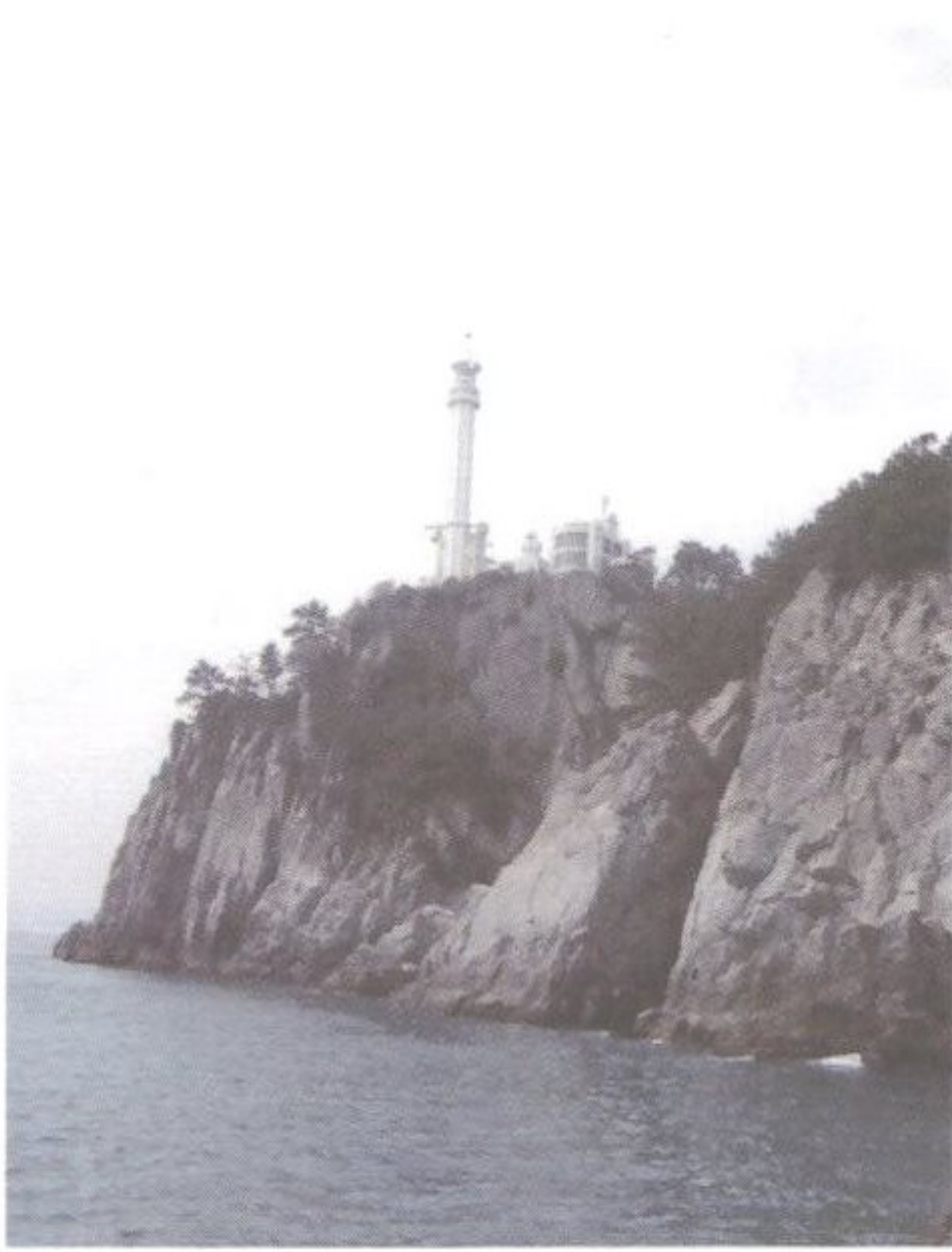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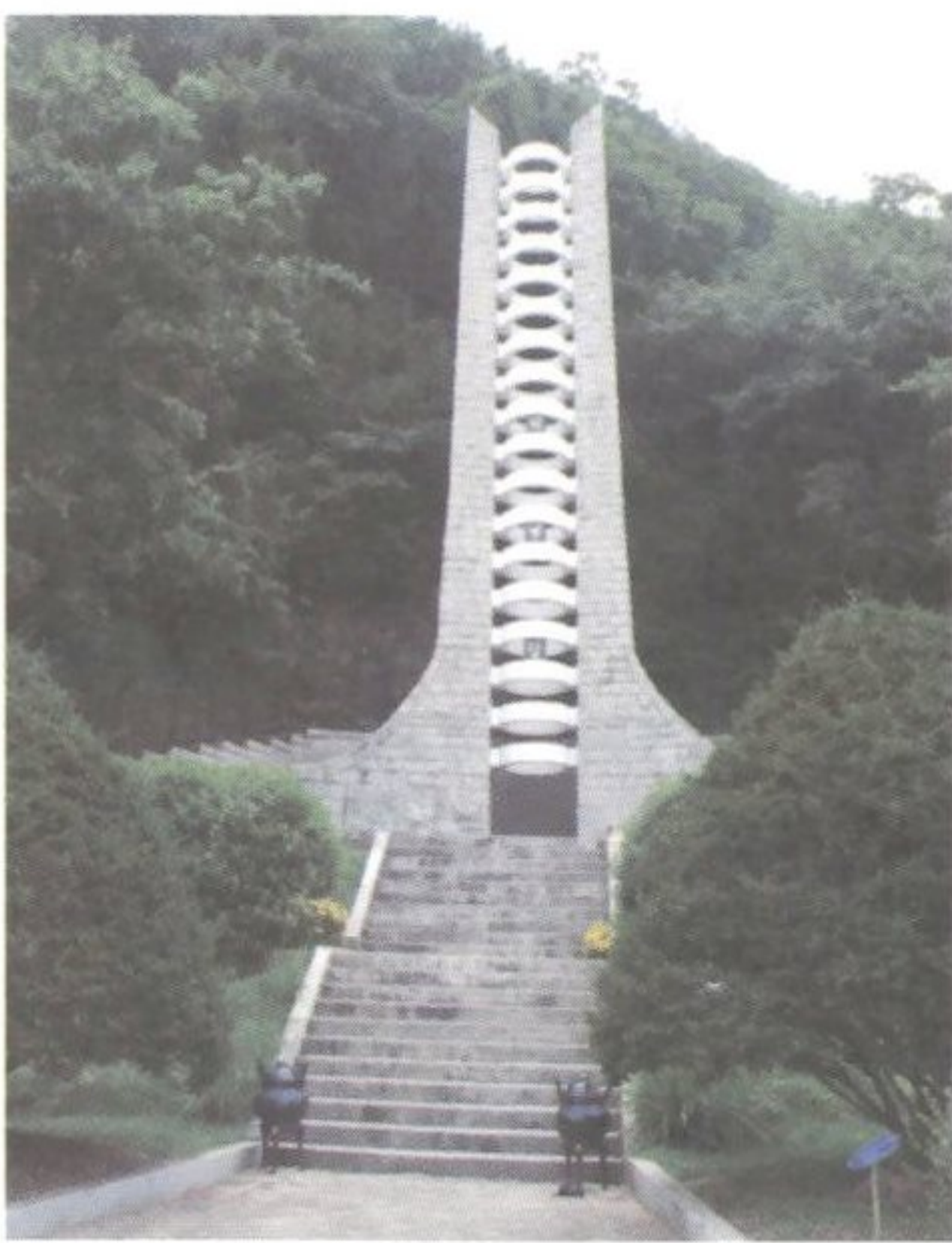
가덕도

## ▶ 7월 9일 (금) 역사의 섬, 가덕도

면적 20.78km<sup>2</sup>, 해안선 36km로 부산에서 가장 큰 섬, 가덕도. 신항만과 거가대교 공사가 한창이지만 가덕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인적 드문 무공해 섬으로 남아있다.

가덕도 왜성과 부산광역시기념물 제 35호로 지정된 가덕도 척화비, 1909년 12월 첫 불을 밝힌 우리나라 초창기 등대인 가덕도 등대 등 다양한 역사 유적이 산재한 가덕도에서 또 다른 부산의 모습을 본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09:30 가덕도 도착, 천성에서 외양포항 배 승선
- ▷ 10:00 외양포 도착, 가덕도 등대로 이동
- ▷ 11:00 가덕도 등대 도착
- ▷ 12:00 중식
- ▷ 13: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4:30 외양포 요새사령부 등 답사
- ▷ 15:00 외양포에서 천성항 배 승선, 부산 출발



의령 충익사

## ▶ 8월 13일 (금) 의병의 고장 의령

한가로운 농촌의 소박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의령으로 떠나는 여름 여행.

임진왜란 당시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던 망우당 객재우 홍의장군과 17장령의 위패를 모신 충익사를 시작으로 객재우 생가, 현고수 등에서 의병 정신을 배운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09:40 의령도착, 충익사-정암진-구름다리-객재우생가-현고수
- ▷ 12:00 의령 산천립마을 도착, 중식
- ▷ 13:00 미꾸라지 잡기, 망개떡 만들기 체험
- ▷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6:00 의령예술촌 방문
- ▷ 17:0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우편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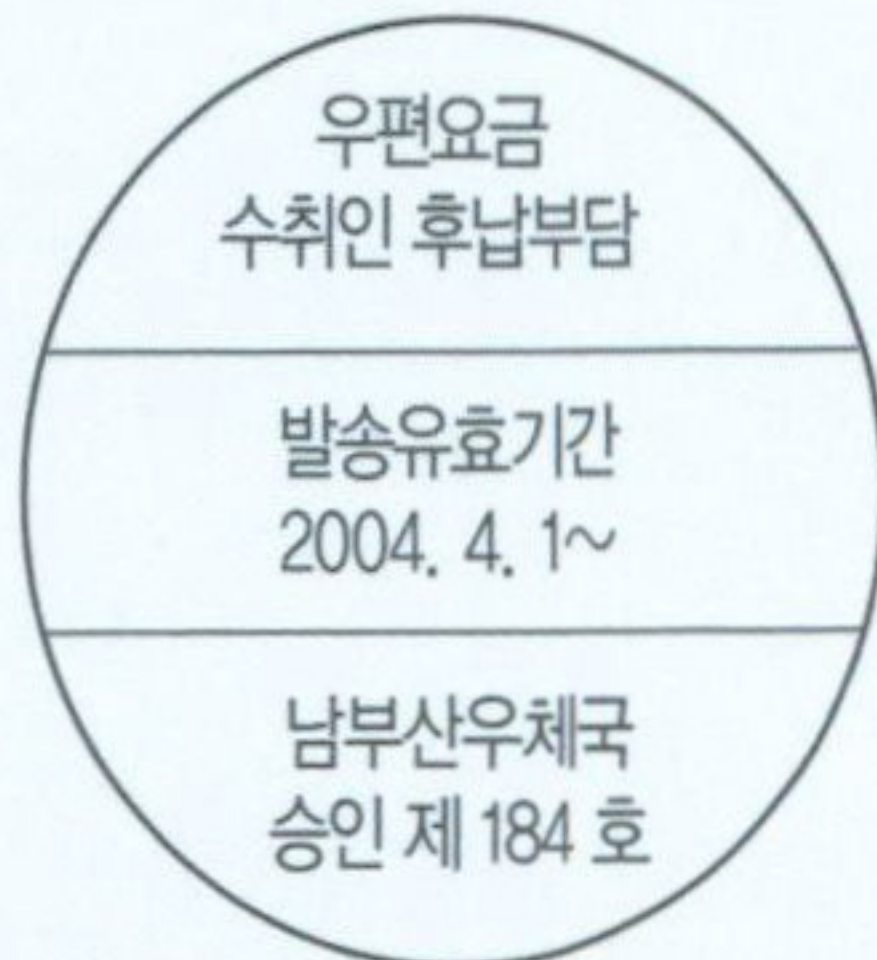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08-024

##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08-024



##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 합창감독 안나 아발레다 피케로 초청 세미나

- 주제 1.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의 운명과 연습방법
- 2. 현 시대 합창의 나아갈 방향

2010. 6.10(목) 오후 2시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 051) 607-3141~2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WineBeer치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뮤지컬 '오디션' 20% 할인



2010. 5. 21(금)~7. 25(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40,000원  
▶ 장 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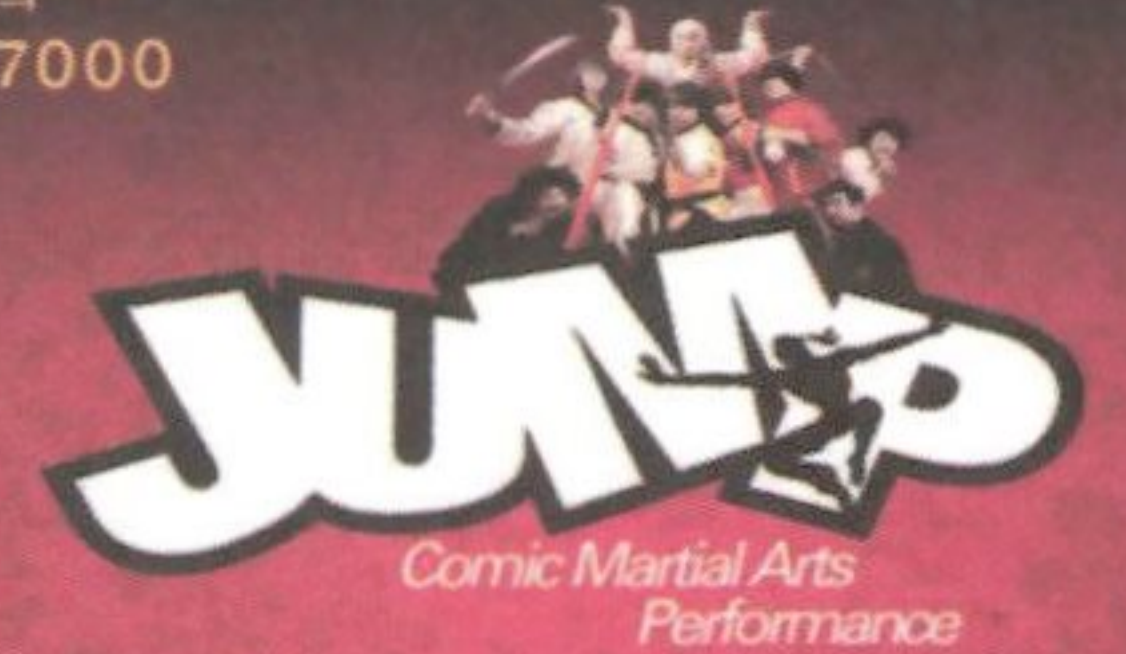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2010. 1. 1(금)~12. 31(금)  
▶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810-7000



점프 20% 할인

평일 20:00 / 토·공휴일 17:00, 20:00 / 일요일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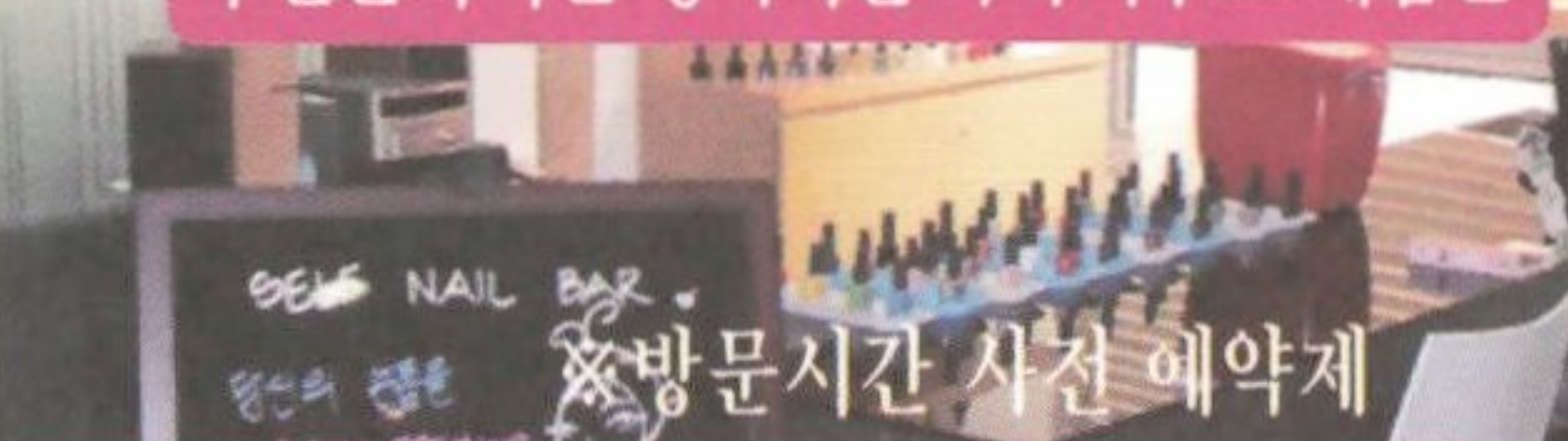
IBK (부산롯데호텔 풍대아트홀) 50,000원(R석) / 40,000원(S석)

\* 쿠폰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무료 체험권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금경 (한식퓨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박물관 옆 ☎ 051-611-1960

예매 및 문의  
051) 804-2252

THEATER  
서면 구.은아극장

비보이를 발레리나

20% 할인

▶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화~금 20시 / 토 16,20시 / 일 및 공휴일 15,18시(월 휴관)

\* 쿠폰제시 시 1인 4매까지 할인/편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타 할인과 중복 불가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BUSAN CULTURAL CENTER **Membership**  
<http://culture.busan.go.kr>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을  
편리하게 예약, 관람할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은 물론 부산시내 전 공연정보를 담은  
'예술에의 초대'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를 통해  
조기예매와 다양한 공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 회원종류 및 가입회비 •

구 분	가입회비	할인매수
특별회원	50,000원	공연시 4매 할인
일반회원	30,000원	공연시 2매 할인
청소년회원	20,000원	공연시 1매 할인
단체가입	30명이상 가입 10% 할인	

- 회원기간 \_ 가입일로부터 1년
- 할 인 율 \_ 기획공연 5~30%, 시립예술단공연 5~30%
- 좌석선택 \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좌석선택
- 할인횟수 \_ 제한없음
- 가입신청 \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 가입비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 탈 퇴 \_ 5일 이후 탈퇴시는 일정액(수수료) 제외 후 환불
- 예약취소 \_ 공연 당일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혜 택
- 월간공연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무료우송, 조기예매 기회제공, 문화강좌할인, 테마여행
- 부산시내주요 공연장 및 관람시설, 할인쿠폰제공 등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61회 정기연주회

# 부산시립교향악단

# B. B. B IV

BRAHMS & BEETHHOVEN  
in BUSAN



브람스 교향곡 제3번  
베토벤 교향곡 제2번

*Stefan Malzew*

지휘  
슈테판 말체브

2010. 7.8 목 <sup>오후</sup>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607-3111~4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부산은행 전자점

BUSAN PHILHARMONIC ORCHESTRA